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청과 용역계약(2004. 3. 24)한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 순 일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사회지표 체계는 UN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1978년에 성안되었고, 1979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하였다. 사회지표란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국민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 가능하게 해 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체계화한 것이 사회지표체계이다. 1978년 성안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는 1987년 1차 개편에 이어 1995년에 2차 개편한 바 있으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의 생활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지표체계를 새로이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표체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본 연구원은 통계청의 용역의뢰에 따라 현재의 지표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각 부문별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원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내에 사회지표 체계개편을 위한 전담연구반을 상설기구로 운영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였다. 또한, 사계의 권위자 6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의 기본방향 설정, 13개 부문간 지표내용의 조정, 중간 및 최종 연구결과의 검토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조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크게 제1권과 제2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권에서는 사회지표체계를 총괄하고 이 분야에 관심있는 정부, 학계,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제1장에는 사회지표의 정의, 역사, 국제적 동향 등을, 제2장에서는 사회지표의 개편방향을, 제3장에서는 사회지표체계의 개편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사회지표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용어해설 및 산식을 그리고 제6장에는 종합지수를, 제7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제언을 수록하였다. 제2권에는 각 부문별 지표체계 개편의 내용 및 여성부문의 참고지표 그리고 시산표를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사회지표체계가 실제 사회지표의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변화상을 잘 반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은 그동안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통계청의 선주대 국장, 권오술과장, 전신애과장, 우사임사무관, 나윤정사무관 그리고 김응하, 서경숙 선생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행과정에서 본 연구의 각 단계마다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권태환 서울대 교수, 김태현 교원대학교 교수,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이승욱 서울대 교수, 조남훈 건강증진사업평가단 단장 등 자문위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진들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주신 본원의 정경희 연구위원과 최병호 연구위원께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목 차

요약	5
제1장 서론	24
제1절 사회지표의 정의	24
제2절 사회지표의 역사	28
제3절 사회지표의 국제적 동향	31
1. 전반적 동향	31
2. 개별국가 및 국제기구사례	33
제2장 한국 사회지표 개편방향	41
제1절 한국사회지표체계	41
제2절 사회지표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43
제3절 연구방법	46
제3장 사회지표체계의 개편내용	47
제1절 사회지표체계의 개편개요	47
제2절 신사회지표체계의 특징	47
1. 이론적이고 균형적인 지표체계	47
2. 개별지표 선정과 통계적 정의, 산식, 자료원 등 용어해설의 보완	55
3. 주관적 지표의 대폭적인 확대	55
4. 특정 집단별 (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지표체계를 별도로 제시	56
5. 국제비교지표의 확충	56
6. 지역사회지표의 표준체계로서의 기능	57

제3절 부문별 개편방향과 개편내용	57
1. 인구부문	57
2. 가구와 가족부문	58
3. 소득과 소비부문	60
4. 노동부문	61
5. 교육부문	62
6. 보건부문	63
7. 주거와 교통부문	63
8. 정보와 통신부문	64
9. 환경부문	66
10. 복지부문	67
11. 문화와 여가부문	67
12. 안전부문	68
13. 정부와 사회참여부문	70
제4장 사회지표체계 개편안	71
A. 신 사회지표체계에 따른 개별지표	73
B. 생산가능한 개별지표	98
C. 장래개발지표	115
D. 주관적 지표	117
E. 특정집단별 지표체계	121
F. 국제비교 개별지표	133
제5장 용어해설 및 산식	137
1. 인구	139
2. 가구와 가족	154

3. 소득과 소비	169
4. 노동	185
5. 교육	192
6. 보건	205
7. 주거와 교통	227
8. 정보와 통신	242
9. 환경	249
10. 복지	261
11. 문화와 여가	276
12. 안전	291
13. 정부와 사회참여	311
제6장 종합지수	320
제1절 종합지수 필요성	320
제2절 외국사례: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	321
제3절 종합지수 산출과정	327
제4절 종합지수 적용 예시	329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336
참고문헌	342

표 목 차

〈표 1〉	신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13
〈표 1-1-1〉	일본의 사회생활통계지표 체계	34
〈표 1-1-2〉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 체계	36
〈표 1-1-3〉	영국의 사회동향 지표체계	37
〈표 1-1-4〉	캐나다 사회결합도 지표 체계	38
〈표 1-1-5〉	캐나다 개인보장지수 체계	39
〈표 1-2-1〉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의 변화	42
〈표 1-3-1〉	기존지표체계와 신지표체계 비교	48
〈표 1-3-2〉	2004년도 개편안에 의한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49
〈표 1-3-3〉	기존지표체계와 신지표체계의 부문 비교	54
〈표 1-6-1〉	신국민생활지표 체계표	323

요 약

1.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발전개황

- 사회지표란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 가능하게 하여 주는 척도임.
-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주요 국면에 관하여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규범지향적 관심의 성격을 가진 통계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생활의 수준측정, 사회상태의 종합적인 측정, 사회변화의 예측, 사회개발정책의 성과측정 등의 기능이 있음.
- UN에서 1972년 사회통계 체계화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함에 따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에서는 UNFPA의 지원하에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를 작성하였음.
 - 1978년 8개 부문(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공안) 350개 지표를 선정
- 1987년에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지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존의 사회지표체계를 개선하였음.
 - 8개 부문에서 9개 부문으로 확대하고(문화여가부문 추가), 총 468개의 지표가 포함된 개선안이 마련되었음.
- 1995년에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존의 사회지표체계를 개선하였음.
 - 9개 부문에서 13개 부문으로 확대하고(문화여가부문 추가), 총 553개의 지표가 포함된 개선안이 마련되었음.

2. 사회지표체계 개편의 필요성

- 1978년에 성안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는 1987년에 일차 개편에 이어 1995년 2차 개편한 바 있으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활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지표체계는 개편되어야 함.
- 경제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사회구조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관심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민의 다양한 관심의 변화를 반영하고, 삶의 질적 측면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지표체계의 개발이 요구됨.
-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구·시·군단위에서 지역별 사회지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지표 체계개편을 통해 지역사회지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표준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 PC의 대중화, CATV, 위성방송 등과 같은 정보매체의 다양화와 고속정보망의 구축으로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이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회의 및 진료 등 국민의 생활양식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보화 사회의 변동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등 정보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NT, BT, ET, IT 등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3. 사회지표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및 내용

가. 기본방향

고령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함.

나. 사회지표체계의 개편개요

- 개편은 「부문」 및 「관심영역」의 개편과 함께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지표를 선정하는 것임.
 - 필요한 부문의 설정과 부문간의 조정 및 관심영역의 재조정을 통하여 관심영역별로 지표를 재정리함.
 - 각종 지표는 시의성, 활용성, 국민의 관심도, 자료수집 가능성 및 시계열 유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삭제, 보완함.
- 새로운 지표체계에 포함된 개별 지표의 정의와 산식이 지닌 통계적 타당성을 검토·개선함.
 - 새로운 부문 및 관심영역의 확대
 - 지표의 통계적 정의, 산식, 용어해설의 보완
 - 주관적 지표의 검토·조정
 - 사회지표체계와 분야별 지표체계의 연계성 제고
 - 지역사회지표 표준체계의 개발
 - 고령화·개방화·정보화 관련지표의 보완

다. 신사회지표체계의 특징

□ 이론적이고 균형적인 지표체계

-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은 사회의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영역과 개별지표 선정에 중점을 두었음. 이와 같은 선정과정은 우선 부문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음. 현재 13개 부문으로 이루어진 부문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였음.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은 없는지, 혹은 통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은 없는지를 검토하였음.

□ 개별지표 선정과 통계적 정의, 산식, 자료원 등 용어해설의 보완

- 개별지표의 정의, 산식, 자료원 등 용어해설을 보완하고, 가능한 시산표를 제시 수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시 업무담당자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의 계수화를 하는데 용이 하도록 하였음.

□ 주관적 지표의 대폭적인 확대

- 객관적 지표는 주어진 수치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반면 주관적 지표는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배경 및 규범적 요인에 의해서 판단이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관적 지표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됨.
-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지표체계에서는 가치관, 만족도, 의식 등 주관적·심리적인 지표를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려고 노력하였음.

□ 특정집단별(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 지표체계를 별도로 제시

- 국민의 관심이 큰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과 같은 대상 특성별 집단에 대한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 관련 지표를 정리하여 별도의 지표체계를 제시함.

□ 국제비교 지표의 확충

-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표 선정은 중요성과 비교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음. 최근 각 종 정보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북한의 관련 지표도 여기에 포함하였음.

□ 지역사회지표의 표준체계로서의 기능

-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지표생산에 표준이 되도록 하였음.
- 타지역과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의 사회지표』의 체계가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라. 부문별 개편 개요

□ 『인구』 부문

- 지금까지의 사회변화, 특히 인구현상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국민생활에는 물론 사회정책에 바르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구부문의 지표체계를 개편하였음.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이나 특수 분야별 지표체계의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지표별 집계항목의 분류를 다양화하였음.

□ 『가구와 가족』 부문

- 1990년 이후 급증하는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개인을 단위로 한 고찰을 추가하고 정상가족 중심의 사고에서 가족의 다양성과 탈가족화의 개념을 수용하는 사고로의 전이를 고려하였음.

- 가족의 형성과 탈가족화는 전통유지와 최근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 독자적인 관심 영역으로 하고, 노인생활에 대한 영역도 독자적인 관심영역으로 하며, 앞으로 가족변화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는 “대안적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를 파악을 위한 지표를 고려하였음.

□ 『소득과 소비』 부문

- 지표체계를 소득-소비-저축-조세·재정-분배라는 거시경제학에서의 국민계정 체계에 의거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음.
- 지방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그리고 재산은 그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성 때문에 장래개발지표로서 개발하도록 하며, 조세부담 부분을 보강하여 다른 부분과의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성장률 둔화와 관련하여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저축영역에 투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였음.

□ 『노동』 부문

- 성인지적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주변인으로 남아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통계수치들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통합(inclusion)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구축코자하였음.

□ 『교육』 부문

- 국내·외 연구동향을 기초로 기존의 지표체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교육을 대표하는 지표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였음.
- 신 지표체계는 교육 자원 등 교육의 투입요인, 교육참여와 기회 등 교육의 과정요인, 교육의 성과 등 산출요인이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체제론적 접근에 기초하여 설정을 고려하였음.

□ 『보건』 부문

- 관심영역을 장래의 변화까지 감안하여 지표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개발된 관심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거와 교통』 부문

- 국민생활의 수준측정을 위한 현황자료 제시와 국가정책의 목표 설정에 활용 가능한 지표 그리고 기존 지표체계에서 고려한 기본취지와 기존 지표체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신지표체계의 방향을 설정하였음.
- 집중에 따른 과밀문제와 혼잡문제 등에 대한 복지수준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과 교통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경제성에 대한 관심과 객관적 평가요구 증가 등 최근의 정책·사회·경제적 관심을 반영하도록 하였음.

□ 『정보와 통신』 부문

-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빠른 보급은 이전과 다른 모습의 경제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고자 정량화해 주는 지표의 방향을 (i) 정보통신산업과 (ii)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인프라와 (iii) 인프라의 활용, 즉 정보화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환경』 부문

-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에서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업, 해양수산, 산림 분야 중에서 환경 혹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표를 추가하였음.
- 우리나라 환경부분 승인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지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분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음.

□ 『복지』 부문

- 사회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지표체계를 사회복지의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사회복지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삶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복지공급의 측면인 국가적 복지정책의 현황은 「복지의 보편성」, 「국가 책임」의 강조, 「국민의 참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들 정책지표도 복지지표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문화와 여가』 부문

- 기존지표의 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수용자 중심의 지표를 우선시하고자 하였고, 문화와 여가부문 이외의 다른 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표를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정책평가의 기준이 될 만한 지표를 생성하고자 하였음.
- 국민생활 수준 측정,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사회변화 예측, 사회개발정책의 성과측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안전』 부문

-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체계로서 모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거의 정치·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안전부문의 지표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표계열을 포함시키고, 안전과 관련된 주관적 지표도 확대되도록 하였음.

□ 『정부와 사회참여』 부문

- 산업사회가 아닌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표체계를 작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사회지표자료 활용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대학부설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생산된 자료들도 사회지표작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 지표체계를 고려하였음.

-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당면하고 있는 절박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사회지표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음.

마. 신규 지표체계의 비교

- 기존 지표 체계는 1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번 지표체계도 13개 부문으로 동일한 분야로 결정되었음.
-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시계열을 유지하기에도 좋다는 결론을 얻어 동일한 체계로 결정되었음.
- 한편 각 부문별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을 조정·보완하였음. 관심영역은 총 59개에서 58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세부관심영역은 150개에서 161개로 확대되었음.

〈표 1〉 신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신지표체계 부문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	신규지표	장래개발 지표	생산가능한 개별지표
인구	6	16	48 (5)	10	5	43
가정과 가족	6	17	50 (15)	34	13	37
소득과 소비	5	12	51 (4)	9	1	50
노동	5	10	35 (4)	4	1	34
교육	3	7	44 (9)	13	1	43
보건	6	23	67 (2)	24	6	61
주거와 교통	4	8	57 (10)	18	8	49
정보와 통신	3	12	28 (5)	21	0	28
환경	3	6	47 (6)	24	2	45
복지	4	11	70 (13)	30	1	69
문화와 여가	5	16	44 (8)	19	7	37
안전	5	14	66 (14)	18	11	55
정부와 사회참여	3	9	33 (14)	9	7	26
합 계	58	161	640(109)	233	63	577

주: ()는 주관적 지표, 총 개별지표 640개중 4개는 중복되어 제시되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별지표수는 총 636개(총 640개에서 부문별로 중복 제시된 4개를 뺀 것임)로 기존안의 526개에 비하여 약 20.9% 증가하였음. 총 636개의 개별지표 중 신규지표는 233개로 36.6%에 달하고 있음.
- 부문간 지표개발에 차이를 감안하여 가능한 필요지표를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사회지표보고서에 우선적으로 실어야 할 지표로서 권장지표를 각 부문별로 30개 전후에서 선정하였음.

4. 종합지수

가. 종합지수의 필요성

- 사회지표는 삶의 부분적인 정보가 아니라 삶의 전체 체계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함. 하나의 개별지표는 그 자체로서도 의의가 있지만, 체계 전체와 연관하여 볼 때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표의 종합화를 위하여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체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종합화 방법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종합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지표의 종합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아울러 지표의 종합화를 위해서는 국민 선호도 조사와 같은 의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종합화 방법의 제시에 초점을 두되, 일부지표를 대상으로 시산하는 선에서 그쳤음.
- 향후 이러한 사회지표의 종합화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외국례;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PLI: people's life indicators)

□ 작성경위

- 국민 생활의 상황을 표시하는 지표체계에 대해서는, 1970년 이래 국민생활심의회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1974년부터 사회지표로서 또 1986년부터는 국민

생활지표로서 공표되어 왔음.

- 1992년 5월 조사위원회 보고를 반영하여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에서 신국민생활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 특징

- 생활수준 및 풍요로움·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생활통계체계이며,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다양한 정보를 개인의 생활감각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구체적인 형태로 수량화하였음.
- 신국민생활지표는 사회전체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생활상의 여러 측면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다만, 사회전체의 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변화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신국민생활지표는 매년 개별지표와 지역별 지표 체계의 갱신을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시산단계에 있음.

□ 지표체계

- 8개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음.

① 주거, ② 소비지출, ③ 근로, ④ 양육, ⑤ 보건의료, ⑥ 여가, ⑦ 교육, ⑧ 교제·관계

- 생활평가축은 다음과 같음.

① 안전·안심, ② 공정, ③ 자유, ④ 쾌적

□ 구조변화지표

- PLI는 주로 개인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둘러싼 사회전체의 구조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변화지표를 설정하였음. 구조변화지표의 영역은 고령화, 국제화, 집중화, 정보·서비스화, 그린화 등 5가지 영역에 걸쳐 있음.

□ 지표의 계산방식체계

- 개별지표의 표준화

- 시계열: 1990년을 기준(100)으로 하여 증가율 계산
- 지역별: 전국 평균을 50으로 하는 편차치 방식에 따라 표준화

- 종합지표의 산출

- 표준화된 개별지표치를 활동영역 및 생활평가축 별로 종합화
- 가중치는 국민생활선호도 조사에서의 니드 득점을 활용

□ 결과활용

- 시계열별로 본 국민생활의 동향

- ※ 설명사례: 장기적으로 계속 신장되고 있는 영역은 소비지출, 보건의료, 여가, 학습 영역이고, 저하하고 있는 영역은 양육, 관계·교류 영역임.
- ※ 설명 사례: 각 영역별로 종합적인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년대비 몇 % 증가 혹은 감소로 표시가 가능함.

- 지역별로 본 국민생활 동향

- ※ 설명사례: “소비지출영역은 abc 지역은 높고 def 지역은 낮다. 특히 a 지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고, b 지역은 외식지출 비율이 높으며, c 지역은 내구소비재 지출비율이 높다”
- ※ 아울러 개별 지역별로 8개의 생활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표현이 가능함.

다. 종합지수 산출과정

□ 종합지수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1) 개별지표의 추출

- 사회의 각 영역을 평가하거나 또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지표 추출
- 가능한 한 시계열 자료로서 분석대상기간 이내에(예를 들면 1990년이 기준년도일 경우 1990년 이래) 입수 가능한 자료가 있는 지표 추출

2) 개별지표의 보정

- 기준 년도 이래로 일부 자료가 없을 경우 보간법에 의하여 보정

- 보정방법

- 중간 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 기하평균에 의한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 보정
- 기준년도부터 없는 경우 (예: 최근에 제도가 도입된 경우) 0으로 처리
- 대리지표가 있는 경우 자료가 없는 기간 내에 있어서 대리지표의 변화율을 적용

3) 개별지표의 표준화

- 변동의 폭 등이 다른 다수의 개별 지표를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지표에 대해 표준화를 하여야 함.
- 표준화지수는 기준연도인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각 년도의 변화율의 절대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고, 각 년도의 변화율을 기준년(1990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

○ 개별지표의 표준화 방법

① 대칭변화율의 산출

- case 1: 지표가 통상의 지수이거나 현실의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

$$C_{i(t)} = \frac{D_{i(t)} - D_{i(t-1)}}{\left(\frac{D_{i(t)} + D_{i(t-1)}}{2} \right)} \times 100 \quad - (1)$$

단, $C_{i(t)}$: 대칭변화율; $D_{i(t)}$: 개별지표; i : 지표번호, t : 시점

- case 2: 지표가 구성비 등인 경우, 또는 0이나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C_{i(t)} = D_{i(t)} - D_{i(t-1)} \quad - (2)$$

② 표준화인자(A_i)의 산출

$$A_i = \frac{\sum_{t=2}^N |C_{i(t)}|}{N-1} \quad - (3)$$

단, N: 표준화기간의 시점수.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이면 N=12임.

③ 표준화 변화율 ($B_{i(t)}$)

$$B_{i(t)} = \frac{C_{i(t)}}{A_i} \quad - (4)$$

④ 표준화 지수($S_{i(t)}$)의 산출

- 기준년차의 $S_{i(t)}$ 를 100으로 하고, 다음의 식에 따라 $S_{i(t)}$ 를 산출. 예를 들어 1990년을 기준년차로 하면 $S_{i(1990)} = 100$

- case 1:

$$S_{i(t)} = S_{i(t-1)} \times \frac{200 + B_{i(t)}}{200 - B_{i(t)}} \quad - (5)$$

- case 2:

$$S_{i(t)} = S_{i(t-1)} + B_{i(t)} \quad - (6)$$

4) 개별지표의 종합화

- 플러스·마이너스의 판단

- 개별지표에 대해서 그 지표 수준의 상승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플러스, 나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마이너스로 함. 마이너스 지표에 대해서는 앞에서 구한 표준화 지수를 200에서 뺀 값을 표준화 지수로 함.

$$U_i = S_i : \text{플러스 평가의 개별 지표} \quad - (7)$$

$$U_i = 200 - S_i : \text{마이너스 평가의 개별지표} \quad - (8)$$

- 종합화

- 활동영역별 개별지표의 표준화점수를 단순 평균
- 단, 활동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라. 종합지수 적용예시

- 단순히 종합화 과정에 대한 시산 결과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에 대한 지표를 선정하였음.
 - 첫 번째 자료는 주당 근로시간으로서 실제 data이면서 의미는 마이너스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임.
 - 두 번째 자료는 교양오락비 지표로서 구성비 data이면서 의미는 플러스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임.
 - 세 번째 자료는 교육비 지표로서 구성비 data이면서 의미는 마이너스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임.
 - 네 번째 자료는 의사수 지표로서 실제 data이면서 의미는 플러스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임.

다음의 표에는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개별지표를 기준년도인 1990년부터 각 연도별로 원수치가 제시되어 있음.

원수치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1990	48.2	4.6	7.5	42554.0
1991	47.9	4.9	7.7	45496.0
1992	47.5	5.0	8.6	48390.0
1993	47.5	5.1	8.7	51518.0
1994	47.4	5.2	8.6	54406.0
1995	47.7	5.3	9.3	57188.0
1996	47.3	5.2	9.8	59399.0
1997	46.7	5.2	10.3	62609.0
1998	45.9	4.5	10.7	65431.0
1999	47.9	4.9	10.7	69724.0
2000	47.5	5.3	10.9	72503.0
2001	47.0	4.9	10.8	75295.0
2002	46.2	4.8	10.9	78609.0
2003	45.9	5.0	11.4	81328.0

□ 1단계: 개별 지표의 대칭변화율 산출

- 주당 근로시간과 의사수 지표는 통상의 지수로서 현실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식 (1)에 의하여 개별 지표의 대칭변화율을 산출하였음.
- 한편, 교양오락비와 교육비 지표는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식 (2)에 기초하여 개별지표의 대칭 변화율을 산출하였음.

표준화#1(Cit)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1990				
1991	-0.624	0.300	0.200	1.671
1992	-0.839	0.100	0.900	1.541
1993	0.000	0.100	0.100	1.565
1994	-0.211	0.100	-0.100	1.363
1995	0.631	0.100	0.700	1.246
1996	-0.842	-0.100	0.500	0.948
1997	-1.277	0.000	0.500	1.315
1998	-1.728	-0.700	0.400	1.102
1999	4.264	0.400	0.000	1.588
2000	-0.839	0.400	0.200	0.977
2001	-1.058	-0.400	-0.100	0.945
2002	-1.717	-0.100	0.100	1.077
2003	-0.651	0.200	0.500	0.850

□ 2단계: 표준화 인자의 산출

- 식 (3)에 의하여 개별 지표는 표준화 인자를 산출하였음.

표준화#2 (Ai)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1990				
1991	0.624	0.300	0.200	1.671
1992	0.839	0.100	0.900	1.541
1993	0.000	0.100	0.100	1.565
1994	0.211	0.100	0.100	1.363
1995	0.631	0.100	0.700	1.246
1996	0.842	0.100	0.500	0.948
1997	1.277	0.000	0.500	1.315
1998	1.728	0.700	0.400	1.102
1999	4.264	0.400	0.000	1.588
2000	0.839	0.400	0.200	0.977
2001	1.058	0.400	0.100	0.945
2002	1.717	0.100	0.100	1.077
2003	0.651	0.200	0.500	0.850
표준화인자(Ai)	1.129	0.231	0.331	1.245

□ 3단계: 표준화 변화율 산출

- 1단계에서 구한 대칭변화율에 2단계에서 구한 표준화 인자를 나누어줌으로써 표준화 변화율을 구하였음.

표준화#3 (Bit)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1990				
1991	-0.553	1.300	0.605	1.342
1992	-0.743	0.433	2.721	1.238
1993	0.000	0.433	0.302	1.257
1994	-0.187	0.433	-0.302	1.095
1995	0.559	0.433	2.116	1.001
1996	-0.746	-0.433	1.512	0.761
1997	-1.130	0.000	1.512	1.056
1998	-1.530	-3.033	1.209	0.885
1999	3.776	1.733	0.000	1.275
2000	-0.743	1.733	0.605	0.785
2001	-0.937	-1.733	-0.302	0.758
2002	-1.520	-0.433	0.302	0.865
2003	-0.577	0.867	1.512	0.683

□ 4단계: 표준화지수의 산출

- 기준년도인 1990년을 100으로 하되, 주당 근로시간과 의사수 지표는 식 (5)에 근거하여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였음.
- 또한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교양오락비 지표와 교육비 지표는 식 (6)에 근거하여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였음.

표준화#4 (Sit)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1990	100.0	100.0	100.0	100.0
1991	99.4	101.3	100.6	101.4
1992	98.7	101.7	103.3	102.6
1993	98.7	102.2	103.6	103.9
1994	98.5	102.6	103.3	105.1
1995	99.1	103.0	105.4	106.1
1996	98.3	102.6	107.0	106.9
1997	97.2	102.6	108.5	108.1
1998	95.8	99.6	109.7	109.0
1999	99.4	101.3	109.7	110.4
2000	98.7	103.0	110.3	111.3
2001	97.8	101.3	110.0	112.1
2002	96.3	100.9	110.3	113.1
2003	95.8	101.7	111.8	113.9

□ 5단계: 개별 지표의 종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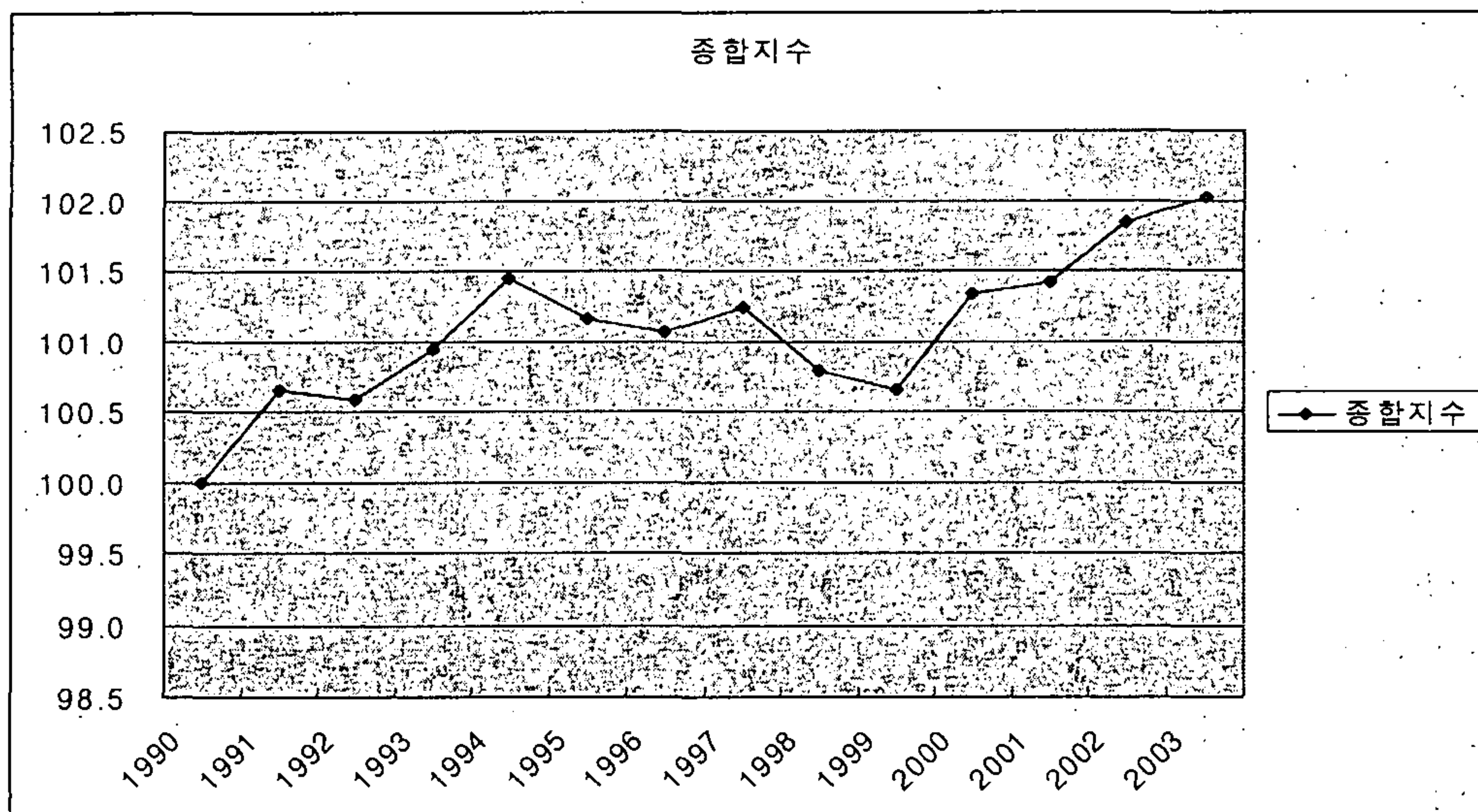
- 개별 지표를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표의 의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즉, 주당 근로시간과 교육비는 마이너스 지표이고, 교양오락비와 의사수는 플러스 지표인 것으로 가정
- 플러스 지표인 교양오락비와 의사수 지표는 4단계에서 구한 지수를 그대로 활용하고, 마이너스 지표인 주당 근로시간과 교육비 지표는 식 (8)과 같이 200에서 뺀 값을 활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의 표준화 점수를 단순 산술 평균하여 종합화 지수로 하였음. 다만, 모든 활동영역에 대해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러한 가중치는 추후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별도로 작성할 것임.

표준화#5 (Ui)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종합지수
199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1	100.6	101.3	99.4	101.4	100.6
1992	101.3	101.7	96.7	102.6	100.6
1993	101.3	102.2	96.4	103.9	100.9
1994	101.5	102.6	96.7	105.1	101.5
1995	100.9	103.0	94.6	106.1	101.2
1996	101.7	102.6	93.0	106.9	101.1
1997	102.8	102.6	91.5	108.1	101.2
1998	104.2	99.6	90.3	109.0	100.8
1999	100.6	101.3	90.3	110.4	100.6
2000	101.3	103.0	89.7	111.3	101.3
2001	102.2	101.3	90.0	112.1	101.4
2002	103.7	100.9	89.7	113.1	101.8
2003	104.2	101.7	88.2	113.9	102.0

□ 종합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 이러한 4개 지표는 개별지표의 의미가 서로 달라 종합지수로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4개 지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여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음.

- 기준년도인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삶의 질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1999년까지 지속,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주당 근로시간 지표의 표준화 지수는 기복은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표가 마이너스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의 주당 근로시간은 감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반영
- 교양오락비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감소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음.
- 교육비 지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마이너스 지표이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 비율이 계속 증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결국 삶의 질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하겠음.
- 의사수 지표는 1990년 100에서 2003년에는 113.9까지 증대하여 지난 13년간 13.9%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의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의 마이너스 영향이 크며, 또한 주당 근로시간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교양오락비의 영향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은 1990년에 비해 2.0% 포인트 상승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함.



제1장 서론

제1절 사회지표의 정의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는 사회조건들이나 지역사회 목표를 향한 진보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초기 북아메리카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사회지표는 점차 많은 국가들에서 채택되어, 목표를 정립하고, 사회발전을 측정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표에 대한 정의는 국가나 지역사회, 연구기관 및 학자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지표는 지표개발의 목적이나 필요성, 사회지표에 대한 관점과 연관하여 조금씩 다른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유종해 외, 1982).

사회지표 창시자의 한 사람인 바우어(Bauer)는 1966년에 출간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에서 사회지표를 “우리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증거”라고 정의하였다(Bauer, 1966). 이러한 정의는 사회지표의 사회정책적인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가목표와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무어와 셸돈(Moore and Sheldon)도 “사회지표는 어떤 규범적 기준에 의하여, 진보적이든 퇴보적이든 전체 사회적 영역의 한 국면이 현재상태 또는 과거 및 미래의 경향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회지표의 개념은 사회변동의 감시·관리(Monitoring of Social Change)라는 착상과 직결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Moore and Sheldon, 1968). 이는 사회지표를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관련지어서 과거와 현재의 추세 및 미래의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반면, 비더만(Biderman)은 사회지표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의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는 계량적 자료로 보았다. 또한 햄버거(Hamburger)는 사회지표를 “기초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즉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앤드류와 위데이(Andrews and Withey, 1976)는 사회지표를 시간에 따라 모니터가 가능하고 관련된 사회단위 수준까지 분해가 가능한 한정(limited)되면서도 종합적인 응집(coherent)된 중요한 지표 세트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정(limited)"의 의미는 지표들이 사회의 가장 현저하거나 중요한 실질적인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집(coherent)"은 지표들이 일정한 형태로 함께 모여지는 경우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모형이나 이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이클 래스터(Michale Rast)에 따르면, 사회지표는 기본적으로 한 사회나 지역에서 안녕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통계라고 한다. 그러한 사회지표는 시간에 따라 추적되거나 감시될 수 있다면, 안녕의 향상, 유지 또는 감소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기관이 국가단위에서 내린 사회지표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CCI(Jacksonville Community Council Inc.)는 사회지표를 사회(community) 생활의 질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양적 측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호주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 의하면, 사회지표는 주로 시계열 통계로 유용하고 유효한 방법에 의해 측정되고, 사회적 관심을 나타내는 요약통계(summary statistics)이며, 그 성과의 측정을 할 수 있는 현재 및 잠재적인 정책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한 인구집단의 안녕(well-being)을 기술할 수 있는 분해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제연합(1975)은 1975년도에 발표한 『사회·인구통계체계(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SSDS)』에서 "사회지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의 특정측면과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해서 알려주는 객관적 관찰과 일반적인 수량적 표현에 의거한 구성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OECD에서는 1982년에 발표한 『사회지표(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에서 사회지표를 "여러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사실들과 그 변화를 측정·보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OECD, 1982).

이와 같이 사회지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기관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지표가 시간과 공간, 상황 및 목적 등을 초월하여 획일적으로 정의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지표는 여러 정의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 내지 방향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사회지표는 여러 공통가치를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한 공통적 가치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1) 사회지표는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
- 2) 사회지표는 사회의 변동 특히, 삶의 질 개념을 포함하는 안녕의 변동을 양적으로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 3) 사회지표는 사회의 가장 현저하거나 중요한 실질적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사회지표는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여야 하며, 정책과 관련성을 가지고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 5) 사회지표는 특정한 인구집단의 안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분해 가능하여야 한다.
- 6) 사회지표는 요약을 포함한 통계 특히, 시계열적 통계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지표는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 특정 집단이나 영역까지로 분리 가능한 사회 관심의 변동 특히, 안녕의 변화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계열적 통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내포된 사회지표의 공통 가치들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사회지표 개편에 반영될 것이다.¹⁾

이러한 사회지표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켄랜드(Kenneth Land, 2000)는 그의 저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에서 사회지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기준지표(criterion indicators), 생활만족·행복지표(life satisfaction and/or happiness indicators) 및 기술적 지표(descriptive indicators)이다. 기준지표는 공공정책 또는 계획이 지향하는 목표들이나 성과들을 성정하는 규범적(normative indicators)들이다. 생활만족·행복지표는 사람들의 주관적 현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심리적인 만족감, 행복 및 인생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표는 사회에 대한 태도, 기대, 감정 및 야망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지표는 어떻게 사회가 작동하고, 무엇이 사회의 주요한 특징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회적 측정과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류 역시 앞서 조작적으로 제시한 사회지표의 정의에 그 기반을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끝으로 사회지표 개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가이다. 그

1)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공표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사회지표를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 가능케 하여 주는 척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들로 JCCI는 목적(purpose), 중요성(importance), 유효성과 정확성(validity and accuracy), 연관성(relevance), 민감성(responsiveness), 예측성(anticipation),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유용성(usefulness) 및 적시성(timeliness), 안정성(stability)과 신뢰성(reliability), 추진력(driving force)과 성과, 자산지향성(asset orientation), 규모(scale) 및 공평성(equity), 연계성(linkages), 명료성을 위한 프레임(framing for clarity),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은 사회지표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중요한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사회지표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성은 사회지표가 사회의 공동목표나 비전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동의하는 삶의 질 측면을 측정하여야 함의 의미이다. 유효성과 정확성은 사회지표가 삶의 질을 중요한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정한 요소나 이슈를 측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연관성은 사회지표가 공공 의사결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삶의 질 측면을 측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민감성은 사회지표가 삶의 질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응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예측성은 사회지표가 과거 추이에 반응하기보다 미래 추이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해가능성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사회지표가 모든 시민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용성과 적시성은 사회지표를 위한 공공 또는 민간 자료가 매년 쉽게 유용하고 가용하며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안정성과 신뢰성은 사회지표를 위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매년 수집되고 작성되며, 계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추진력과 성과는 사회지표가 사회조건들을 기술하기보다 삶의 질 추이 이면의 추진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사회의 대응 결과로서 성과를 측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자산지향성은 사회지표가 사회자산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규모와 공평성은 사회지표가 지리적 지역을 위해 보고되고, 삶의 질 관련 혜택 분포의 공평성 이슈를 명료히 하는 방향으로 보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계성은 사회지표들이 지표간 및 시간에 따라 상호연관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명료성 프레임은 사회지표가 삶의 질과 관련된 추이를 명료히 하는 방법으로 프레임을 갖추어야 함을 끝으로, 대표성은 사회지표가 삶의 질의 중요한 차원을 측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제2절 사회지표의 역사

미국의 뉴딜정책 시기인 1930년대 지시적으로 사회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그번(W. F. Ogburn)의 경향보고서인 "Recent Social Trends in the United States"로서 1933년 후버(Hoovers) 대통령 사회추세위원회(Committee on Social Trends)에 의해 발간되었다. 즉, 위원회 의장인 오그번이 총괄한 보고서는 사회보고(social reporting)에 기여를 하였다. 사회변화의 척도에 관한 오그번의 사상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1960년대와 1970년 사회지표 분야의 출현과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0년대 드레노스키(Jan Drenowski)와 국제연합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ssion of UN)도 사회지표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복지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세부적인 지표들을 설정하여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사회지표의 발전은 나사(NASA)가 우주프로그램(space program)이 미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지표들을 개발 하였던 1960년대 초가 그 효시가 되고 있다.²⁾ 이 프로젝트는 주로 정확한 자료의 부재와 이론적 및 방법론적 근거의 미흡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동 프로젝트의 소장인 레이먼드 바우어(Raymond Bauer)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의 용어와 개념을 발명하기도 하였다.

사회지표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개념 및 초기 접근방법들은 미국에서 최초로 논의되었으나, 이후 곧 다른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 퍼져나갔다. 1970년에 OECD는 사회지표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거의 동시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United Nations)는 사회인구통계체계(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지표 접근이 확산되었다. 사회지표운동의 급격한 확산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정치적인 분위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 당시 번영의 시기에 고도로 발전하는 서구사회에서는 사회진보의 주요한 목적으로서 경제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였다.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과 대중 빈곤은 개인적인 영향으로 공공의 주의와 정치적인 관심을 끌었다. 더 많은 것이 더 좋다는 것과 동일하

2) <http://www.westir.org.au/SOCINDICpaper.html>

다는 데에 대해 의구심이 일었으며, 이는 양보다 질에 대한 공공의 요구로 발전하였다. 삶의 질의 개념은 풍부한 사회의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여 사회발전의 새로운 그러나 더욱 복잡하고 다원적인 목표가 되었다.

사회구조와 과정들이 포괄적인 모델로 구축되고 정치에 의해 능동적으로 지침을 받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사상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적 분위기였다. 활동적인 사회와 적극적인 정책과 같은 개념은 영망진창의 정치를 새롭고 더 이성적인 정부모델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하였다. 그러한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문제들을 조기에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치의 성공과 충격을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필요 하였다.

1960년대 말엽 사회지표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강하였고, 던칸(Duncan, 1969)이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에 대해 저술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은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특히, 빈곤과 관련하여)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³⁾ 사회지표운동은 사회상태를 측정하고 사회에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양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삶의 질” 개념도 경제적 부의 획득보다 더 다양한 다면적인 사회목표로서 발전하였다. 사회상태에 관한 지표로서 사회측정에 대한 신념은 사회가 구성원의 상황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될 수 있다는 신념과 연계되었다. 말하자면,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할 때, 사회가 더 향상될 것이라는 믿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지표관련 활동은 학술적인 관심에 의해 추구되었다.

사회지표운동은 “경제지표”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경제지표가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나 안녕을 파악함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음이 인식되면서 경제지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지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경제지표가 갖고 있는 제한점으로는 (1) 심적인 만족, 행복감이나 삶의 충족도 등 주관적 측면을 나타낼 수 없으며, (2) 시장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사회의 안녕에 대한 기여와 반드시 연관되어 있

3) Duncan(1969)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회지표운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명명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관 및 정부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에 따른 사회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증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회지표운동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De Neufville J.I.(1975)의 Social Indicators and Political Policy의 제4장을 참고로 할 것.

는 것이 아니며, 3) 비시장적 활동(nonmarket activities)과 시장 활동이 일상생활에 갖는 영향력 등이 경제지표에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4) 경제지표에서는 분배라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고, (5) 인간행위를 지배하는 가치, 규범, 구조들을 포함하는 사회 체계와 경제간의 상호의존성을 측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Land, 1983).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지표에서는 "안녕(well-being)"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경제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초 사회지표운동은 사회지표 영역에서의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일환으로 사회지표협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Center for Coordination of Research on Social Indicators)가 워싱턴시에 설립되었으며, 주관적인 안녕 지표의 측정을 위한 방법을 정의하고 발전시키는 저서들이 발간되었다. 그림과 표 및 제한적인 분석들을 담은 종합적인 사회지표 책들이 연방정부 시리즈(US Department of Commerce 1974, 1978, 1980) 보고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전국 인구에 관한 정기적인 표본조사들에 의거하여 여러 시계열 자료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1974년에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Social Indicators Research"의 초판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지표 또는 사회 보고(social reporting)가 수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예를 들어, UN, OECD 등)에 확산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1970년대와 달리 사회지표 활동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자금문제로 사회지표협동연구소가 폐쇄되었으며, 관련 국제기구들의 활동 등도 중단되었다. 일부 국가들(미국 등)에서는 사회지표보고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었다. 사회 제 측면들을 감시하기 위한 통계적인 노력도 줄어들었다. 주된 원인들은 1980년대 초 정치문제와 국가경제상태에서 비롯되었다. 즉, 미국 등의 국가에서 강화된 행정권은 초기와 달리 현재의 사회자료 보다 보수적인 관념론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정부의 지원도 약화되었다. 간접적으로 공중정책형성에 대한 사회지표의 유용성에 대해 인식도가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동안 사회지표를 둘러싼 회동들이 증가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장소(place) 대한 강조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지표운동의 전성기 초기와 달리 지역사회들이 지역을 위한 의제들을 설정하고, 지역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개선을 위한 목적들을 설정하고, 이

들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들을 수립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즉, "신사회지표운동(new social indicators movement)"은 지역발전을 결정하는 도구로서 지표들을 이용하여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3절 사회지표의 국제적 동향

1. 전반적인 동향

사회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지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캠벨과 컨벌스(Campbell and Converse, 1972)가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개념에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 느낌(subjective feeling)의 의미를 추가하였다. 즉, 사회적 조건의 수준측정에 있어서 객관적 수준만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주관적 수준의 측정(subjective measuring)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배경 및 규범적 요인에 의해서 주관적인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관적 수준의 측정은 무시될 수 없는 측면이다(Andrews, 1981).

국제연합 사회개발연구소(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에서 제시한 "생활수준인덱스(The Level of Living Index)"는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축된 대표적 체계이다. 1975년 국제연합에서 발간한 인구, 가족 및 가구, 계층 및 이동 등 11영역을 포괄한 "사회·인구통계체계(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역시 객관적인 사회지표 체계를 따르고 있다.

객관적 사회지표의 장점으로는 첫째,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비가 들며, 둘째, 정부와 지방단위의 통계 상호간에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또한 지역간·부문간의 비교분석(Cross sectional analysis)이 비교적 용이하다. 셋째, 대체로 시계열 자료를 구함으로써 사회적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반면 객관적인 지표는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나 만족도를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OECD의 "사회지표"는 사회지표체계에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는 시도를 하였다. 주관적 지표에 관한 심층적·포괄적 연구는 자프(Zapf)가 행한 독일사회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이루어졌다(Zapf, 1987). 여기에서는 삶 전체와 16개 삶의 영역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의 만족도를 비교 평가하고 있다.

주관적 사회지표의 장점으로선 첫째,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자원이 국민자신의 생활에 진심으로 원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와 일치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둘째,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또한 경제적 성장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강동식, 1991). 그러나 주관적인 지표는 척도의 상이함과 지역간, 국가간 비교가 어렵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인 사회적 조건과 주관적 지표를 상호교차 시키려는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⁴⁾ 즉, 객관적 사회지표와 주관적 사회지표 각각의 나름대로의 장점을 결합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지표항목은 설정 및 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나라의 사회지표 속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객관적 사회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서로 배타적이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

-
- 4) 인켈스(Inkels, 1993)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고, 근대화라는 사회적 변화가 과연 삶의 질이라는 주관적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앤드류(Andrews, 1981)는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과 주관적 지표를 포괄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사회적 현상을 전반적인 수준, 관심수준, 개인수준, 집합수준 등 4개 수준과 지표성격(주관적,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주관적 지표에는 (1) 전반적인 수준(global-level)의 안녕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주관적 지표(예: 삶 전체에 대한 자기판단), (2) 관심수준(concern-level)의 안녕에 대한 전통적인 주관적 지표(예: 자신의 주거에 대한 자기평가), (3) 특정 개인에게 적용되는 객관적 현상에 대한 주관적 측정(예: 주거지가 큰지, 작은지, 중간수준인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 (4) 집단에 적용되는 객관적 현상에 대한 주관적 측정(예: 이웃의 밀집도에 대한 평가)이 포함되어 있다. 객관적 지표에는 (5) 전반적인 수준의 주관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표(예: 삶 전체에 대한 감정의 지표로서의 자살률), (6) 관심 수준의 주관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표(예: 개인의 이사여부가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7) 개인에 관한 전통적인 객관적 지표(예: 개인의 주거지의 면적), (8) 집단의 특성에 대한 전통적인 객관적 지표(예: 이웃의 주거밀집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월터-부쉬(walter-busch)는 스위스인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매우 밀접히 상호연관되어 있고, 각 지표가 갖고 있는 제한점(객관적 지표는 주관적 지표보다는 타당성이 떨어지며, 주관적 지표는 비결정성(inconclusiveness)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상호보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 개별 국가 및 국제기구 사례

가. 미국사례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미국에서 사회지표는 지역단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바다주 사회지표(Nevada County Economic & Social Indicator)의 예를 들어 보면, 사회지표는 기본 통계표와 간단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수화(composite index)는 되어 있지 않다. 네바다주 사회지표체계는 ① 인구지표(Demographics), ② 고용지표(Employment indicators), ③ 사업활력지표(Business vitality indicators), ④ 공공서비스수요(Public demand for services), ⑤ 재원(Financing sources)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삶의 질 지표(Quality of Life)”는 사회보고 중심으로 그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개별지표별로 통계수치, 그래프, 사진, 설명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지수화 되어 있지 않다. 주된 특징으로는 일반 주민(독자)을 위한 것으로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지표 측정방법, 지표의미, 지표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요성 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체계로는 1) 일반특성(General characteristics), 2) 인구, 위치, 기후, 노동력, 빈곤 등, 3) 교육 우수성 달성(Achieving education excellence), 4) 활기찬 경제 성장(Growing a vibrant economy), 5) 순고용성장, 실업, 가처분소득, 공공부조, 응급지원요구, 단독가구능력 등, 6) 자연환경보존(Preserving natural environment), 7) 사회복지 및 조화 증진(Promoting social wellbeing and harmony), 8) 예술, 문화, 레크리에이션(Enjoying arts, culture, and recreation), 9) 건강한 지역사회 유지(Sustaining a healthy community), 10) 영아 사망률, 산전보호, 출생아 체중, 건강보험 비수급자, 노인 관련시설, 폐암사망률, AIDS 등, 11) 민감 반응 정부 유지(Maintaining responsive government), 12) 선거, 시정부 서비스 만족도 등, 13) 교통(Moving around efficiently), 14) 지역사회 안전(Keeping the community safe), 15) 범죄, 청소년 범죄, 음주, 흡연 등이다.

나. 일본사례

일본의 사회생활통계지표(Social Indicators by Prefecture)는 사회생활통계지표, 기초자료, 기초자료의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생활통계지표에는 인구·세대, 자연환경,

경제기반, 행정기반, 교육, 노동, 문화·스포츠, 거주, 건강·의료, 복지·사회보장, 안전, 가계, 생활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1-1-1 참조). 사회생활통계지표는 도도부현별 분포 중심의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자료는 도도부현별 수치 중심의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1〉 일본의 사회생활통계지표 체계

영역	지표
인구·세대	인구분포, 인구성비, 학령별 구성비, 배우관계별 구성비, 인구동태, 세대·가족, 혼인·이혼
자연환경	면적, 기상
경제기반	현민경제계산, 사업소수, 종사자수, 산업별 생산액 등, 물가
행정기반	재정력,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 조세, 목적별 지출의 구성비, 성질별지출의 구성비, 주민1인당 목적별지출, 아동·학생1인당 교육비의 세출결산액
교육	교육시설, 공립학교의 시설, 교원, 학생, 단기대학·대학, 전수학교·각종학교, 교육보급도
노동	노동력상태, 취업상태, 취업기회, 취업이동, 공공취업능력개발, 취업조건
문화·스포츠	사회교육시설, 문화·오락시설, 스포츠시설, 사회교육학급·강좌, 행동, 서적·잡지, 기타
거주	주택수, 주택의 질, 주택관계비, 사회적편익, 생활편리시설, 통신, 교통, 시가지의 이용상황, 공원
건강·의료	이환률·유병률 등, 사망률·평균여명, 사인별사망자, 임산부·유아의 건강, 유아·학생의 체위, 의료시설, 의료시설종사자, 일반병원진료체제충실상황, 일반병원에서 접하는 공립의 비율, 의료시설의 지역분포, 일반병원진료상황, 정신병원 진료상황, 구급활동, 보건활동, 의약품영업시설
복지사회보장	사회보장대상자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정원수 및 종사자수, 복지활동,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노동재해
안전	소방시설, 소방활동, 화재,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교통위반, 방범, 범죄, 자연재해, 불의의사고, 공해, 보험
가계	2인이상의 세대(농림어가세대를 제외)의 수입·지출, 농가세대의 수입·지출, 세대의 자산
생활시간	행동별평균시간(주전체평균시간), 2차활동의 종류별평균시간, 3차활동의 종류별평균시간

일본에서 국민생활의 상황을 표시하는 지표체계는 1970년 이래 국민생활심의회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1974년부터 사회지표로서 또 1986년부터는 국민생활지표로서 공표되어 왔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사회정세와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종래의 지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표 작성의 필요성이 높아졌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제13차 국민생활심의회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1992년 5월에는 동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반영하여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에서 신국민생활지표(PLI: people's life indicators)를 작성하게 되었다.

신국민생활지표의 특성으로는 우선 생활수준 및 풍요로움·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생활통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다양한 정보를 개인의 생활감각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구체적인 형태로 수량화하였다. 셋째, 신국민생활지표는 사회전체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생활상의 여러 측면에 대한 평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다만, 사회전체의 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변화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국민생활지표는 국민생활의 다면적인 측면과 지역사회의 생활수준과 특징을 파악하는 등 지역사회와 국민의 생활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제공되고 있다. 신국민생활지표는 매년 개별지표와 지역별 지표 체계의 갱신을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시산단계에 있다. 국민의 측면에서 생활의 현상이 피부에 와 닿는 지표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신국민생활지표의 지표체계는 8개 활동영역과 4개의 생활평가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1-2 참조).

〈표 1-1-2〉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 체계

활동영역	생활평가
① 주거: 주거, 주거 환경, 근린 사회의 치안 등의 상황 ② 소비지출: 수입, 지출, 자산, 소비생활 등의 상황 ③ 근로: 임금, 노동시간, 취업 기회, 노동 환경 등의 상황 ④ 양육: (자신의 자녀를 위한) 육아·교육 지출, 교육시설, 진학률 등의 상황 ⑤ 보건의료: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 등의 상황 ⑥ 여가: 휴가, 여가시설, 여가 지출 등의 상황 ⑦ 교육: (성인을 위한) 대학, 생애학습 시설, 문화적 시설, 학습 시간 등의 상황 ⑧ 교제·관계: 혼인, 지역교류, 사회적 활동 등의 상황	① 안전·안심: 개인의 욕구로서 보다 기본적인 축 ② 공정: 격차의 많고 적음과 사회의 편이도를 표시하는 축 ③ 자유: 개인의 생활면에서의 선택을 표시하는 축 ④ 쾌적: 보다 좋은 생활이 가능한 가를 표시하는 축

신국민생활지표에서는 주로 개인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둘러싼 사회전체의 구조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변화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한 구조변화지표의 영역은 고령화, 국제화, 집중화, 정보·서비스화, 그린화 등 5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지표의 계산방식으로 개별지표의 표준화 작업은 시계열 자료 중에서 1990년을 기준(100)으로 하여 증가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지역별 표준화 작업은 전국 평균을 50으로 하는 편차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종합지표는 표준화된 개별지표치를 활동영역 및 생활평가축별로 종합화 하여 산출하고 있다. 가중치는 국민생활선호도 조사에서 파악된 니드(need) 득점을 활용하고 있다.

신국민생활지표는 시계열별로 국민생활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계속 신장되고 있는 영역은 소비지출, 보건의료, 여가, 학습 영역이고, 저하하고 있는 영역은 양육, 관계·교류 영역”이라는 것으로 설명된다. 구체적으로 “학습 영역은 도서관수, 사회교육 관계 직원수 등의 신장이 계속되고 있고, 대학원 진학률 등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커다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관계·교류영역이 저하하는 이유는 만혼화 등에 따라 혼인율이 저하되고 있고, 고령화사회에서 교류장소로 인식되어 지는 노인

클럽의 가입률이 저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각 영역별로 종합적인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년대비 몇 % 증가 혹은 감소로 표시가 가능하다. 지역별 국민생활 동향도 “소비지출영역은 A지역은 높고 B지역은 낮다.” “특히 A지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고, B지역은 외식지출 비율이 높으며, C지역은 내구소비재 지출비율이 높다” 등이다. 아울러 개별 지역별로 8개의 생활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표현이 가능하다.

다. 영국 및 캐나다 사례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지표로 “사회동향(Social trend)”은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 의해 매년 발간되고 있다. 사회지표들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표 및 도표로도 제시되고 있다. 그 체계는 <표 1-1-3>에 제시하였다.

<표 1-1-3> 영국의 사회동향 지표체계

구분	지표내용
특별계재	인구고령화 및 성(Ageing and Gender: Diversity and Change)
일반체계	① 인구(Population) ② 가구 및 가족(Household and Families) ③ 교육(Education) ④ 노동시장(Labour market) ⑤ 수입 및 부(Income and wealth) ⑥ 지출(Expenditure) ⑦ 보건(Health) ⑧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⑨ 범죄 및 정의(Crime and justice) ⑩ 주택(Housing) ⑪ 환경(Environment) ⑫ 교통(Transport) ⑬ 생활양식 및 사회참여(Lifestyles and social participation)

캐나다의 사회결합도 지표(Social Cohesion in Canada)는 사회보고 중심의 특징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사회응집력(결합도)과 관련된 지표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지표는 사회적 결합을 나타내는 활동과 관행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1-1-4 참조). 설명은 그래프가 중심이 되어 있으며, 일부에 한해 통계표가 제시되고 있다.

〈표 1-1-4〉 캐나다 사회결합도 지표 체계

구분	내용
○ 사회 결합관련 지표	
사회적 결합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조건	소득분배, 수입 다양화, 빈곤, 고용, 이동
생활기회(life chances)	보건, 교육, 주거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개인적 및 가족보장, 경제적 보장, 가족상태(부모 혼인상태, 아동발달에 관한 가족기능점수, 아동과 부모간 질적 및 양적 상호작용, 아동에 관한 부모의 관심, 성인자녀와 동거 가족 등) - 시간활용: 일, 여가, 통근학 시간, TV 등 시청시간, time-stress 등 - 환경: 자연환경 질
○ 사회 결합 활동 요소	
협동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신뢰도, 제도에 관한 신뢰도 - 다양한 존중(이민자 관련 태도) - 상호성 이해(공공제도에 관한 지지, 시민 책임감 등)
소속	지역사회 소속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소비/사회지지망: 사회지지지수(index), 종교 활동 또는 회의 참가, 사회참여지수, 가족 및 친구 접촉회수, 가족 및 친구 직접적 지지행동 - 사회망/ 단체참여: 자원봉사(시간, 참여율 등), 단체활동, 박애활동 - 정치 참여: 투표율
교육수준	

캐나다의 또 다른 사회지표로 개인보장지수(Personal Security Index)가 있다. 이 지표는 종합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사회개발위원회(CCSD) 표본조사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지표는 사회보고를 위해 개인의 안전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지표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장은 경제적 보장(Economic Security), 건강보장(Health Security), 신체적 보장(Physical security)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결론적으로 개인사회보장지수의 객관적 지수(PSI Data Index)와 주관적 지수(PSI perception Index)를 제시하고 있다. 주관적 지수는 사회개발위원회에서 표본조사로서 수집한 만족도 등 의식조사 결과만을 이용하여 지수를 산정한 것이다. 반면, 객관적 지수는 통계지표만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지수를 산정한 것이다. 이들 각각의 지수는 영역별로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작성되고 있다. 구체적인 체계는 <표 1-1-5>에 제시되었다.

<표 1-1-5> 캐나다 개인보장지수 체계

영역	지표 내용
경제적 보장 (economic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상태: 일, 임금, 빈곤 및 불평 - 소득 수준 및 적정성: 가처분소득 수준, 소득 적절성에 대한 의식, 빈곤 정도 - 고용보장: 실업률, 직업상실에 대한 우려도, 구직활동 능력에 대한 신뢰감 - 사회안전망: 소득지원프로그램 적정성,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비공식지원에 대한 의존도 - 재정적 민감도
건강 보장 (health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상태: 사망률, 스트레스 생활 등 - 보건지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정부 프로그램 신뢰도, 작업 안전성, 도로 안전
신체적 보장 (physical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율, 폭력에 대한 우려, 재산범죄율 및 우려

라. 국제기구

“유럽연합 사회현황”(the social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은 EU(European Commission)에 의해서 발행되는 사회지표이다. 이는 3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부문1에서

는 사회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부문2에서는 특별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이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 부문3에서는 매년 사회정책과 관련된 지표를 22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조정되는 22개 고정지표들은 경제상황, 인구와 가구 및 가족, 인구고령화, 이동과 피난, 교육 및 성과, 평생교육, 고용, 고령자 고용, 실업, 청년실업, 장기실업, 사회보장지출 및 수령, 사회급여, 노동시장정책지출, 소득분배, 저소득가구, 무직가구 및 저임금, 남녀 의사결정, 남녀고용, 남녀수입,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사고 및 노동관련 건강문제 등을 포함한다. 이들 고정지표는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슈별 주요 지표를 수치 및 그래프를 이용하여 국가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연합인구기금(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사회지표로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표들이 고정지표와 특별주제로 구분 수록되어 있으며, 해설이나, 그림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보고서는 인간개발과 관련된 주제를 해마다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기술하되, 계층별, 지역별, 성별로 수록하고 있다. 고정지표로는 인간개발감시(monitoring human development),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지식습득, 일정 생활수준을 위한 자원에의 접근, 미래세대를 위한 보존, 개인보장보호, 양성간의 평등, 회원국의 주요 지표들을 포함한다. 연도별 주요 주제의 예로 2000년에 인권과 인간개발, 2001년에 인간개발을 위한 신기술, 2002년에 민주화 및 2003년에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고 있다.

제2장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방향

제1절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우리나라 사회지표체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7년 보건사회부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에서 사회개발부문을 확충시키고자 사회개발장기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사회지표모형에 따라 사회지표를 작성하였다.⁶⁾ 보건사회부의 노력은 그 후 중단되었으나,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지표의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 사회지표체계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통계청 전신)이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의 지원을 받아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한 사회지표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의 사회지표는 1972년 UN에서 작성한 사회통계 체계화에 대한 권고안을 따르고 있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동안 사회개발계획부문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한국개발연구원은 1975년 말부터 2년간 “인구통계개선: 발전계획 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의 연구를 통해 사회지표체계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1978년 “사회지표시안(8개 부문 350개 지표)”이 마련되고, 이에 의거하여 1979년부터 “한국의 사회지표”가 매년 경제기획원에서 공표되었다. 8개 부문에는 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공안이 포함되었다.

6) 당시 사회지표는 UN의 생활수준지표(1966) 모형에 근간을 두고, 인구,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지역사회개발, 기구집행들의 영역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개발영역에는 새마을사업과 사회정화에 관한 영역이 추가되어, 당시의 사회적 현실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사회지표는 “사회발전-제1호: 기본구상(1968)”, “사회개발장기계획:제2호(1970)”, “사회개발장기계획:제3호(1973)”, “사회개발: 부문별 사업전망(1974)” 등으로 발간되었다.

〈표 1-2-1〉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의 변화

구분	부문(영역)	지표
사회지표시안(1978년)	8개 부문: 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공안	350개
1979년		128개
1980년		151개
1987년		224개
제1차 사회지표체계 개편 (1987년)	9개 부문: 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공안, 문화·여가	473개
1988년		243개
1994년		291개
제2차 사회지표체계 개편 (1995년)	13개 부문: 인구,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환경, 정보와 통신,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553개
1996년		401개
2003년		492개

이후 사회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지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1987년에는 기존의 사회지표체계를 8개 부문에서 9개 부문으로 확대(문화·여가부문 추가, 총 473개 지표) 개선하였다(제1차 사회지표체계개편). 현실에 대한 국민의 의식 내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를 사회지표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977년 이래 사회 통계조사(Social Statistics Survey)가 매년 실시되어 왔다. 이 조사에서는 매년 2~3개 부문에 대해 국민의 주관적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어서 1995년에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에 따라, 통계청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존의 사회지표체계를 개선하였다. 제2차 사회지표체계개편의 결과, 1차 개편에서의 9개 부문(473개 지표)에서 13개 부문(553개 지표)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행 한국의 사회지표는 1996년 401개 지표에서 2003년 492개 지표로 확대되었다. 13개 부문은 인구,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환경, 정보와 통신,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사회지표체계의 변화는 <표 1-2-1>에 정리하였다.

지표들은 정부 부처들이 생산하고 있는 기본통계인 지정통계, 일반통계 및 통계연보 등과 민간단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소수의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 대부분은 실수, 구성비, 비(비), 비율 등으로 계량화되어 있으며, 일부 지수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제2절 사회지표체계개편의 기본방향

1978년에 성안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는 1987년에 일차 개편에 이어 1995년 2차 개편한 바 있으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활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지표체계는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개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국민의 관심도에 부응하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사회지표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경제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사회 구조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국민 개인의 관심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지난날의 물질적이고 양적 증가 위주에서 이제는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생활, 가정생활, 정신문화, 교통·통신, 환경, 사회적 안전, 정보화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사회적 관심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다양한 관심의 변화를 반영하고, 삶의 질적 측면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지표체계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사회지표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구, 시, 군 단위에서 지역별 사회지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서울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지역사회지표가 생산되고 있으나 지표수의 규모, 작성방법 등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지표 체계개편을 통해 지역사회지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표준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개방화와 정보화,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한 지표체계 등을 개발하기 위해 사회지표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급속한 국제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20세기말과 21세기 초에 발생한 OECD 가입(1996년), 고령화사회로의

진입(2000년), 저출산시대 도래, 한국-칠레 FTA 비준(2004년) 등 자유무역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지표체계가 요구되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C의 대중화, CATV(케이블 TV)와 같은 정보매체의 다양화와 고속정보망의 구축으로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회의 및 진료 등 국민의 생활양식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변동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등 정보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NT, BT, ET, IT 등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 사회 지표체계의 개편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필요성이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 제3차가 되는 현 사회지표체계개편의 기본목적 내지 방향은 고령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목적으로는 국민의 관심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지표체계의 부문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표의 이론적 기반을 확고히 하며 각종 특정 분야별 지표체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별 사회지표의 준거가 될 수 있는 표준적인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화 정책추진에 유용하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회지표체계의 개편내용으로는 첫째, 부문 및 관심영역의 개편과 함께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개편은 필요한 부문의 설정과 부문간의 조정 및 관심영역의 재조정을 통하여 관심영역별로 지표를 재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각종 지표는 시의성, 활용성, 국민의 관심도, 자료수집 가능성, 시계열 유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삭제 및 보완된다. 새로운 지표체계에 포함되는 개별지표들은 정의와 산식이 지닌 통계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된다.

둘째, 사회지표체계의 개편작업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이면서 기존부문들과 관련이 깊은 지역별 차이(집중도), 여성의 역할, 노인과 장애인 및 아동 복지, 정보화, 개방화 등에 관한 지표를 최대한 개발하여 부문별 지표의 포괄범위를 다양하게 한다.

셋째, 이번 사회지표체계 개편작업에서 유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항은 주관적 지표

의 검토 및 조정이다. 현재의 사회지표체계에 설정되어 있는 지표 중에서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 심리적 평가를 파악하는 주관적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작성방법을 조정·보완하여 지표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추가되는 주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과 자료수집 가능성을 검토하여 확정하도록 한다.

넷째, 개편작업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작성하고 있는 분야별 지표체계와 한국의 사회지표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지표체계를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와 비교·분석하여, 중요하고 포괄성이 있는 개별지표는 사회지표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독자적인 사회지표의 개발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목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지표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표의 정의, 작성기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사회지표체계의 개발과 작성에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가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여섯째, 고령화와 개방화 및 정보화 관련지표들을 보완하도록 한다. 저출산, 고령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현상과 앞으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표를 정비하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현상의 변화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압축된 종합지수를 생산하도록 한다. 종합지수는 전체뿐만 아니라 부문별로 작성, 제시하도록 한다.

현재의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 형태와 같이 지표중심으로 제시하는 형태는 분야별로 다양한 지표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연보나 통계청의 다른 보고서와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보고서에서 종합지수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종합지수는 각 분야의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지표를 원하는 기존의 이용자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결국, 사회지표 보고서는 현 체제에 종합지수를 추가하는 일종의 혼합형태를 취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분야별로 다양한 지표와 종합지표를 동시에 제시하여, 사회의 변화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제3절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사회지표체계개편 연구반 운영, 국내·외 문헌 고찰, 자문위원회 운영, 정책협의회 개최 등이다. 우선 사회지표체계개편 연구반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는 부문별로 실시되며, 각 부문별 연구팀은 2-3명의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사회지표체계개편을 위한 전담 연구반을 상설기구로 운영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한다.

관련 분야의 권위자 5-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연구의 기본방향 설정, 부문간 업무내용의 조정, 중간 및 최종 연구결과의 검토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연구반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회지표의 체계 또는 개선방안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지표의 개념, 정의 및 기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또한, 사회지표의 개발동향, 내용 및 구성체계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한다. 각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사회지표의 작성현황 및 작성체계를 파악하는 한편, 통계청에서 매년 생산되고 있는 각종 조사통계 및 가공통계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서 작성되고 있는 통계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한다. 정부와 각종 단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표 현황 및 작성 체계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수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는 각계 전문가, 연구진, 해당 정부부처 실무진간에 현안문제에 관한 의견교환과 연구결과의 정책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3장 사회지표체계의 개편내용

제1절 신사회지표체계의 개편개요

기존의 사회지표체계와 국제기관 및 외국의 지표체계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를 개편하였다. 개편안으로 제시한 사회지표체계를 부문별로 요약하면 <표 1-3-1>과 같다. 58개의 관심영역에 161개의 세부관심영역 그리고 636개의(총 640개에서 부문별로 중복제시된 4개를 뺀 것임)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지표체계 개편안의 구체적인 개별지표는 제4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각 개별지표의 정의 및 산식, 자료원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개편안의 체계만을 <표 1-3-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신사회지표체계의 특징

1. 이론적이고 균형적인 지표체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은 사회의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영역과 개별지표 선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선정과정은 우선 부문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현재 13개 부문으로 이루어진 부문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였다.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은 없는지, 혹은 통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각 부문에서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관심영역을 선정하였고 이들 관심영역에서 보다 세분화된 세부관심영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세부관심영역별로 개별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감안하여 분야별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표 1-3-1〉 기존지표체계와 신지표체계 비교

구지표체계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 인구	6	14	44 (5)
2. 가족	5	16	43 (13)
3. 소득과 소비	5	12	41 (4)
4. 노동	5	13	62 (5)
5. 교육	3	7	43 (10)
6. 보건	7	21	50 (4)
7. 주거와 교통	4	10	51 (7)
8. 정보와 통신	5	8	28 (3)
9. 환경	4	7	31 (2)
10. 복지	4	11	43 (5)
11. 문화와 여가	3	8	34 (8)
12. 안전	5	14	55 (13)
13. 정부와 사회참여	3	9	28 (12)
합 계	59	150	553(91)

신지표체계 부문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	신규지표	장래개발 지표	생산가능한 개별지표
1. 인구	6	16	48 (5)	10	5	43
2. 가구와 가족	6	17	50 (15)	34	13	37
3. 소득과 소비	5	12	51 (4)	9	1	50
4. 노동	5	10	35 (4)	4	1	34
5. 교육	3	7	44 (9)	13	1	43
6. 보건	6	23	67 (2)	24	6	61
7. 주거와 교통	4	8	57 (10)	18	8	49
8. 정보와 통신	3	12	28 (5)	21	0	28
9. 환경	3	6	47 (6)	24	2	45
10. 복지	4	11	70 (13)	30	1	69
11. 문화와 여가	5	16	44 (8)	19	7	37
12. 안전	5	14	66 (14)	18	11	55
13. 정부와 사회참여	3	9	33 (14)	9	7	26
합 계	58	161	640(109)	233	63	577

주: ()는 주관적 지표, 총 개별지표 640개중 4개는 중복되어 제시되었음.

〈표 1-3-2〉 2004년도 개편안에 의한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인구	총인구	인구추세
		연평균인구성장률
		장래인구
	인구구성	성 및 연령별 인구(장래인구 포함)
		혼인상태별 인구
	인구분포	인구밀도
		지역별 인구
		도시인구
	출생	출생아수 및 출산율
		인공임신중절
		자녀관
		특성별 출산율
	사망	사망자수 및 사망률
	인구이동	기대여명
		국내이동
		국제이동
		주간인구
가구와 가족	가구구성	가구형태
		가구주 구성
	가족구성	가족형태
		다양한 가족
	가족형성	혼인
		이혼
		재혼
		자녀출산과 입양
	탈가족화	탈가족 생활 추세
		청년가구
		노인가구
	노인생활	가구생활
		생계지원
		노후에 대한 태도
	가족규범	가족제도에 대한 관념
		혼인관련 태도
		대안적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소득과 소비	소득수준	소득
		소득원천
	소비수준	지역내 총생산
		소비규모
		소비지출
	저축 및 투자	저축 및 투자수준
		저축생활
	소득분배 및 조세부담	분배구조
		분배상태
		조세부담
	경제적 생활의 안정	소득의 안정
		물가
노동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취업자의 구성
	근로조건	근로조건
		노동이동
		훈련 및 기술자격
	안전	고용보험
		산업안전
		노동생산성
교육	노사관계	노사관계
		취업관련 주관적 의식
	교육기회	국민의 교육수준
		교육참여
		교육자원
	교육효과	인적자원
		물적자원
		교육재정
보건	건강상태 및 행태	교육의 성과
		교육의 만족도
		생존년수
		성장발육
		정신건강
		구강보건
		주관적 건강평가
	사망 질병 장애	영양
		보건의식행태
		사망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보건		전염성질환
		비전염성질환
		사고 및 장애
	보건의료이용	예방
		외래
		입원
		응급의료
		의약품소비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비용 및 재정	보건의료비용
		보건의료재정
	보건의료기술	장기이식
		의료보장구장치
		의료장비
주거와 교통	주택	주택수급
		주택의 질
	주거	주거상황
		주거의 질
	교통시설	시설투자
		시설이용
	교통의 질	교통편의
		교통관련 비용
정보와 통신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활동
	정보화기반	PC보급
		통신서비스이용
		방송서비스이용
		인터넷보급 및 이용
	정보화	전자상거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현황
		인터넷뱅킹
		통신비 지출
		정보입수경로
		정보화실태와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정보화 역기능
환경	환경압력	환경오염물질배출
		자연자원의 이용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환경상태	환경의 질 생활환경
	환경관리	환경관리지출 환경관리노력
	복지증진	자원
	사회보험	의료보장 공적연금
복지	공공부조	자원 기초생활보장 긴급구호
	사회복지서비스	자원 노인복지 모부자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문화유산	문화재
	문화예술	문화시설 예술행사 예술관람 문화예술교육
문화와 여가	문화산업	도서 출판 신문 텔레비전 음반 비디오 게임 문화예술과 인터넷
	사회문화활동	사회문화활동 여가활용 및 조건 시간배분 관광여행 체육활동
	문화의식	문화의식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사회의 안전도
안전	범죄부하량	보고된 범죄발생 보고된 범죄자 청소년범죄 및 비행 탈선 범죄피해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범죄방지를 위한 인력배분과 재정지출
		검찰 경찰에 대한 신뢰도
		교도능력
	교통사고, 화재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화재의 발생과 예방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법집행의 공정성
		피의자 보호 및 변호
정부와 사회참여	정치참여	정치참여
		여성의 정치참여
		통일 및 미래에 대한 태도
	사회참여	사회참여 I (국내참여)
		사회참여II (국외참여)
		사회적 이동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정부	행정
		재정

기존 지표 체계는 <표 1-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번 지표체계도 13개 부문으로 동일한 분야로 결정되었다. 이는 각 부문의 검토과정에서 통합하여 각 부문의 수를 줄일 것인지 혹은 보다 세분화하여 각 부문의 수를 확대할 것인지가 검토되었으나 무리한 통합이나 분리보다는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시계열을 유지하기에도 좋다는 결론을 얻어 동일한 체계로 결정되었다.

한편 각 부문별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을 조정·보완하였다. 관심영역은 총 59개에서 58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세부관심영역은 150개에서 161개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별지표수는 총 636개(총 640개에서 부문별로 중복제시된 4개를 뺀 것임)로 기존안의 526개에 비하여 약 20.9% 증가하였다. 총 636개의 개별지표 중 신규지표는 233개로 36.6%에 달하고 있다. 이는 기존체계에서 더 이상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을 삭제하

는 대신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 설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지표를 대폭 첨가하였다.

〈표 1-3-3〉 기존지표체계와 신지표체계의 부문 비교

1978년 체계	1987년 체계 (1차개편)	1995년 체계 (2차개편)	개편 체계 (3차개편)
<8개부문>	<9개부문>	<13개 부문>	<13개 부문>
1. 인구	1. 인구	1. 인구 2. 가족(신설)	1. 인구 2. 가구와 가족(변경)
2. 소득·소비	2. 소득·소비	3. 소득과 소비	3. 소득과 소비
3. 고용·노사	3. 고용·노사	4. 노동	4. 노동
4. 교육	4. 교육	5. 교육	5. 교육
5. 보건	5. 보건	6. 보건	6. 보건
6. 주택·환경	6. 주택·환경	7. 주거와 교통 8. 정보와 통신(신설) 9. 환경(분리)	7. 주거와 교통 8. 정보와 통신 9. 환경
7. 사회	7. 사회	10. 복지 (신설)	10. 복지
	8. 문화·여가(신설)	11. 문화와 여가	11. 문화와 여가
8. 공안	9. 공안	12. 안전	12. 안전
		13. 정부와 사회참여 (신설)	13. 정부와 사회참여

아울러 각 부문별로 세부관심영역과 개별지표를 재구성하거나 또는 신규로 추가하여 개별지표의 연관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때 부문간 지표개발에 차이를 감안하여 가능한 필요지표를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사회지표에 우선적으로 실어야 할 지표로서 권장지표를 각 부문별로 30개 전후에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체계는 부문간 지표수의 비중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권장지표 중심으로 비교하면 대체로 균형적으로 되었다. <표 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지표체계에 있어도 부문별 개별지표수에 있어서 『노동』부문의 개별지표수가 62개, 안전 55개 등 타 부문에 비해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각 부문의 필요 지표개발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개별지표 선정과 통계적 정의, 산식, 자료원 등 용어해설의 보완

사회지표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 상황이나 미래에 사회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가를 시의성, 활용성, 자료수집 가능성 그리고 시계열 유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삭제, 보완하였으며, 각 지표별로 정의, 산식, 자료원 등 용어해설을 검토·보완하였다.

사회지표는 우리의 현재 사회의 삶의 수준을 가장 반영해 주는 지표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나아졌는지 혹은 퇴보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개별지표를 시계열적으로 유지하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수준에서 의미가 있어야 하며, 삶의 질의 시계열적인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별지표와 지표체계가 상당히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별지표의 정의, 산식, 자료원 등 용어해설을 보완하고, 시산표를 제시 수록함으로서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시 업무담당자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의 계수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3. 주관적 지표의 대폭적인 확대

사회지표에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된다. 사회지표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객관적 지표는 주어진 수치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반면 주관적 지표는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배경 및 규범적 요인에 의해서 판단이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관적 지표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주관적인 지표항목은 설정 및 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나라의 사회지표 속에 주관적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객관적 사회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사회지표와 주관적 사회지표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지표체계에서는 가치관, 만족도, 의식 등 주관적·심리적인 지표

를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개발된 주관적 지표는 총 107개(109개중 2개 중복)로, 총개별지표의 약 17%에 이른다.

4. 특정집단별(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 지표체계를 별도로 제시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의 현재의 사회현상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척도들을 국민의 관심사항에 따라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과 같은 대상 특성별 집단에 대한 삶의 측정하기 위하여는 이들과 연관된 별도의 지표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가 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 부문에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집단에 관심이 많은 경우 각 부문별로 해당되는 지표를 하나하나 찾아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집단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정리하여 별도의 지표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각 집단의 문제와 상태를 나타내는 사회지표를 사회지표체계 내에서 용이하게 파악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욕구를 보다 용이하게 충족 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자료로의 활용이 용이하고,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도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한편 각 집단의 삶의 질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제비교 지표의 확충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국제적인 비교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특히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의 정확한 수준 파악 못지않게 외국의 수준 파악을 통한 대처도 중요하다.

이제 세계는 각 국의 독자적인 영역보다는 상호 개방적인 추세로 나가고 있어 국내에만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서 국제지표의 선정은 중요성과 비교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가능한 이 두 가

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국제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각 종 정보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북한의 관련 지표도 여기에 포함하여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지역사회지표의 표준체계로서의 기능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사회지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사회지표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수행 그리고 수행사업에 대한 평가목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필요지표의 무분별한 개발은 다른 지역에서의 지표의 정의, 생산방법, 기준 등이 상이하여 오히려 비교지표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지표체계의 개발과 작성에 『한국의 사회지표』의 체계가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그 지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타지역과의 비교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표준화에 입각한 지표의 생산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정의와 산출공식이 표준화되어야 하고 자료 수집에 있어서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상호 비교 가능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부문별 개편방향과 개편내용

1. 『인구』 부문

우리나라의 인구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새로운 측면에서의 변화는 더하여 갈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회변화, 특히 인구현상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국민생활에는 물론 사회정책에 바르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인구부문의 지표체계를 개편하였다.

1977년의 최초 사회지표(인구부문)체계의 개별지표로부터 쌓아온 시계열을 최대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별지표의 나열식을 지양하고 지표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영역간의 자료이용성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재분류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부문(예, 가족, 보건)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이용상의 혼선을 피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인구부문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별지표(예, 연령별 기대여명)를 인구부문에도 포함하여 동일 부문 내에서 인구현상의 변화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인구현상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이나 특수 분야별 지표체계의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지표별 집계항목의 분류를 다양화하였다.

요약하면, 신체계에서도 관심영역을 「총인구」, 「인구구성」, 「인구분포」,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세부관심영역은 1995년 체계의 14개 영역에서 인구밀도, 특성별출산율, 주간인구를 추가하여 17개 영역으로 하였다. 개별지표수는 기존 44개에서 48개로 증대되었다. 그중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10개이며, 주관적 지표는 5개이다.

2. 『가구와 가족』 부문

1990년 이후 급증하는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기존의 부문 명칭인 “가족”을 “가구와 가족”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가족을 단위로 한 고찰에 개인을 단위로 한 고찰을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이행과, 정상가족 중심의 사고에서 가족의 다양성과 탈가족화의 개념을 수용하는 사고로의 전이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심영역에서 기존의 가족구성을 “가구구성”과 “가족구성”으로 분리시켜 “가구구성”을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각각의 관심영역의 세부관심영역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가구구성의 하위 영역을 “가구형태”와 “가구주 구성”으로, 그리고 가족구성의 하위 영역을 “가족형태와 “다양한 가족”으로 구성하였다.

관심영역 “가족형성”은 가족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 영역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절하였다. 세부관심영역에 “혼인”은 그대로 두고 “가족의 해체”는 보다 명확한 용어인 동시에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이혼”으로 바꾸고, 여기에 1990년 이후 가족형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상의 하나인 “재혼”을 새로 설정하였다. 다음 “자녀출산”은 부모-자식관계 형성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도입하여 “자녀출산과 입양”으로 바꾸었다.

가족의 형성과 탈가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족은 보편적 제도로 인식되었고, 모든 사람은 가족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적 관념에 도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그러나 그 도전은 매우 거세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여기서는 “탈가족화”를 독자적인 관심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세부관심영역은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난 소위 “대안적 가족”으로 일컬어지는 공동체 가족을 포함하는 비친족 동거가구, 비혼동거가족 등을 포함하여 탈가족화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탈가족화의 추세”와 현재 한국 사회 탈가족화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청년”들과 “노인”들의 탈가족생활의 3개로 구성하였다.

기존 가족부문 지표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이 “가족생활”과 “가족문제”이었다. 그것은 원래 이들 항목의 설정취지를 무시하고 이들의 세부관심영역을 대폭 축소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체계에 따르면, 이 두 영역은 “노인가구”와 소위 “취약가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외의 가족생활 지표인 “중요한 생활관심사”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그리고 가족문제의 지표 가운데 노인의 가족생활 관련 항목 이외의 것은 관심영역 “가족구성”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생활”과 “가족문제”는 실제 내용에 맞게 “노인생활”로 통합하였다. 특히 현재 사회지표체계에 고령화에 관한 관심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적어도 가구 및 가족생활과 관련해 “노인생활”에 대한 내용을 독자적인 관심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 하위영역으로는 기존의 노인 관련 항목들은 묶어 노인들의 “가구생활”, “생활지원” 및 “노후에 대한 태도”로 설정하였다.

관심영역 “가족규범”의 경우 세부관심영역을 조정하였다. 우선 기존 하위 영역에서 “가정생활 선호”는 전혀 규범적 내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역은 삭제하였다. 한편 “가계의 중요성”과 “여성의 역할”은 부적절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이 둘은 가족제도에 대한 관념으로 통합하였다. 한편 현재 가족문제에 대한 논의는 흔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 또는 서구에서 등장하여 전파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적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변화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는 “대안적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할 때, 관심영역 “가족규범”의 세

부관심영역으로는 “가족제도관련 관념”, “혼인관련 태도”, “대안적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를 두었다.

지표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기존 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이 「가족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가족문제」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신체계에서는 「가구구성」, 「가족구성」, 「가족형성」, 「탈가족화」, 「노인생활」, 「가족규범」 등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관심영역은 1995년 체계의 16개 영역에서 「가구형태」, 「가구주 구성」, 「가족형태」, 「다양한 가족」, 「혼인」, 「이혼」, 「재혼」, 「자녀출산과 입양」, 「탈가족 생활 추세」, 「청년가구」, 「노인가구」, 「가구생활」, 「생계지원」, 「노후에 대한 태도」, 「가족제도에 대한 관념」, 「혼인관련 태도」, 「대안적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 등 17개 영역으로 하였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43개에서 50개로 증대되었다. 그중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34개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으며, 주관적 지표는 15개이다.

3. 『소득과 소비』 부문

소득·소비부문에 대한 신지표체계의 방향은 1995년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크게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표체계를 소득-소비-저축-조세·재정-분배라는 거시 경제학에서의 국민계정 체계에 의거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둘째, 지방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한다. 셋째, 재산은 그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성 때문에, 현재는 조사나 자료획득이 용이하지는 않더라도 장래개발지표로서 개발하도록 한다. 넷째, 조세부담 부분을 보강하여 다른 부분과의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성장을 둔화와 관련하여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저축영역에 투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한다.

2004년의 개편에서는 1995년에 개편된 지표체계를 유지하면서 내용설명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발달에 의한 경제성장의 결과가 국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과 소비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하위 관심영역별 개별지표의 선정은 이들 관심영역의 결과로서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에 개편된 지표체계에 따라 소득수준, 소비수준, 저축 및 투자, 소득분배 및 조세부담 그리고 경제적 생활의 안정과 같이 5개 관심영역을 설정하였다. 세부관심영역은 소득, 소득의 원천, 지역

내총생산, 소비규모, 소비지출, 저축 및 투자 수준, 저축생활, 분배구조, 분배상태, 조세부담, 소득의 안정, 소비의 안정 등과 같이 12개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소득-소비-조세·재정-분배라는 거시경제의 틀에 따라 관심영역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저축영역에서 투자를 포함하도록 관심영역을 확대하였으며, 그에 맞추어 세부영역 또한 확대하였다. 1995년 개편에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가하였던 소득영역의 「지역내총생산」 세부 관심영역을 이번 개편에서도 유지하였다. 그리고 소득분배영역의 「조세부담」 세부 관심영역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전체적으로는 5개의 관심영역과 12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지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표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관심영역은 5개 영역으로 기존체제와 신체제에 변화가 없으며, 세부관심영역은 1995년 체제의 12개 영역과 같으나 「물가」가 「소비의 안정」으로 변경되었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41개에서 51개로 증대되었다. 그중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9개이며, 주관적 지표는 4개이다.

4. 『노동』 부문

첫째, 성인지적 지표체계의 구축이다. 기존의 지표체계는 대체로 성을 구분하지 않은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성차별 이슈와 관련된 지표를 따로 묶어 제시하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상과 변화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지표체계인 「한국의 사회지표」는 대부분의 통계수치 제시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성인지적인 지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주변인으로 남아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통계수치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통합(inclusion)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빈곤대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노동시장의 배제(exclusion)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집단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통계수치를 작성하는 대상집단을 세분화하고 지표체계의 성별성을 강화하는 경우 제시되는 통계의 전체적인 분량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시계열을

축소하고 몇 가지 지표는 통합해서 제시하는 방식을 통하여 일정부분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신지표체계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취업자의 구성, 근로조건, 노동이동, 훈련 및 기술자격, 고용보험, 산업안전, 노동생산성, 노사관계, 취업관련 주관적 의식 등 10개의 영역으로 하였다.

지표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기존 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이 「고용」, 「근로조건」, 「안전」, 「차별대우」, 「노사관계」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신체계에서는 「차별대우」가 제외되고 「취업관련 주관적 의식」이 추가되었다. 세부관심영역은 1995년 체계의 13개 영역에서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취업자의 구성」, 「근로조건」, 「노동이동」, 「훈련 및 기술자격」, 「고용보험」, 「산업안전」, 「노동생산성」, 「노사관계」, 「취업관련 주관적 의식」 등 10개 영역으로 감소하였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62개에서 35개로 감소하였다. 그중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4개였으며, 주관적 지표는 4개이다.

5. 『교육』 부문

신 지표체계는 국내·외 연구동향을 기초로 그 동안의 지표체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교육을 대표하는 지표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세계 주요국들의 사회 지표 중에서 교육 부문의 관심 영역을 종합해 보면, 교육지표 체계로는 교육 기회(교육 참여), 교육 자원, 교육의 성과 등이 공통적인 내용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사회 지표 중 교육 분야의 관심영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신 지표체계는 교육 자원 등 교육의 투입요인, 교육참여와 기회 등 교육의 과정요인, 교육의 성과 등 산출요인이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체제론적 접근에 기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관심영역은 기존체계와 3개로 동일하며, 세부관심영역은 1995년 체계의 7개 영역으로 수는 같으나 「교육기회확대」를 「교육참여」로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교육의 성과」로, 「교육의 인력양성」을 「교육의 만족도」로 변경하였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43개에서 44개로 변화하였으며, 그중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13개 였고, 주관적 지표는 9개이다.

6. 『보건』 부문

보건부문에서 장래의 변화까지 감안하여 지표의 다양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여기서는 관심영역을 건강상태 및 행태, 사망·질병·장애,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 및 재정, 보건의료기술 등 6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보건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통계청 발표의 '한국의 사회지표'(2003) 내의 보건지표체계 관심영역이나 1995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개발한 '신보건지표체계'의 관심영역을 포괄함으로써 이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이다.

관심영역별 세부관심영역은 「건강상태 및 행태」의 경우에는 생존년수, 성장발육, 정신건강, 구강보건, 주관적 건강평가, 영양, 보건의식행태로 구분하였다. 「사망·질병·장애」에는 사망, 전염성 질환, 비전염성 질환, 사고 및 장애로 구분하였다. 「보건의료이용」은 예방, 외래, 입원, 응급의료, 의약품소비로 구분하였고,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시설로 구분하였다. 「보건의료비용 및 재정」은 보건의료비용, 보건의료재정으로 구분하였고, 「보건의료기술」은 장기이식, 의료보장구장치, 의료장비로 구분하였다.

지표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기존 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이 7개였으나 「영양」을 「건강상태 및 행태」에 포함시켜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세부관심영역은 1995년 체계의 21개 영역에서 「생존년수», 「성장발육», 「정신건강», 「구강보건», 「주관적 건강평가», 「영양», 「보건의식행태», 「사망», 「전염성질환», 「비전염성질환», 「사고 및 장애», 「예방», 「외래», 「입원», 「응급의료», 「의약품소비»,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비용», 「보건의료재정», 「장기이식», 「의료보장구장치», 「의료장비」 등 23개 영역으로 증가하였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50개에서 67개로 증가하였다. 그중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24개였으며, 주관적 지표는 2개이다.

7. 『주거와 교통』 부문

기존의 체계에서는 주거부문을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로 크게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택수급, 주거비용, 주거이동, 주거공간, 주택부대시설, 주위환경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복지측정형 지표체계라는 점에서 대체로 잘 구성되어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의 수준측정을 위한 현황자료 제시와 국가정책의 목표를 설정에 활용 가능한 지표 제시라는 사회지표의 기본 기능을 고려하고, 기존 지표체계에서 고려한 기본취지와 기존 지표체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신지표체계의 방향을 설정한다.

기존 지표체계 개정시 고려했던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 도시과밀화 문제 등의 상황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 걸쳐 웰빙 열풍이 불 정도로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졌으며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도시과밀화와 관련한 문제도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될 정도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한계에 달한 상황이며 지방광역권의 인구 및 지역범위 확장과 광역권으로의 집중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집중에 따른 과밀문제와 혼잡문제 등에 대한 복지수준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이라는 기존지표의 취지를 수용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관심 증가와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경제성에 대한 관심과 객관적 평가요구 증가 등 최근의 정책·사회·경제적 관심을 반영하도록 한다.

관심영역 설정 및 개별지표 선정에 있어서는 화물통행에 비해 사람의 통행과 관련한 사항에 중점을 두도록 하며 항공교통과 해상교통 보다는 도로교통과 철도교통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국내통행에 관련한 사항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지표를 이용한 연구의 시계열 분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기존 지표는 유지하도록 하며, 필요에 의해 유사지표로 대체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며, 새로운 지표에 대해 과거부터의 시계열 지표 도출 가능성도 고려한다.

지표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기존 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이 「주거상태」, 「주거의 질」, 「교통시설」, 「교통의질」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신체계에서는 「주거상태」 및 「주거의 질」이 「주택」 및 「주거」로 변경되었으며 영역수는 4개로 동일하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51개에서 57개로 증가되었다. 그중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18개로 큰 증가를 보였으며, 주관적 지표는 10개이다.

8. 『정보와 통신』 부문

90년대 들어 정보통신 발전과 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디지털 경제,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E-conomy 등 신경제와 유사한 뜻을 갖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OECD(1996)는 지식기반경제를 지식의 창출, 파급 및 활용과 관련된 경제⁷⁾로 정의한다. 교역자유화, 투자자유화, IT발전 등에 따른 지식의 국가 간 이전은 지식기반경제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하는 소비자, 기업, 정부의 모습으로 정의되고 있다. 1998년 이후 매년 발행하고 있는 미상무성의 “떠오르는 디지털 경제(The Emerging Digital Economy)” 보고서 시리즈에서도 IT산업과 관련된 성장, 생산성, 물가, 고용 등의 현상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Choi and Whinston(2000)은 인터넷 경제를 인터넷이나 World Wide Web 등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화 되는 새로운 경제(smart economy)로 정의하고 있다. Cohen et al(2000)은 IT발전과 파급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경제를 E-conomy로 정의⁸⁾하고 있다. 다양한 용어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빠른 보급은 이전과 다른 모습의 경제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모습을 정량화해 주는 지표의 방향을 (i) 정보통신산업과 (ii)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인프라와 (iii) 인프라의 활용, 즉 정보화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지표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기존 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이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관련 인력」, 「정보화 정도」, 「정보관련 지출」, 「정보화에 대한 인식」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신체계에서는 「정보통신 산업」, 「정보화기반」, 「정보화」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세부관심영역은 1995년 체계의 8개 영역에서 「정보통신산업활동」, 「PC보급」, 「통신서비스 이용」, 「방송서비스이용」, 「인터넷보급 및 이용」, 「전자상거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현황」, 「인터넷뱅킹」, 「통신비 지출」, 「정보입수경로」, 「정보화실태와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정보화 역기능」 등 12개 영역으로 하였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28개와 동일하였다. 그중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21개로 지표수는 동일하였지만 많은 지표가 교체되었으며, 주관적 지표는 5개이다.

7) Economies which are directly based o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8) Economic transformation driven by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modern electronic-based information technology

9. 『환경』 부문

지속가능발전지표 통계의 작성체계는 경제활동과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개념적 특성을 설명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기본구성은 사회, 환경, 경제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NCSD에서는 여기에 제도부문을 추가하여 4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구성체계는 한국의 사회지표 전반적인 체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속가능발전 개념 자체가 환경에서 시작되어 발전되었기 때문에, 서론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넓은 의미의 환경지표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에서는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에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영역과 지표를 포함한다면 사회지표 체계의 다른 부문과 중복될 수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구, 교육, 주거, 교통, 여성 등 다양한 부문이 이미 한국의 사회지표 다른 부문 항목과 지표에 포함되어 있어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그 자체가 한국의 사회지표 전반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에서 기존의 환경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및 지표를 한국의 사회지표 다른 부문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하고자 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에서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업, 해양수산, 산림 분야 중에서 환경 혹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부분 승인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지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환경부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재활용' 및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통계지표를 새로이 환경부문에 포함하고자 한다.

지표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기존 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이 「녹색 GDP」, 「환경압력」, 「환경영향」, 「환경관리」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신체계에서는 「녹색 GDP」를 제외하고 「환경영향」을 「환경상태」로 변경한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세부관심영역은 1995년 체계의 7개 영역에서 「녹색 GDP」를 제외한 6개 영역으로 하였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31개에서 47개로 증가되었다. 그중 기존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24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지표는 6개이다.

10. 『복지』 부문

사회복지지표체계는 사회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앞으로 변화하는 복지수요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지표는 궁극적으로 복지수준의 향상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지표의 기능을 사회적 여건에 대한 사실 보고와 장래의 예측, 사회적 조건의 변화 방향에 대한 측정을 바탕으로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의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원이라는 주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지표체계의 기능은 사회복지의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사회복지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삶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공급의 측면인 국가적 복지정책의 현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적정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며, 복지정책의 수립·집행·평가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참여복지)로 되어 있다. 즉, 「복지의 보편성」, 「국가 책임」의 강조, 「국민의 참여」로 요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으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적극적 탈빈곤, 일을 통한 자활 촉진, 차상위계층의 보호 확대 등이며 이러한 정책의 방향도 복지지표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양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적 측면을 포함하는 주관적 지표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표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기존 체계와 신체계는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은 동일하고 개별지표만이 변화하였다. 즉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은 각각 4개와 11개로 동일하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43개에서 70개로 증가하였다. 그중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30개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주관적 지표는 13개이다.

11. 『문화와 여가』 부문

지표체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지표의 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분류체계의 조정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4차 개편 작업 시까지 안정적인 통계수치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

다. 둘째, 수용자 중심의 지표를 우선시하고자 하였다. 문화정책의 흐름이 공급자, 인프라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부응하여 문화향유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표본조사인 『사회통계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문화와 여가부문 이외의 다른 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표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부문 간 중첩되는 부문이 있다. 또한 다른 부문의 지표체계에서 문화와 여가부문이 표면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문화와 여가지표에서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넷째, 정책평가의 기준이 될 만한 지표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행 문화와 여가관련 법률을 최대한 존중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같은 네 가지 기준의 확보를 통해, 문화와 여가부문의 지표가 사회지표의 네 가지의 기본기능—① 국민생활 수준 측정, ②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③ 사회변화 예측, ④ 사회개발정책의 성과측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지표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기존 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이 「문화예술활동」, 「여가활용」, 「문화의식」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신체계에서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활동」, 「문화의식」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세부관심영역은 1995년 8개 영역 체계에서 「문화재」, 「문화시설」, 「예술행사」, 「예술관람」, 「문화예술교육」, 「도서출판」, 「신문」, 「텔레비전」, 「음반 비디오 게임」, 「문화예술과 인터넷」, 「사회문화활동」, 「여가활용 및 조건」, 「시간배분」, 「관광여행」, 「체육활동」, 「문화의식」 등 16개 영역으로 하였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34개에서 44개로 증가되었다. 그중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19개였으며, 주관적 지표는 8개이다.

12. 『안전』 부문

안전부문 지표체계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체계로서 모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심영역으로 제시된 명칭을 부분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안전부문지표체계에서 관심영역으로 설정된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죄부하량(Crime load)'으로 그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지표 체계에 수록되어있는 지표들 중 국제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들도 있으나 앞으로는

주관적인 지표들 중 의미가 있는 지표들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조사항목을 설정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마약류범죄와 같은 범죄의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파악하는 지표계열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정치·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안전부문의 지표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표계열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공안과 관련된 지표들은 물론 법원, 검찰, 경찰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지표들은 사회지표체계에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국제기관(기구)과 선진국의 사회지표체계에서 제시된 바 있는 안전관련 지표계열이 우리의 체계에 수록되지 못하였다.

안전과 관련된 주관적 지표의 확대가 요구된다. 안전부문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고 하겠다. 기존체계에서 범죄관련지표의 대부분은 행정적으로 보고된 통계자료(검찰청의 범죄분석,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실정은 보고통계와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범죄피해에 관한 지표에 대하여 사회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보고된 범죄관련지표와 조사된 범죄관련지표를 비교할 필요가 절실하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는 안전관련 조사통계의 수집과 정비가 과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이 예상되고, 또한 보dana은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 하에 안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주관적인 의식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제약이 없을 것이므로 이 부문의 지표작성에 있어서 의미있는 주관적인 지표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표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기존 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이 「안전에 대한의식」,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신체계에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범죄부하량」으로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 예방」을 「교통사고, 화재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으로 변경하였다. 세부관심영역은 1995년 체계의 14개 영역과 동일하였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55개에서 66개로 증대되었다. 그중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18개로 큰 변화가 있었으며, 주관적 지표는 14개이다.

9) 예컨대, 주요범죄별 범죄자수(인구10만명당), 청소년 범죄율, 경찰관 1명당 인구수, GDP 대비 경찰비 지출액,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 소방관 1인당 인구수,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와 같은 지표들은 1995년에 국제비교지표로서 권고되었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국제비교지표로서 공표하여왔다.

13. 『정부와 사회참여』 부문

현재 미국, 영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는 천편일률적인 기존의 사회지표체계로는 앞으로 급속도로 진전될 정보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첫째, 이번 사회지표체계 작성에서는 산업사회가 아닌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표체계를 작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즉, 초고속 인터넷 강국에 어울리는 사회지표 개발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우선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E-government)의 활용도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측정하는 항목을 별도로 삽입하였다.

둘째, 사회지표자료 활용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 뿐만 아니라, 대학부설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생산된 자료들도 사회지표작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 지표체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변국 및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점검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계층간의 빈부격차,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사회지표에 포함시켜,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당면하고 있는 절박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사회지표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회지표 항목들을 대폭 강화하였다.

지표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기존 체계에서의 관심영역 「정치참여」, 「사회참여」, 「정부」와 동일하게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관심영역은 1995년 체계의 9개 영역에서 「정치영역에 대한 태도」를 제외시키고, 「사회참여를 I 과 II」로 구분하여 1995년과 동일수의 영역으로 하였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28개에서 33개로 증가되었다. 그중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9개였으며, 주관적 지표는 14개이다.

제4장 사회지표체계 개편안

- A. 신 사회지표체계에 따른 개별지표
- B. 생산가능한 개별지표
- C. 장래개발지표
- D. 주관적 지표
- E. 특정집단별 개별지표
- F. 국제비교

A. 신 사회지표체계에 따른 개별지표

1) 인구부문(관심영역 6, 세부관심영역 17, 개별지표 48)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총인구	인구추세	- 총조사인구	○			○
		- 연앙추계인구	○			○
	연평균 인구성장률	- 연도별 성장인구 및 인구성장률	○			○
		- 자연증가율(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	○			○
		- 외국인 인구(국적)		○		○
	장래인구	- 장래추계인구	○			○
		- 장래인구성장률(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	○			○
인구구성	성 및 연령별 인구 (장래인구 포함)	- 성 및 연령별 인구	○			○
		- 국민평균연령(또는 중위연령)	○			○
		-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		○		
		- 성 및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		
		- 부양인구비	○			○
		- 노령화지수	○			○
	혼인상태별 인구	- 혼인상태별 인구	○			○
		- 초혼연령별 인구	○			
인구분포	인구밀도	- 시도별 인구밀도	○			○
		- 지역별 인구	○			○
	지역별 인구	- 동·읍·면부별 인구	○			○
		- 지역별 장래추계인구		○		○
	도시인구	- 도시규모별 인구	○			
		- 수도권 인구	○			○
		- 도시인구성장의 요인(출생, 사망, 이동)	○			○
출생	출생아수 및 출산율	- 성 및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		○
		- 출생시 성비(전국, 지역 및 출생순위별)	○			○
		- 연령별 출산율	○			○
		- 합계출산율	○			○
		- 코호트별 누적 출산율	○			○
		- 순 재생산율	○			
		-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총조사)	○			○
	인공임신중절	- 연령별 및 인공임신중절률	○			○
		-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자녀관	- 이상자녀수*	○			
		- 자녀수에 대한 선호*	○			
		- 무자녀 또는 한 자녀 이유*		○		
	특성별출산율	- 교육정도별 출산율의 비		○		
		- 거주지역별 출산율의 비		○		
사망	사망자수 및 사망률	- 성, 연령별 사망자수		○		○
		- 성, 연령별 사망률	○			○
		- 표준화 사망률	○			○
	기대여명	- 성, 연령별 기대여명	○			○
인구이동	국내이동	- 지역별 전입, 전출인구(순이동 포함)	○			○
		- 연령별 순인구이동률	○			○
		- 지난 1년간 이주 원인별 구성비	○			
	국제이동	- 지역별 국제인구이동(내국인 및 외국인)			○	○
		- 해외이주 및 귀국허가 현황	○			
		- 이민에 대한 태도*	○			
		- 선호하는 이민지역*	○			
	주간인구	- 지역별 주간인구		○		

* 주관적 지표임.

2) 가구와 가족(관심영역 6, 세부관심영역 17, 개별지표 50)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가구구성	가구형태	- 가구의 종류별 분포	○			○
		- 인구의 거주 가구종류별 분포		○		○
		- 가구종류별 가구원수 분포와 평균가구원수			○	○
	가구주 구성	- 일반가구주의 성구성			○	○
		- 일반가구주의 연령구성		○		○
가족구성	가족형태	- 가족의 세대구성			○	○
		- 가족의 종류별 분포			○	○
		- 인구의 거주 가족종류별 분포		○		○
		- 가족종류별 평균가구원수		○		○
	다양한 가족	- 일반 가족의 성원구성별 추세			○	○
		· 부부만의 가족추세				
		· 부부와 자녀 가족추세				
		· 부와 자녀 가족추세				
		· 모와 자녀 가족추세				
		· 조부모 자녀가족 추세				
		- 특별가족추세		○		○
		· 미성년 가족추세(소녀소년 가족)				
		· 미혼모 가족추세				
		· 양자 가족추세				
		· 분산가족 추세				
		· 비혼동거가족 추세				
	가족형성	- 평균초혼연령 1(센서스)		○		○
		- 평균초혼연령 2(동태통계)			○	
		- 조혼인율	○			○
		- 총(또는 합계)혼인율		○		○
	이혼	- 이혼연령분포		○		○
		- 평균이혼연령	○			
		- 조이혼율	○			○
		- 총이혼율		○		○
	재혼	- 재혼형태분포			○	
		- 재혼율(또는 재혼비율)		○		○
	자녀출산과 입양	- 첫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			○	○
		- 첫 자녀 출산비율		○		○
		- 이상자녀수*	○			○
		- 입양추세		○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탈가족화	탈가족 생활 추세	- 1인가구 거주자 추세		○		○
		- 비친족가구 거주자 추세		○		
		- 비혼동거가족 거주자 추세		○		
		- 시설가구 거주자 추세		○		
	청년가구	- 청년 1인 가구 추세		○		○
		- 미혼청년 1인가구 추세				
		- 기혼청년 1인가구 추세				
	노인가구	- 노인 1인가구 추세		○		○
		- 비친족가구 거주 노인 추세		○		○
노인생활	가구생활	- 노인의 거주가구 형태분포		○		○
		- 노인의 연령별 가구생활 차이		○		○
	생계지원	- 주 생계지원 형태		○		
		- 부차 생계지원 형태		○		
	노후에 대한 태도	- 바람직한 노후생활에 대한 인지*		○		
		-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		○		
		-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		○		
가족규범	가족제도에 대한 관념	-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			
		- 어머니 성 쓰기에 대한 태도*		○		○
		- 현모양처에 대한 태도*		○		
		-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
	혼인관련 태도	- 독신에 대한 태도*			○	○
		-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		
		- 이혼에 대한 태도*	○			○
		- 재혼에 대한 태도*	○			
	대안적 가족생 활에 대한 태도	- 미혼모에 대한 태도*		○		
		- 입양에 대한 태도*		○		
		-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		

* 주관적 지표임.

3) 소득과 소비부문(관심영역 5, 세부관심영역 12, 개별지표 51)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소득수준	소득	- GDP 및 GNP/GNI	○			○
		- 1인당 GDP 및 1인당 GNI	○			○
		- 국민가처분소득	○			
		- 개인가처분소득	○			
		- 가구당 평균소득	○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
		- 농가소득	○			○
		- 도시·농가의 평균소득 비율	○			○
	소득원천	- 소득 원천별 구성	○			
	지역내 총생산	- 지역내 총생산(GRDP)	○			○
		- 1인당 GRDP	○			○
		- 지역별 생산구조	○			○
소비수준	소비규모	- GDP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			
		- GDP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		○		
		-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			○
		- 1인당 정부소비지출액		○		
		- 가구당 소비재종류별 지출률	○			
	소비지출	-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			○
		- 가구당 소비재 종류별 지출액		○		
		- 가구소득 대비 내구소비재 지출률	○			
		- 가구당 평균소비성향	○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흑자율	○			○
저축 및 투자	저축 및 투자수준	- 총저축률	○			○
		- 민간저축률	○			○
		- 정부저축률		○		○
		- 국내 총투자율	○			
		- 해외투자율	○			
		- 투자재원자립도		○		○
	저축생활	- 가계저축률	○			○
소득분배 및 조세부담	분배구조	- 노동소득분배율	○			○
		- 영업이익	○			
		- 순간접세	○			
	분배상태	- 소득 10분위별 분포	○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 소득집중도(지니계수, 소득10분위분배율)	○			○
		-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인식*	○			
	조세부담	-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인식*	○			
		- 조세부담률	○			○
		- 국세부담률		○		○
		- 지방세부담률		○		○
		- 사회보장부담금부담률		○		○
		- 비조세부담률	○			○
경제적 생활의 안정	소득의 안정	-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			
		- 소득만족도*	○			○
	물가	- 소비자물가지수	○			○
		- 구매력지수	○			
		- 생활물가지수		○		○
		- 수입물가지수	○			
		- 공공요금지수	○			
		- 소비자피해구제 현황	○			

* 주관적 지표임.

4) 노동부문(관심영역 5, 세부관심영역 10, 개별지표 35)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고용	경제활동 및 실업률	-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			○
		- 실업률	○			○
		-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			○
		- 취업자의 구성	○			○
	취업자의 구성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			○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
		- 여성 관리직 종사자 비율				
		-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			○
		- 고용형태별 취업자 분포	○			○
		- 취업자 중 피용자율				
		- 상시 취업률				
		-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 외국인고용 현황	○			○
		- 장애인고용 현황	○			○
근로조건	근로조건	-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			○
		-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	○			○
		- 산업별 평균 근속기간		○		○
		- 주5일제 근무 사업체 비율		○		
		- 평균정년퇴직 연령	○			
		-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	○			○
		-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	○			○
		- 노동이동	○			○
		- 산업별 이직률	○			○
		- 직업훈련자수	○			○
안전	훈련 및 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			○
		-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			○
		-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수	○			
		- 산업별 실업급여 수급자수	○			○
	산업안전	- 건강진단 수검률	○			○
		- 직업병 근로자 비율	○			
		- 산업재해도수율	○			○
		- 재해강도율	○			
		- 재해사망률	○			
		- 노동생산성	○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노사관계	노사관계	- 노동조합조직률	○			○
		-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			
취업관련 주관적 의식	취업관련 주관적 의식	- 직업선택요인*	○			○
		-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			○
		-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		○
		- 여성취업 장애요인*		○		○

* 주관적 지표임.

5) 교육부문(관심영역 3, 세부관심영역 7, 개별지표 44)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교육기회	국민의 교육수준	- 성·연령계층별 평균 교육년수	○			○
		-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			○
		- 자녀교육의 목적	○			
		-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		○		○
		-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		○
	교육참여	- 취학률(유치원 취원률 포함)	○			○
		- 진학률	○			○
		- 중도탈락률		○		○
		-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			○
		- 인구 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		
		-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		○
		-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			
		-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
교육자원	인적자원	- 학생현황	○			○
		- 교원 현황	○			○
		- 교원 1인당 학생수	○			
		- 교원의 평균연령, 평균경력년수	○			
		- 각급학교 교원 세부 현황	○			○
		- 교원 이직율	○			○
		- 교원 퇴직률	○			○
		- 사무직원당 교원수	○			
	물적자원	- 학급당 학생수	○			○
		- 학생 1인당 건물·교지·체육장 면적	○			
		- 학생 1인당 도서관·좌석 및 장서수	○			○
		- 컴퓨터 1대당 학생수		○		
		- 교원 1인당 교원용 컴퓨터수		○		
		- 급식 실시학교 및 학생비율		○		
	교육재정	- GDP 대비 공교육비	○			○
		- 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예산	○			
		-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	○			○
		-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			
		-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
		- 사교육 참여비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			○
		-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교육효과	교육의 성과	- 학업성취 수준		○		○
		- 학교 교육의 효과*		○		○
		- 졸업생 취업률	○			○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 비행 학생 비율	○			
		- 교육정도별 월평균 임금 수준	○			○
	교육의 만족도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
		-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		○
		- 교사의 직업 만족도*	○			

* 주관적 지표임.

6) 보건부문(관심영역 6, 세부관심영역 23, 개별지표 67)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건강상태 및 행태	생존년수	- 기대여명	○			○
		- 건강기대여명(건강수명)	○			○
	성장발육	- 저체중아 출생률		○		
		- 학생(초5, 중2, 고2)의 신장, 체중, 흉위	○			○
		- 학생의 비만율(BMI 분포)			○	○
		- 성인비만율			○	○
	정신건강	- 정신질환 유병률	○			○
		- 치매유병률	○			○
	구강보건	- 1인보유 우식경험 영구치아수(12세아동)	○			○
		- 노인의 무치아 인구비율		○		
	주관적 건강평가	-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			○
		- 스트레스 인식정도*		○		○
		- 2주간 주관적 호소 유병률		○		
	영양	- 1인당 열량 섭취량	○			○
		- 1인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섭취량	○			
		- 1인당 쌀 및 육류소비량		○		
	보건의식행태	- 음주율 및 고도음주자 비율	○			○
		- 1인당 주류소비량(출고량)	○			○
		- 흡연율 및 1일 평균 흡연량	○			○
		- 연간 담배판매량		○		○
		- 규칙적 식사 이행률		○		
		- 규칙적 운동실천율		○		○
		- 정상 수면율		○		
		- 정상 수면율		○		
사망 질병 장애	사망	- 주산기사망률	○			
		- 자연사산율		○		
		- 영아사망률	○			○
		- 신생아사망률		○		○
		- 모성사망률	○			○
		- 주요사망 원인별 구성비	○			○
		-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		○
		- 암사망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		○
	전염성질환	- 주요전염성질환 발생률	○			○
		- AIDS 환자수 및 유병률	○			○
		- 만성전염병 유병률(결핵, 한센병, B형간염)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비전염성질환	- 만성질환 유병률(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관절염)	○			○
		- 암 유병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			○
	사고 및 장애	- 자살률		○		○
		- 산업재해 사망률		○		
		- 교통사고 사망률		○		
		- 활동제한일수	○			
		- 와병일수	○			
보건의료 이용	예방	- 건강검진율	○			
		- 암검진율		○		
		- 예방접종률	○			
	외래	- 외래수진율(일반, 치과, 한방)	○			
		- 외래건당 내원일수(일반, 치과, 한방)	○			
		- 외래 내원일당 진료일수(일반, 치과, 한방)	○			
	입원	- 병상이용률(일반, 특수병원, 한방)	○			○
		- 입원 수진율(일반, 한방)	○			
		- 평균재원일수(일반, 한방)	○			
	응급의료	- 구급차수 및 보유률		○		
		- 구급차 출장건수		○		
	의약품소비	- 의약품 소비량 및 생산실적		○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인력	- 의료인력수 및 1인당 인구수(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			○
		-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수(의사, 간호사)	○			
	보건의료시설	- 의료기관수 및 인구10만당 수(의료기관종별)			○	○
		- 병상수 및 인구10만당 병상수(의료기관종별)			○	
		- 공공병상 및 공공병상 비율		○		○
보건의료 비용 및 재정	보건의료비용	- 1인당 국민의료비지출	○			○
		-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			
		- 공공의료비 지출비율		○		
		- 가구지출 중 의료비지출 비율	○			○
		-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 지출비율		○		○
	보건의료재정	- 정부예산대비 보건예산 비율	○			
보건의료 기술	장기이식	- 장기이식건수	○			
	의료보장구장치	- 의료보장구 장치건수	○			
	의료장비	- 고가 의료장비수(인구 10만명당)	○			

* 주관적 지표임.

7) 주거와 교통부문(관심영역 4, 세부관심영역 8, 개별지표 57)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주택	주택수급	- 주택보급률	○			○
		- 인구 1천명당 주택수	○			○
		- 주택투자율	○			
		- 연간 주택건설호수	○			○
		- 주택의 유형	○			○
		- 공공주택 비중		○		○
		- 주택의 노후도	○			
		- 주택규모(호당주택면적, 호당대지면적)		○		○
		- 최초 주택마련시 자금조달방법	○			○
		- 도시주택가격지수	○			○
		- 도시주택전세값지수		○		○
		- 가구당 주택자금대출 비중		○		
	주택의 질	- 주택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	○			○
		- 원하는 주택규모*	○			○
		- 원하는 주택유형*	○			○
주거	주거상황	- 주거점유형태	○			○
		- 주택당 거주가구수	○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		○
		- 현 주택거주년수	○			
		- 최초 주택마련시기	○			○
		- 결혼후 내집마련까지의 이사회수	○			
		- 현 거주지 선택이유*	○			○
		- 거주지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	○			○
		- 원하는 주거형태*		○		○
		- 가구당 주거비 부담	○			○
	주거의 질	- 가구당 주거면적	○			
		- 가구당 사용방수	○			○
		- 1인당 주거면적		○		○
		- 방당 거주인수	○			
		- 상수도 보급률	○			
		- 하수도 보급률	○			
		- 입식부엌 시설률	○			○
		- 목욕탕 시설률	○			○
		- 수세식화장실 시설률	○			○
		- 주차장 확보율	○			○
		- 가구별 난방방식	○			
		- 편의시설 근접도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교통시설	시설투자	- 교통기반시설규모		○		○
		- 교통수단보유규모		○		○
		- 건설교통예산		○		
	시설이용	-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			○
		- 평균통행회수		○		○
교통의 질	교통편의	- 자가용승용차보유	○			○
		- 자동차 주행속도	○			○
		- 통근·통학 교통수단	○			
		- 통근·통학 소요시간	○			○
		- 버스·지하철 접근성	○			○
		-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			
		- 교통문제			○	○
		- 교통수단별 만족도*		○		○
		- 자가용 이용시 교통문제*		○		○
		-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문제*		○		○
	교통관련 비용	- 통근·통학비용		○		
		- 도로교통혼잡비용		○		
		- 물류비용		○		
		- 도로교통사고비용		○		○
		-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	○			○

* 주관적 지표임.

8) 정보와 통신부문(관심영역 3, 세부관심영역 12, 개별지표 28)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정 보 통 신 산 업	정보통신산업활동	- 정보통신연구개발비	○			○		
		- 통신 기술도입액 및 기술수출액	○			○		
		-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		○		
		- 정보통신산업 수출		○		○		
		-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수		○		○		
정보화기반	PC보급	- 인구 천명당 PC보급대수	○			○		
	통신서비스 이용	- 전화보급률	○			○		
		- 이동통신, PC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			○		
	방송서비스이용	- 케이블TV 가입가구	○			○		
		- 위성방송 가입가구		○		○		
	인터넷보급 및 이용	- 인터넷 이용자수		○		○		
		- 인터넷 호스트 및 도메인 수		○		○		
		- 인터넷 접속방식		○		○		
		정 보 화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규모		○		○
				- 최근 6개월내 인터넷쇼핑 경험 및 구매회수		○		○
	- 인터넷쇼핑 구매품목			○		○		
	- 인터넷 상거래 지출액			○		○		
	- 최근 6개월내 유료콘텐츠 이용경험, 이용종류			○		○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현황	- 컴퓨터 이용시간	○			○		
		- 컴퓨터 이용목적*		○		○		
		- 휴대전화 이용목적*		○				
		- 인터넷 이용목적*		○		○		
		인터넷뱅킹	-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록 고객수		○		○	
	통신비 지출	-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		○		○		
	정보입수경로	- 필요정보 입수경로*		○		○		
	정보화실태와 영 향력에 대한 인식	- 정보화의 영향*		○		○		
	정보화 역기능	- 정보화 격차		○		○		
		- 해킹, 바이러스 및 스팸메일		○		○		

* 주관적 지표임.

9) 환경부문(관심영역 3, 세부관심영역 6, 개별지표 47)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준	신규	보완	권고 지표
환경압력	환경오염물질배출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 폐수발생량	○			○
		- 1인당 생활오수 발생량	○			○
		- 생활폐기물 발생량(1인 1일)	○			○
		- 지정폐기물 발생량	○			○
		- 방사선폐기물배출량		○		
		-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비료소비량	○			○
		-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농약출하량	○			○
		- 유해화학물질 유통량		○		○
		-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		○
		- CFCs 사용량		○		
		- 해양오염 사고현황		○		
	자연자원의 이용	- 상수도보급률	○			○
		- 1일 1인당 급수량	○			○
		- 지하수 이용현황		○		
		-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			○
		- 1인당 전력 소비량	○			○
		- 농지면적 변화추이		○		○
		- 도시화율		○		
		- 산림면적		○		○
환경상태	환경의 질	- 임목 벌채		○		
		- 대기오염도	○			○
		- 주요도시의 오존오염도	○			○
		- 수질오염도	○			○
		- 해수오염도	○			○
		-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		○
		- 먹는물의 수질현황	○			○
		- 상수도 시설과 식수사용 형태	○			○
		- 연간 총 어획량		○		
		- 멸종위기 종 비율		○		
	생활환경	-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			○
		-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		○
		-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			○
		- 하수도 보급률		○		○
		-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소비비중		○		○
		- 폐기물 재활용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환경관리	환경관리지출	-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			○
		- GDP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			○
	환경관리노력	- 환경오염방지 노력*	○			○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
		- 재생산업 사업체수	○			○
		-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활용 실적		○		
		- 지정폐기물 다량배출업소 폐기물 감량		○		
		- 환경보호 부담의향*		○		○
		- 공해배출 부담금 및 징수액		○		○
		- 쓰레기봉투 사용시 불편한 점*		○		○

* 주관적 지표임.

10) 복지부문(관심영역 4, 세부관심영역 11, 개별지표 70)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복지증진	자원	-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 예산	○			○
		-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			○
		-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		
		-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 *	○			
		- 기업복지재단수 및 재단출연금	○			
		- 민간부문 모금액	○			○
		-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	○			
		- 현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사회보험	의료보장	-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	○			
		- 1인당 건강보험 부담액	○			○
		- 1인당 건강보험 급여액	○			○
	공적연금	- 공적연금 가입자	○			○
		- 공적연금 수급자	○			○
		- 공적연금 평균 급여비	○			○
		-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 *		○		
공공부조	자원	- 정부예산 대비 공공부조 예산	○			○
		- GDP 대비 공공부조 예산	○			○
		- 사회보장 대비 공공부조 예산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
		-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	○			○
		-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		○
		- 일반 및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액	○			
		- 최저생계비	○			○
	긴급구호	- 노숙인 수		○		
		- 노숙인 보호시설 수		○		
사회복지서비스	자원	- 정부예산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			○
		-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			○
		- 사회보장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			○
		-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수		○		○
		-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생활인원	○			○
		-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종사자수	○			○
		- 사회복지관수		○		○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수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노인복지	- 노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			○
		- 노인중 복지시설 생활인 비율	○			○
		- 노인복지시설별 시설수 및 입소자	○			○
		- 65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여부*		○		
		-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		○		
		- 65세 이상 인구의 자녀거주 장소		○		
		-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종사상의 지위		○		
		- 65세 이상 인구의 주부양자		○		
		- 노인문제		○		
		- 65세 이상 생활비(용돈) 마련방법		○		
		- 65세 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		○		
		- 65세 이상 여가시간 활동의향 *		○		
		- 65세 이상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		○		
		- 65세 이상 장래 살고 싶은 곳 *		○		
	모부자복지	- 모자보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현황		○		
		- 미혼모 보호시설 및 인원		○		
		- 부랑인 생활시설 및 생활인원 현황		○		
	아동복지	- 자녀양육 실태		○		
		- 소년소녀 가장 가구수	○			○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			○
		- 아동입양기관수 및 입양아 수	○			○
		-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			○
		- 위탁아동 및 보호현황		○		
	장애인복지	- 장애인 등록률	○			○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
		-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			○
		- 장애인 출현율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			○
		- 장애인중 복지시설 수용자 비율	○			○
		- 취업 희망 장애인 비율		○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		
		- 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비율		○		○
		- 희망하는 복지혜택 *		○		
		-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수	○			

* 주관적 지표임.

11) 문화와 여가부문(관심영역 5, 세부관심영역 16, 개별지표 44)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문화유산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 수		○		○
		- 시·도지정 문화재 수		○		
문화예술	문화시설	- 문화시설 수			○	○
		- 도서관 수			○	○
		- 도서관 장서 수			○	○
		- 도서관 좌석수	○			
		- 영화관 수	○			○
		- 영화 스크린 수		○		○
		- 영화관 좌석 수		○		
		- 문화시설 이용률		○		○
	예술행사	- 예술행사 수		○		○
		- 영화상영편수		○		
	예술관람	- 예술행사 관람률			○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 교육참여율		○		○
문화산업	도서 출판	- 도서발행 종수			○	○
		- 도서발행 부수			○	
		- 독서인구 비율			○	○
	신문	- 신문구독률	○			○
		- 신문 관심부문			○	
	텔레비전	- 텔레비전 시청률	○			○
		- 텔레비전 선호프로그램*			○	
		-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			○	
		- 비디오 시청률			○	
	음반 비디오 게임	- 음악 청취율			○	
		- 선호하는 음악장르*		○		○
		- 게임물 이용률		○		○
		- 문화예술 인터넷사이트 이용률		○		○
사회문화 활동	사회문화활동	- 문화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
		- 문화단체 참여율		○		○
	여가활용 및 조건	- 여가활용 방법*			○	○
		- 여가활용 만족도*			○	○
		- 여가 활동의 어려운 점*		○		○
		- 평균 여가시간			○	○
		- 가구 여가활동 비용	○			○
	시간배분	-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	○			○
		-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관광여행	- 국내 관광여행 비율		○		○
		- 국내 관광여행 지역		○		
		- 휴양시설 이용률			○	○
		- 해외여행 비율	○			○
	체육활동	- 시·도별 체육시설		○		○
		- 생활체육 참여율		○		○
		- 스포츠경기 관람률			○	○
문화의식	문화의식	-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			○

* 주관적 지표임.

12) 안전부문(관심영역 5, 세부관심영역 14, 개별지표 66)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	개인과 생활의 안 전의식	- 향후 5년간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 (직장, 개인, 가정생활)*		○		○
	사회의 안전도	-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			○
		- 사회 안전(안정)에 대한 의식*	○			○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			
		-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			
		- 야간 보행시의 안전도*	○			○
		- 성희롱 경험률*		○		
		- 공직자의 증·수뢰 경험비율*		○		
	범죄부하량	보고된 범죄발생	○			
		- 보고된 범죄발생 총건수	○			
		- 보고된 주요범죄발생건수	○			○
		- 자동차절도·자동차털이 범죄율		○		
		-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율(10만명당)		○		
		- 가정폭력 발생률		○		
		- 마약류범죄율		○		○
		- 외국인에 의한 국내범죄 발생건수	○			
		-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 발생건수	○			
		보고된 범죄자	○			○
	청소년범죄 및 비 행 탈선	- 주요범죄별 범죄자 수(인구 10만명당)	○			○
		- 주요범죄자 평균연령	○			○
		- 주요범죄 재범자 비율				○
		- 교도소 재소자수(10만명당)				○
		- 여성 범죄자의 비율	○			○
		- 마약류범죄 체포자수		○		
		- 수감되지 않은 각종 법규위반자수		○		
		- 청소년 범죄율	○			○
		- 청소년 범죄 피의자 비율		○		
		- 학교주변 및 교내폭력, 협박의 피해 학생수 (학생 1만명당)	○			○
범죄피해		-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			○
		-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율과 10만명당 피해자수	○			○
		-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피해건수와 평균 피 해액	○			○
		- 범죄피해에 대한 예상(상해,강도, 강간, 주 거침입절도)*		○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범죄의 방 지 및 도능력	범죄방지를 위한 인력배분과 지출	- 공직자 중 공공안전·질서유지 분야종사 공 직자의 비율		○		○
		- GDP대비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재정지출비 율(사법기관별)		○		○
		- 경찰력구성(성별, 지위별)		○		
		- GDP 대비 경찰비지출액	○			
		- 경찰관 1인당 인구수	○			○
		- 지구대당 순찰차량수	○			
		- 자택보안개량의 이유*		○		
	검찰 경찰에 대한 신뢰도	-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미신고 이유*	○			○
		- 범죄발생부터 범죄자체포까지의 시간별 분포	○			○
		-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 국민의 검찰·경찰에 대한 이미지*		○		○
	교도능력	- 주요범죄 재범률	○			○
		-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			
		- 교도소 수감자 1인당 교도비 지출액	○			
교통 사고, 화재 기타 사고의 발 생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 과 예방	- 교통사고 발생건수(지수)	○			○
		-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000대당)	○			○
		- 고속(화)도로 교통사고	○			○
		-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			
		- 교통안전시설(도로연장 100Km당)		○		
		- 도로교통사고 원인			○	○
		- 화재발생 건수당 사상자수	○			○
	화재의 발생과 예방	- 화재발생 건수당 피해액	○			○
		- 소방관 1인당 인구수	○			
		- 소방자동차 1대당 인구수	○			○
		- 화재보험 가입건수(1,000가구당)	○			○
		-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사고당)	○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법집행의 공정과 인 도적 고려	법집행의 공정성	- 구속영장 발부율	○			
		- 소송사건처리 건수(인구 10,000명당)	○			○
		- 기소로부터 선고까지의 평균일수		○		
	피의자 보호 및 변호	- 유죄선고율	○			○
		- 형집행 유예비율	○			
		- 구금자비율		○		
		- 피고인의 재판전 평균 구류기간	○			○
		- 법률구조건수 지수	○			○
		-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	○			

* 주관적 지표임.

13) 정부와 사회참여(관심영역 3, 세부관심영역 9, 개별지표 33)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기존	신규	보완	권고 지표
정치참여	정치참여	- 투표율	○			○
		- 정치에 대한 관심*	○			○
		-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			○
		-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		○
	여성의 정치참여	- 국회의원중 여성의원의 비율	○			
		- 지방의회의원중 여성의원의 비율	○			
	통일 및 미래에 대한 태도	- 통일에 대한 태도*	○			○
		-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태도*		○		○
사회참여	사회참여 I (국내참여)	- 사회단체 참가율	○			○
		- 사회교육 참여율	○			○
		-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			○
		- 후원금, 기부금 제공자비율	○			○
		- 노인의 사회활동 참가율	○			○
		- 종교인구 분포	○			
		- 종교집회 참여도	○			
	사회참여 II (국외참여)	- 해외봉사활동 참가자수		○		○
		- 해외교포단체 수		○		○
	사회적 이동	- 사회적이동에 대한 태도*	○			○
		- 주관적 사회계층의식*	○			○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 빈부격차에 대한 태도*		○		○
		-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		○		○
		- 탈북자에 대한 태도*		○		○
정부	행정	- 공무원수(인구1,000명당)	○			○
		- 공무원 부처별 분포	○			○
		- 여성고위공무원 비중	○			○
		- 중앙행정부서에 대한 신뢰도*		○		○
		- 전자정부 (E-government) 서비스 만족도*		○		○
		-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	○			○
	재정	- GDP대비 기능별예산	○			○
		- 정부예산의 구성: 기능별예산	○			○
		- 국민 1인당 기능별 예산비	○			○
		-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			○
		- 조세형평에 대한 태도*	○			○

* 주관적 지표임.

B. 생산가능한 개별지표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구	- 총조사인구
	- 연앙추계인구
	- 연도별 성장인구 및 인구성장률
	- 자연증가율(조출생율, 조사망률 포함)
	- 외국인 인구
	- 장래추계인구
	- 장래인구성장률(조출생율, 조사망률 포함)
	- 성 및 연령별 인구
	- 국민평균연령(또는 중위연령)
	-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
	- 성 및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 부양인구비
	- 노령화지수
	- 혼인상태별 인구
	- 초혼연령별 인구
	- 시도별 인구밀도
	- 시도별 인구
	- 동·읍·면부별 인구
	- 지역별 장래추계인구
	- 도시규모별 인구
	- 수도권 인구
	- 도시인구성장의 요인(출생, 사망, 이동)
	- 성 및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 출생시 성비(전국, 지역 및 출생순위별)
	- 연령별 출산율
	- 합계출산율
	-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총조사)
	-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이상자녀수
	- 자녀수에 대한 선호
	- 교육정도별 출산율의 비

부문명칭	개별지표
	- 거주지역별 출산율의 비
	- 성, 연령별 사망자수
	- 성, 연령별 사망률
	- 표준화 사망률
	- 성, 연령별 기대여명
	- 지역별 전입, 전출인구(순이동 포함)
	- 연령별 순인구이동률
	- 지난 1년간 이주 원인별 구성비
	- 지역별 국제인구이동(내국인 및 외국인)
	- 해외이주 및 귀국허가 현황
	- 지역별 주간인구
가구와 가족	- 가구의 종류별 분포
	- 인구의 거주 가구종류별 분포
	- 가구종류별 가구원수 분포와 평균가구원수
	- 일반가구의 성구성
	- 일반가구의 연령구성
	- 가족의 세대구성
	- 가족의 종류별 분포
	- 인구의 거주 가족종류별 분포
	- 가족종류별 평균가구원수
	- 일반 가족의 성원구성별 추세
	· 부부만의 가족추세
	· 부부와 자녀 가족추세
	· 부와 자녀 가족추세
	· 모와 자녀 가족추세
	· 조부모 자녀가족 추세
	- 특별 가족추세
	· 미성년 가족추세(소녀소년 가족)
	· 미혼모 가족추세
	· 양자 가족추세
	· 분산가족 추세
	· 비혼동거가족 추세
	- 평균초혼연령 1(센서스)
	- 평균초혼연령 2(동태통계)
	- 조혼인율
	- 이혼연령분포
	- 평균이혼연령

부문명칭	개별지표
	- 조이혼율
	- 재혼형태분포
	- 재혼율(또는 재혼비율)
	- 첫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
	- 첫 자녀 출산비율
	- 이상자녀수
	- 입양추세
	- 1인가구 거주자 추세
	- 비친족가구 거주자 추세
	- 비혼동거가족 거주자 추세
	- 시설가구 거주자 추세
	- 청년 1인 가구 추세
	· 미혼청년 1인가구 추세
	· 기혼청년 1인가구 추세
	- 노인 1인가구 추세
	- 비친족가구 거주 노인 추세
	- 노인의 거주가구 형태분포
	- 노인의 연령별 가구생활 차이
	- 주 생계지원 형태
	- 부차 생계지원 형태
	- 바람직한 노후생활에 대한 인지
	-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
	-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
	-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 이혼에 대한 태도
	- 재혼에 대한 태도
소득과 소비	- GDP 및 GNP/GNI
	- 1인당 GDP 및 1인당 GNI
	- 국민가처분소득
	- 개인가처분소득
	- 가구당 평균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농가소득
	- 도시·농가의 평균소득 비율
	- 소득 원천별 구성
	- 지역내 총생산(GRDP)

부문명칭	개별지표
	- 1인당 GRDP
	- 지역별 생산구조
	- GDP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 GDP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
	-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 1인당 정부소비지출액
	- 가구당 소비재종류별 지출률
	-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 가구당 소비재 종류별 지출액
	- 가구소득 대비 내구소비재 지출률
	- 가구당 평균소비성향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흑자율
	- 총저축률
	- 민간저축률
	- 정부저축률
	- 국내 총투자율
	- 국외투자율
	- 가계저축률
	- 가구당 금융자산잔고
	- 부채가구 비율
	- 노동소득분배율
	- 영업이익
	- 순간접세
	- 소득 10분위별 분포
	- 소득집중도(지니계수, 소득10분위분배율)
	-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인식
	-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인식
	- 조세부담률
	- 국세부담률
	- 지방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금부담률
	- 비조세부담률
	-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 소득만족도
	- 소비자 물가지수
	- 구매력지수
	- 생활물가지수

부문명칭	개별지표
	- 수입물가지수
	- 공공요금지수
	-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노동	- 실업률
	-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여성 관리직 종사자 비율
	-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성·산업별)
	- 고용형태별 취업자 분포
	· 취업자 중 피용자율
	· 상시 취업률
	·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 외국인고용 현황
	- 장애인고용 현황
	-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
	- 산업별 평균 근속기간
	- 평균정년퇴직 연령
	-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
	-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
	- 산업별 입직률
	- 산업별 이직률
	- 직업훈련자수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수
	- 산업별 실업급여 수급자수
	- 건강진단 수검률
	- 직업병 근로자 비율
	- 산업재해도수율
	- 재해강도율
	- 재해사망률
	- 노동생산성지수
	- 노동조합조직률
	-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부문명칭	개별지표
	- 직업선택요인
	-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여성취업 장애요인
교육	- 성·연령계층별 평균 교육년수
	-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 자녀교육의 목적
	-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
	-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 취학률(유치원 취원률 포함)
	- 진학률
	- 중도탈락률
	-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 인구 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학생현황
	- 교원 현황
	- 교원 1인당 학생수
	- 교원의 평균연령, 평균경력년수
	- 각급학교 교원 세부 현황
	- 교원 이직율
	- 교원 퇴직률
	- 사무직원당 교원수
	- 학급당 학생수
	- 학생 1인당 건물·교지·체육장 면적
	- 학생 1인당 도서실·좌석 및 장서수
	- 컴퓨터 1대당 학생수
	- 교원 1인당 교원용 컴퓨터수
	- 급식실시학교 및 학생비율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예산
	-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
	-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사교육 참여비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문명칭	개별지표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 학업성취 수준
	- 학교 교육의 효과
	- 졸업생 취업률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비행 학생 비율
	- 교육정도별 월평균 임금 수준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교사의 직업 만족도
보건	- 기대여명
	- 건강기대여명(건강수명)
	- 저체중아 출생률
	- 학생(초5, 중2, 고2)의 신장, 체중, 흉위
	- 학생의 비만율(BMI 분포)
	- 성인비만율
	- 정신질환 유병률
	- 치매유병률
	- 1인보유 우식경험 영구치아수(12세아동)
	-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 스트레스 인식정도
	- 2주간 주관적 호소 유병률
	- 1인당 열량 섭취량
	- 1인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섭취량
	- 1인당 쌀 및 육류소비량
	- 음주율 및 고도음주자 비율
	- 1인당 주류소비량(출고량)
	- 흡연을 및 1일 평균 흡연량
	- 규칙적 운동실천율
	- 정상수면율
	- 주산기사망률
	- 자연사산율
	- 영아사망률
	- 신생아사망률
	- 모성사망률
	- 주요사망 원인별 구성비
	-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부문명칭	개별지표
	- 암사망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 주요전염성질환 발생률
	- AIDS 환자수 및 유병률
	- 만성전염병 유병률(결핵, 한센병, B형간염)
	- 만성질환 유병률(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관절염)
	- 암 유병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 자살률
	- 산업재해 사망률
	- 교통사고 사망률
	- 활동제한일수
	- 외병일수
	- 건강검진율
	- 예방접종률
	- 외래수진율(일반, 치과, 한방)
	- 외래건당 내원일수(일반, 치과, 한방)
	- 외래 내원일당 진료일수(일반, 치과, 한방)
	- 병상이용률(일반, 특수병원, 한방)
	- 입원 수진율(일반, 한방)
	- 평균재원일수(일반, 한방)
	- 구급차수 및 보유률
	- 구급차 출장건수
	- 의료인력수 및 1인당 인구수(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수(의사, 간호사)
	- 의료기관수 및 인구10만당 병상수(의료기관종별)
	- 병상수 및 인구수10만당 병상수(의료기관종별)
	- 공공병상 및 공공병상 비율
	- 1인당 국민의료비지출
	-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 공공의료비 지출비율
	- 가구지출 중 의료비지출 비율
	-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 지출비율
	- 정부예산대비 보건 예산 비율
	- 장기이식건수
	- 고가 의료장비수(인구 10만명당)
주거와 교통	- 주택보급률
	- 인구 1천명당 주택수

부문명칭	개별지표
	- 주택투자율
	- 연간 주택건설호수
	- 주택의 유형
	- 공공주택 비중
	- 주택의 노후도
	- 주택규모(호당주택면적, 호당대지면적)
	- 최초 주택마련시 자금조달방법
	- 도시주택가격지수
	- 도시주택전세값지수
	-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비중
	- 주택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
	- 원하는 주택규모
	- 원하는 주택유형
	- 주거점유형태
	- 주택당 거주가구수
	- 현 주택거주년수
	- 최초 주택마련시기
	- 결혼후 내집마련까지의 이사회수
	- 현 거주지 선택이유
	- 거주지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
	- 가구당 주거비 부담
	- 가구당 주거면적
	- 가구당 사용방수
	- 1인당 주거면적
	- 방당 거주인수
	- 상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
	- 입식부엌 시설률
	- 목욕탕 시설률
	- 수세식화장실 시설률
	- 주차장 확보율
	- 가구별 난방방식
	- 편의시설 근접도
	- 교통기반시설규모
	- 교통수단보유규모
	- 건설교통예산
	-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부문명칭	개별지표
	- 자가용승용차보유
	- 통근·통학 교통수단
	- 통근·통학 소요시간
	- 버스·지하철 접근성
	-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 교통문제
	- 도로교통혼잡비용
	- 물류비용
	- 도로교통사고비용
	-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
정보와 통신	- 정보통신연구개발비
	- 통신 기술도입액 및 기술수출액
	-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 정보통신산업 수출
	-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수
	- 인구 천명당 PC보급대수
	- 전화보급률
	- 이동통신, PC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 케이블TV 가입가구
	- 위성방송 가입가구
	- 인터넷 이용자수
	- 인터넷 호스트 및 도메인 수
	- 인터넷 접속방식
	- 전자상거래 규모
	- 최근 6개월내 인터넷쇼핑 경험 및 구매회수
	- 인터넷쇼핑 구매품목
	- 인터넷 상거래 지출액
	- 최근 6개월내 유료콘텐츠 이용경험, 이용종류
	- 컴퓨터 이용시간
	- 컴퓨터 이용목적
	- 휴대전화 이용목적
	- 인터넷 이용목적
	-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록 고객수
	-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
	- 필요정보 입수경로
	- 정보화의 영향

부문명칭	개별지표
환경	- 정보화 격차
	- 해킹, 바이러스 및 스팸메일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폐수발생량
	- 1인당 생활오수 발생량
	- 생활폐기물 발생량(1인 1일)
	- 지정폐기물 발생량
	- 방사선폐기물배출량
	-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비료소비량
	-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농약출하량
	- 유해화학물질 유통량
	- 이산화탄소(CO ₂) 배출량
	- 해양오염 사고현황
	- 상수도보급률
	- 1일 1인당 급수량
	- 지하수 이용현황
	-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 1인당 전력 소비량
	- 농지면적 변화추이
	- 도시화율
	- 산림면적
	- 임목 벌채
	- 대기오염도
	- 주요도시의 오존오염도
	- 수질오염도
	- 해수오염도
	-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 먹는물의 수질현황
	- 상수도 시설과 식수사용 형태
	- 연간 총 어획량
	- 멸종위기 종 비율
	-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 하수도 보급률
	-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소비비중
	- 폐기물 재활용

부문명칭	개별지표
	-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 GDP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 환경오염방지 노력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재생산업 사업체수
	-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활용 실적
	- 환경보호 부담의향
	- 공해배출 부담금 및 징수액
	- 쓰레기봉투 사용시 불편한 점
복지	-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 예산
	-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
	- 기업복지재단수 및 재단출연금
	- 민간부문 모금액
	-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
	- 현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 1인당 건강보험 부담액
	- 1인당 건강보험 급여액
	- 공적연금 가입자
	- 공적연금 수급자
	- 공적연금 평균 급여비
	-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
	- 정부예산 대비 공공부조 예산
	- GDP 대비 공공부조 예산
	- 사회보장 대비 공공부조 예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
	-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 일반 및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액
	- 노숙인수
	- 노숙인 보호시설 수
	- 정부예산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부문명칭	개별지표
	- 사회보장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수
	-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생활인원
	-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종사자수
	- 사회복지관수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수
	- 노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 노인중 복지시설 생활인 비율
	- 노인복지시설별 시설수 및 입소자
	- 65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여부
	-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
	- 65세 이상 인구의 자녀거주 장소
	-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종사상의 지위
	- 65세 이상 인구의 주부양자
	- 노인문제
	- 65세 이상 생활비(용돈) 마련방법
	- 65세 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 65세 이상 여가시간 활동의향
	- 65세 이상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 65세 이상 장래 살고 싶은 곳
	- 모자보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현황
	- 미혼모 보호시설 및 인원
	- 부랑인 생활시설 및 생활인원 현황
	- 자녀양육 실태
	- 소년소녀 가장 가구수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 아동입양기관수 및 입양아 수
	-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 위탁아동 및 보호현황
	- 장애인 등록률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 장애인 출현율
	- 장애인 취업자 비율
	- 장애인중 복지시설 수용자 비율
	- 취업 희망 장애인 비율

부문명칭	개별지표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비율
	- 희망하는 복지혜택
	-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수
문화와 여가	- 국가지정 문화재 수
	- 시·도지정 문화재 수
	- 문화시설 수
	- 도서관 수
	- 도서관 장서 수
	- 도서관 좌석 수
	- 영화관 수
	- 영화 스크린 수
	- 영화관 좌석 수
	- 문화시설 이용률
	- 예술행사 수
	- 영화상영편수
	- 예술행사 관람률
	- 문화예술 교육참여율
	- 도서발행 종수
	- 도서발행 부수
	- 독서인구 비율
	- 신문구독률
	- 신문 관심부문
	- 텔레비전 시청률
	- 텔레비전 선호프로그램
	-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
	- 비디오 시청률
	- 음악 청취율
	- 문화예술 인터넷사이트 이용률
	- 문화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여가활용 방법
	- 여가활용 만족도
	- 평균 여가시간
	- 가구 여가활동 비용
	-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
	-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부문명칭	개별지표
	- 휴양시설 이용률
	- 해외여행 비율
	- 시·도별 체육시설
	- 스포츠경기 관람률
	-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안전	-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 사회 안전(안정)에 대한 의식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 야간 보행시의 안전도
	- 보고된 범죄발생 총건수
	- 보고된 주요범죄발생건수
	- 자동차절도·자동차털이 범죄율
	-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율(10만명당)
	- 가정폭력 발생률
	- 마약류범죄율
	- 외국인에 의한 국내범죄 발생건수
	- 주요범죄별 범죄자 수(인구 10만명당)
	- 주요범죄자 평균연령
	- 주요범죄 재범자 비율
	- 교도소 재소자수(10만명당)
	- 여성 범죄자의 비율
	- 마약류범죄 체포자수
	- 수감되지 않은 각종 법규위반자수
	- 청소년 범죄율
	- 청소년 범죄 피의자 비율
	-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율과 10만명당 피해자수
	-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피해건수와 평균 피해액
	- 공직자 중 공공안전·질서유지 분야종사 공직자의 비율
	- GDP대비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재정지출비율(사법기관별)
	- 경찰력구성(성별, 지위별)
	- GDP 대비 경찰비지출액
	- 경찰관 1인당 인구수
	- 지구대당 순찰차량수
	-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미신고 이유

부문명칭	개별지표
	- 범죄발생부터 범죄자체포까지의 시간별 분포
	-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 주요범죄 재범률
	-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 교도소 수감자 1인당 교도비 지출액
	- 교통사고 발생건수(지수)
	-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000대 당)
	- 고속(화)도로 교통사고
	-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 교통안전시설(도로연장 100Km당)
	- 도로교통사고 원인
	- 화재발생 건수당 사상자수
	- 화재발생 건수당 피해액
	- 소방관 1인당 인구수
	- 소방자동차 1대당 인구수
	- 화재보험 가입건수(1,000가구당)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구속영장 발부율
	- 소송사건처리 건수(인구 10,000명당)
	- 기소로부터 선고까지의 평균일수
	- 유죄선고율
	- 형집행 유예비율
	- 구금자비율
	- 법률구조건수 지수
	-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
정부와 사회참여	- 투표율
	- 정치에 대한 관심
	-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 국회의원중 여성의원의 비율
	- 지방의회의원중 여성의원의 비율
	- 통일에 대한 태도
	- 사회단체 참가율
	- 사회교육 참여율
	-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 후원금, 기부금 제공자비율
	- 노인의 사회활동 참가율

부문명칭	개별지표
	- 종교인구 분포
	- 종교집회 참여도
	- 해외봉사활동 참가자수
	- 해외교포단체 수
	- 사회적이동에 대한 태도
	- 주관적 사회계층의식
	- 공무원수(인구1,000명당)
	- 공무원 부처별 분포
	- 여성고위공무원 비중
	-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
	- GDP대비 기능별예산
	- 정부예산의 구성 : 기능별예산
	- 국민 1인당 기능별 예산비
	-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 조세형평에 대한 태도

C. 장래개발지표

부문명칭	개별지표	비고
인구	- 코호트별 누적 출산율	단기
	- 순재생산율	단기
	- 무자녀 또는 한 자녀 이유	단기
	- 이민에 대한 태도	단기
	- 선호하는 이민지역	단기
가구와 가족	- 총(또는 합계)혼인율	단기
	- 총이혼율	단기
	- 바람직한 노후생활에 대한 인지	장기
	- 노인의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	장기
	-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	장기
	- 어머니 성 쓰기에 대한 태도	단기
	- 현모양처에 대한 태도	장기
	-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단기
	- 독신에 대한 태도	단기
	-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장기
	- 미혼모에 대한 태도	장기
	- 입양에 대한 태도	장기
	-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장기
소득과 소비	- 투자재원자립도	단기
노동	- 주5일제 근무 사업체 비율	단기
교육	-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단기
보건	- 노인의 무치아 인구비율	장기
	- 연간담배판매량	단기
	- 규칙적인 식사 이행률	단기
	- 암 검진율	단기
	- 의약품 소비량	장기
	- 의료보장구 장치전수	단기
주거와 교통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단기
	- 원하는 주거 형태	단기
	- 평균통행회수	단기
	- 자동차 주행속도	장기
	- 교통수단별 만족도	단기
	- 자가용 이용시 교통문제	단기

부문명칭	개별지표	비고
	-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문제	단기
	- 통근 통학 비용	단기
환경	-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장기
	- 지정폐기물 다량배출업소 폐기물 감량	단기
복지	-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	단기
문화와 여가	- 선호하는 음악 장르	단기
	- 게임물 이용률	단기
	- 문화단체 참여율	단기
	-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단기
	- 국내관광여행 비율	단기
	- 국내 관광여행지역	단기
	- 생활체육참여율	단기
안전	- 향후 5년간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	단기
	- 성희롱경험률	단기
	- 공직자의 증·수뢰 경험비율	장기
	-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 발생건수	단기
	- 학교주변 및 교내폭력, 협박의 피해 학생수	단기
	- 청소년 비행 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단기
	- 범죄피해에 대한 예상 (상해, 강도, 강간, 주거침입절도)	단기
	- 자택보안개량의 이유	단기
	- 국민의 검찰 경찰에 대한 이미지	단기
	-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사고당)	단기
	- 피고인의 재판전 평균 구류기간	단기
정부와 사회참여	-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단기
	-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태도	단기
	- 빈부격차에 대한 태도	단기
	-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단기
	- 탈북자에 대한 태도	단기
	- 중앙행정부서에 대한 신뢰도	단기
	-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단기

D. 주관적 지표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구	- 이상자녀수
	- 자녀수에 대한 선호
	- 무자녀 또는 한 자녀 이유
	- 이민에 대한 태도
	- 선호하는 이민지역
가구와 가족	- 이상자녀수
	- 입양에 대한 태도
	- 바람직한 노후생활에 대한 인지
	-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
	-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
	-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 어머니 성 쓰기에 대한 태도
	- 현모양처에 대한 태도
	-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독신에 대한 태도
	-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 이혼에 대한 태도
	- 재혼에 대한 태도
	- 미혼모에 대한 태도
	- 입양에 대한 태도
	-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소득과 소비	-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인식
	-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인식
	-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 소득만족도
노동	- 직업선택요인(성별)
	-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성·직종별)
	-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성·학력·연령별)
	- 여성취업 장애요인(성·연령·직종별)
교육	-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
	-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부문명칭	개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 학교 교육의 효과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 교사의 직업 만족도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 스트레스 인식정도
주거와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 - 원하는 주택규모 - 원하는 주택유형 - 현 거주지 선택이유 - 거주지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 - 원하는 주거형태 -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 교통수단별 만족도 - 자가용 이용시 교통문제 -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문제
정보와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이용목적 - 휴대전화 이용목적 - 인터넷 이용목적 - 필요정보 입수경로 - 정보화의 영향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 환경오염방지 노력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환경보호 부담의향 - 쓰레기봉투 사용시 불편한 점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 -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 - 현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 - 65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여부 - 65세 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부문명칭	개별지표
	- 65세 이상 여가시간 활동의향
	- 65세 이상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 65세 이상 장래 살고 싶은 곳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희망하는 복지혜택
문화와 여가	- 텔레비전 선호프로그램
	-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
	- 선호하는 음악장르
	- 여가활용 방법
	- 여가활용 만족도
	- 여가 활동의 어려운 점
	-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안전	- 향후 5년간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직장, 개인, 가정생활)
	-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 사회 안전(안정)에 대한 의식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 야간 보행시의 안전도
	- 성희롱 경험률
	- 공직자의 증·수뢰 경험비율
	-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 범죄피해에 대한 예상(상해, 강도, 강간, 주거침입절도)
	- 자택보안개량의 이유
	-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미신고 이유
	- 국민의 검찰·경찰에 대한 이미지
	-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정부와 사회참여	- 정치에 대한 관심
	-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 통일에 대한 태도
	-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태도
	- 사회적 이동에 대한 태도
	- 주관적 사회계층의식
	- 빈부격차에 대한 태도
	- 국내체류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
	- 탈북자에 대한 태도

부문명칭	개별지표
	- 중앙행정부서에 대한 신뢰도
	- 전자정부 (E-government) 서비스 만족도
	-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
	- 조세형평에 대한 태도

E. 특정집단별 개별지표

1. 여성관련 개별지표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구	- 총조사인구
	- 외국인 인구
	- 장래추계인구
	- 성 및 연령별 인구
	-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
	- 성 및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 혼인상태별 인구
	- 초혼연령별 인구
	- 시도별 인구
	- 동·읍·면부별 인구
	- 지역별 장래추계인구
	- 성 및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 출생시 성비(전국, 지역 및 출생순위별)
	- 연령별 출산율
	- 합계출산율
	- 코호트별 누적 출산율
	- 순 재생산율
	-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총조사)
	- 연령별 및 인공임신중절을
	-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성, 연령별 사망자수
	- 성, 연령별 사망률
	- 성, 연령별 기대여명
가구와 가족	- 가구의 종류별 분포
	- 일반가구주의 성구성
	- 가족의 세대구성
	- 평균초혼연령 1(센서스)
	- 평균초혼연령 2(동태통계)
	- 조혼인율
	- 총혼인율
	- 이혼연령분포

부문명칭	개별지표
	- 조이혼율
	- 총이혼율
	- 재혼율(또는 재혼비율)
	- 첫 자녀 출산연령
	-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 어머니 성 쓰기에 대한 태도
	- 현모양처에 대한 태도
	- 독신에 대한 태도
	-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 이혼에 대한 태도
	- 재혼에 대한 태도
	- 미혼모에 대한 태도
	- 입양에 대한 태도
	-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소득과 소비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노동	-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 실업률
	-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고용형태별 취업자 분포
	- 외국인고용 현황
	- 장애인고용 현황
	-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
	- 산업별 평균 근속기간
	-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
	-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
	- 산업별 이직률
	-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수
	- 산업별 실업급여 수급자수
	- 직업선택요인
	-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교육	- 성·연령계층별 평균 교육년수
	-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 취학률(유치원 취원률 포함)

부문명칭	개별지표
	- 진학률
	- 중도탈락률
	- 학생현황
	- 교원 현황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 학업성취 수준
	- 졸업생 취업률
보건	- 기대여명
	- 건강기대여명(건강수명)
	- 학생의 비만율(BMI 분포)
	- 성인비만율
	- 음주율 및 고도음주자 비율
	- 흡연율 및 1일 평균 흡연량
	- 모성사망률
	- 주요사망 원인별 구성비
	-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 암사망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 만성전염병 유병률(결핵, 한센병, B형간염)
	- 만성질환 유병률(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관절염)
	- 암 유병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 자살률
복지	-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
	- 현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 공적연금 가입자
	- 공적연금 수급자
	- 공적연금 평균 급여비
	-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 65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여부
	-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
	- 65세 이상 생활비(용돈) 마련방법
	- 65세 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 65세 이상 여가시간 활동의향

부문명칭	개별지표
	- 모자보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현황
	- 미혼모 보호시설 및 인원
문화와 여가	- 텔레비전 시청률
	- 텔레비전 선호프로그램
	-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
	- 여가활용 방법
	- 여가활용 만족도
	- 여가 활동의 어려운 점
	- 평균 여가시간
	-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
	-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안전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 성희롱 경험률
	- 여성 범죄자의 비율
	-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
정부와 사회참여	- 투표율
	- 국회의원중 여성의원의 비율
	- 지방의회의원중 여성의원의 비율
	-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 노인의 사회활동 참가율
	- 종교인구 분포
	- 사회적이동에 대한 태도
	- 주관적 사회계층의식
	- 빈부격차에 대한 태도
	- 여성고위공무원 비중

2. 노인관련 개별지표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구	- 총조사인구
	- 장래추계인구
	- 성 및 연령별 인구
	-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
	- 부양인구비
	- 노령화지수
	- 혼인상태별 인구
	- 성, 연령별 사망자수
	- 성, 연령별 사망률
	- 표준화 사망률
	- 성, 연령별 기대여명
	- 성, 연령별 기대수명
가구와 가족	- 가구의 종류별 분포
	- 조부모 자녀가족 추세
	- 노인 1인가구 추세
	- 비친족가구 거주 노인 추세
	- 노인의 거주가구 형태분포
	- 노인의 연령별 가구생활 차이
	- 바람직한 노후생활에 대한 인지
	-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
소득과 소비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농가소득
	-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 소득만족도
노동	-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 평균정년퇴직 연령
교육	- 성·연령계층별 평균 교육년수
보건	- 기대여명
	- 건강기대여명(건강수명)
	- 치매유병률
	- 노인의 무치아 인구비율
	-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 1인당 열량 섭취량
	- 1인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섭취량

부문명칭	개별지표
	- 1인당 쌀 및 육류소비량
	- 음주율 및 고도음주자 비율
	- 1인당 주류소비량(출고량)
	- 흡연을 및 1일 평균 흡연량
	- 규칙적 식사 이행률
	- 규칙적 운동실천율
	- 정상 수면율
	- 주요사망 원인별 구성비
	-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 암사망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 만성질환 유병률(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관절염)
	- 암 유병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 자살률
	- 건강검진율
	-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 지출비율
주거와 교통	- 주택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
	- 거주지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
복지	-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
	- 현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공적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
	-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종사자수
	-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 노인 중 복지시설 생활인 비율
	- 노인복지시설별 시설수 및 입소자
	- 65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여부
	-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
	- 65세 이상 인구의 자녀거주 장소
	-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종사상의 지위
	- 65세 이상 인구의 주부양자
	- 노인문제
	- 65세 이상 생활비(용돈) 마련방법
	- 65세 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 65세 이상 여가시간 활동의향
	- 65세 이상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부문명칭	개별지표
	- 65세 이상 장래 살고 싶은 곳
문화와 여가	- 예술행사 관람률
	- 신문 구독률
	- 신문 관심부문
	- 텔레비전 시청률
	- 텔레비전 선호프로그램
	-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
	- 문화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여가활용 방법
	- 여가활용 만족도
	- 여가 활동의 어려운 점
	- 평균 여가시간
	-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
	-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안전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 야간 보행시의 안전도
정부와 사회참여	- 투표율
	- 정치에 대한 관심
	-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 통일에 대한 태도
	-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태도
	- 사회단체 참가율
	-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 노인의 사회활동 참가율
	- 종교인구 분포
	- 종교집회 참여도
	- 주관적 사회계층의식

3. 청소년관련 개별지표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구	- 총조사인구
	- 외국인 인구
	- 장래추계인구
	- 성 및 연령별 인구
	- 부양인구비
가구와 가족	- 가구의 종류별 분포
	- 일반 가족의 추세
	- 부와 자녀 가족추세
	- 모와 자녀 가족추세
	- 미성년 가족추세(소녀소년 가족)
	- 비혼동거가족 거주자 추세
	- 청년 1인 가구 추세
	- 미혼청년 1인가구 추세
노동	-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 실업률(
	-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교육	-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
	-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 취학률(유치원 취원률 포함)
	- 진학률
	- 중도탈락률
	-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학생현황
	-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
	- 학생 1인당 건물·교지·체육장 면적
	- 학생 1인당 도서실·좌석 및 장서수
	- 컴퓨터 1대당 학생수
	-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사교육 참여비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 비행 학생 비율

부문명칭	개별지표
보건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기대여명
	- 건강기대여명(건강수명)
	- 학생(초5, 중2, 고2)의 신장, 체중, 흉위
	- 학생의 비만을(BMI 분포)
	-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 스트레스 인식정도
	- 1인당 열량 섭취량
	- 1인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섭취량
	- 1인당 쌀 및 육류소비량
	- 음주율 및 고도음주자 비율
	- 흡연을 및 1일 평균 흡연량
	- 암 유병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주거와 교통	- 통근·통학 교통수단
	- 통근·통학 소요시간
	- 교통문제
	- 통근·통학 비용
	- 통근·통학 비용
정보와 통신	- 이동통신, PC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 인터넷 이용자 수
	- 최근 6개월내 인터넷쇼핑 경험 및 구매회수
	- 인터넷쇼핑 구매품목
	- 인터넷 상거래 지출액
	- 최근 6개월내 유료콘텐츠 이용경험, 이용종류
	- 컴퓨터 이용시간
	- 컴퓨터 이용목적
	- 인터넷 이용목적
	-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
	- 필요정보 입수경로
복지	- 현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생활인원
	-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종사자수
	- 소년소녀 가장 가구수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 아동입양기관수 및 입양아 수
	-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부문명칭	개별지표
	- 위탁아동 및 보호현황
	- 장애인 출현율
	- 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비율
	- 희망하는 복지혜택
문화와 여가	- 도서관 수
	- 도서관 장서 수
	- 도서관 좌석 수
	- 영화관 수
	- 영화 스크린 수
	- 영화관 좌석 수
	- 문화시설 이용률
	- 예술행사 관람률
	- 독서인구 비율
	- 신문 구독률
	- 신문 관심부문
	- 텔레비전 시청률
	- 텔레비전 선호프로그램
	-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
	- 비디오 시청률
	- 음악 청취율
	- 선호하는 음악장르
	- 게임물 이용률
	- 문화예술 인터넷사이트 이용률
	- 문화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문화단체 참여율
	- 여가활용 방법
	- 여가활용 만족도
	- 여가 활동의 어려운 점
	- 평균 여가시간
	-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
안전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 야간 보행시의 안전도
	-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율(10만명당)
	- 청소년 범죄율
	- 청소년 범죄 피의자 비율

부문명칭	개별지표
	- 학교주변 및 교내폭력, 협박의 피해 학생수(학생 1만명당)
	-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 교통사고 발생건수(지수)
	-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사고당)
정부와 사회참여	- 통일에 대한 태도
	-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태도
	- 사회단체 참가율
	-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 주관적 사회계층의식

4. 장애인관련 개별지표

부문명칭	개별지표
노동	- 장애인 고용 현황
	- 직업병 근로자 비율
	- 산업재해도수율
	- 재해강도율
보건	- 건강기대여명(건강수명)
	- 활동제한일수
복지	- 장애인 등록률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 장애인 출현율
	- 장애인 취업자 비율
	- 장애인중 복지시설 수용자 비율
	- 취업 희망 장애인 비율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비율
	- 희망하는 복지혜택
	-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수

F. 국제비교 개별지표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구	- 총조사인구
	- 연앙추계인구
	- 연도별 성장인구 및 인구성장률
	- 자연증가율(조출생율, 조사망률 포함)
	- 장래추계인구
	- 성 및 연령별 인구
	- 국민평균연령(또는 중위연령)
	-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
	- 부양인구비
	- 노령화지수
	- 혼인상태별 인구
	- 도시규모별 인구
	- 합계출산율
	- 성, 연령별 사망률
	- 성, 연령별 기대여명
가구와 가족	- 평균초혼연령 1(센서스)
	- 조혼인율
	- 조이혼율
소득과 소비	- GDP 및 GNP/GNI
	- 1인당 GDP 및 1인당 GNI
	- GDP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 가구당 소비재 종류별 지출액
	- 총 저축률
	- 국내 총투자율
	- 해외투자율
	- 노동소득분배율
	- 소득 10분위별 분포
	- 소득집중도(지니계수, 소득10분위분배율)
	- 조세부담률
	- 비조세부담률
	- 소비자물가지수
노동	- 구매력지수
	-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부문명칭	개별지표
	- 실업률
	-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 고용형태별 취업자 분포
	- 취업자 중 피용자율
	-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교육	- 성·연령계층별 평균 교육년수
	- 취학률(유치원 취원률 포함)
	- 교원 현황
	- 교원 1인당 학생수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예산
	-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보건	- 기대여명
	- 건강기대여명(건강수명)
	- 저체중아 출생률
	- 1인당 열량 섭취량
	- 1인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섭취량
	- 흡연을 및 1일 평균 흡연량
	- 영아사망률
	- 모성사망률
	- 주요사망 원인별 구성비
	- 병상이용률(일반, 특수병원, 한방)
	- 의료인력수 및 1인당 인구수(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 병상수 및 인구10만당 병상수(의료기관종별)
	-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주거와 교통	- 주택보급률
	- 상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
	- 자가용승용차 보유
정보와 통신	- 전화보급률
	- 인터넷 이용자수
환경	- 생활폐기물 발생량(1인 1일)
	- 이산화탄소(CO ₂) 배출량
	- 상수도보급률
	-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 도시화율

부문명칭	개별지표
	- 산림면적
	- 하수도 보급률
	- GDP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복지	-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 정부예산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문화와 여가	- 문화시설 수
	- 도서관 수
	- 도서발행 종수
	- 도서발행 부수
	-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
	- 해외여행 비율
안전	- 주요범죄별 범죄자 수(인구 10만명당)
	- 청소년 범죄율
	- GDP 대비 경찰비지출액
	- 경찰관 1인당 인구수
	-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000대당)
	- 소방관 1인당 인구수
	-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
정부와 사회참여	- 국회의원중 여성의원의 비율
	- 종교인구 분포
	- 공무원수(인구1,000명당)
	- GDP대비 기능별예산

제5장 용어해설 및 산식

1. 인구
2. 가구와 가족
3. 소득과 소비
4. 노동
5. 교육
6. 보건
7. 주거와 교통
8. 정보와 통신
9. 환경
10. 복지
11. 문화와 여가
12. 안전
13. 정부와 사회참여

1. 인구

1-1. 총조사 인구(Census Population)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총조사 인구란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시점(11월 1일 0시)현재의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임(단, 외국인 제외)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2. 연앙추계인구(Estimated Mid-Year Population)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초로하여 총조사시 중복과 누락을 고려하여 실제 성·연령별 인구를 추계하고,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센서스년간에 연도별로 추계한 인구임.
 - 총조사 실시연도의 연앙추계인구가 총조사인구보다 많거나 적은 이유는 총조사 인구의 누락 또는 중복분을 수정·보완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임.
- 산 식 : (조성법) $P1 = P0 + B - D + IM - OM$,
(지수법) $P1 = P0ert$
- 자료원 : 통계청, 『추계인구』

1-3. 연도별 성장인구 및 인구성장률(Population Growth rat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연앙추계인구를 기초로 계산한 연도별 인구간의 성장률을 의미함.
- 산 식 : $r = (P1 / P0) \times k$
단, 총조사인구를 이용한 5년간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계산할 경우,
 $r = (1/5) \times \ln(P1 / P0)$
- 자료원 : 통계청, 『연앙추계인구』, 『총조사인구』

1-4. 자연증가율(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Natural Increase rate, Crude Birth Rate, Crude Death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인구의 이동요인을 제외할 때, 출생과 사망의 차이를 자연증가라 하고, 자연증가율은 총인구에 대한 자연증가인구의 비율임. 그러므로 자연증가율은 조출생율과 조사망률의 차이로 표시할 수 있음.
 - 조출생률은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 조사망률은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 총사망자 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 산 식 : 자연증가율= 조출생률 - 조사망률
 조출생률= (연간출생아수/ 총인구)×1,000
 조사망률= (연간사망자수/ 총인구)×1,000
- 자료원 :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1-5. 외국인 인구(Population of Foreigner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 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임.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법무부 『외국인 등록인구통계』

1-6. 장래추계인구(Projected Population)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초로 장래인구의 동태율(출생·사망·이동률)을 감안하여 추계한 인구로 연도별 7월 1일 현재 인구임.
- 산 식 : $P_1 = P_0 + B - D + IM - OM$ (조성법)
- 자료원 :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1-7. 장래인구성장률(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 (Projected Population Growth Rat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장래추계인구의 해당연도 인구성장율임. 장래추계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이인 자연증가율과 순이민율의 합임.

· 장래추계인구의 해당연도 인구성장률이나 연도별 장래추계인구기간(5년 또는 10년 단위)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음. 인구성장률은 자연증가율에 이민에 의한 영향(이민율)을 합한 개념임.

- 산 식 : 조출생률 - 조사망률 + 순이민율

연도별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계산할 때에는 '연평균성장률'의 산식을 이용함.

- 자료원 :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1-8. 성 및 연령별 인구(Population by Sex and Ag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총조사인구 또는 연앙추계인구의 성·연령별 인구이며, 연령별로 여자 100명 당 남자수인 성비와 총인구에 대한 성·연령별 인구구성비를 계산함.

- 산 식 : (연령별 인구 / 총인구) × 100

연령별 성비 = $(P_{mi} / P_{fi})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연앙인구추계』

1-9. 국민평균연령(또는 중위연령)(Average Age or Median Age of Total Population)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총인구의 산술평균연령을 계산할 수 있으며, 중위연령으로 국민 평균연령을 대신하기도 함.

- 산 식 : 평균연령 = 총인구의 총연령 / 총인구수

중위연령 = $l_{md} + \{[(N/2) - \sum f_i] / f_{md}\} \times i$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추계인구』

1-10.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Aged Population by Sex and Ag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분리한 성 및 연령별 인구로 고령인구분포를 파악
- 산 식 :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구성비를 계산
- 자료원 :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1-11. 성 및 연령별 생산연령인구(Population Aged 15 to 64 Years by Sex and Ag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성 및 연령별로 분류하여 이 인구의 고령화를 측정.
- 산 식 : 15-64세 인구를 성별로 15-24, 25-44, 45-64세로 분류하고 구성비를 계산
- 자료원 :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1-12. 부양인구비 (Dependency Ratio)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 총인구(연앙추계인구)중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비생산 연령층 인구(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의 백분율로서 생산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 유소년부양인구비와 노년부양인구비로 나눌 수 있고, 두 부양인구비의 합을 총부양인구비라고 함.
 - 일반적으로 부양비가 늘어나면 저축능력이 감소되고 부양비가 줄어들면 저축능력이 향상됨.
- 산 식 : 유소년부양비= $P_{0\sim14} / P_{15\sim64}$
 노년부양비= $P_{65+} / P_{15\sim64}$
 총 부양비= $(P_{0\sim14} + P_{65+}) / P_{15\sim64}$
- 자료원 :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1-13. 노령화지수 (Ageing Index)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유소년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동 지수가 증가할 때 이러한 현상을 '인구의 노령화'라 하며 '인구의 연소화'에 대한 상대적 개념임.
- 산 식 : $P65+ / P0\sim14$
- 자료원 :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1-14. 혼인상태별 인구(Population by Marital Statu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혼인상태별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성·연령별 인구에서 혼인상태별 인구의 구성비를 계산함. 혼인상태는 4가지(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로 구분함.
- 산 식 : $(\text{혼인상태별인구} / \text{성·연령별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15. 초혼연령별 인구(Population by Age at First Marriag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기혼자의 경우 성·연령별 인구에 대한 초혼연령별 인구구성비임.
 - 초혼연령을 6구간(-19, 20~23, 24~26, 27~29, 30-33, 34+)으로 구분하였음.
- 산 식 : $(\text{초혼연령별인구} / \text{성·연령별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16. 시도별 인구밀도 (Population Density by Region, 7 Big Cities and 9 Province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16개 시도의 평방 Km당 인구밀도를 말함.
- 산 식 : $\text{시도별인구} / \text{시도별면적(Km}^2\text{)}$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

1-17. 시도별 인구(Population by Region, 7 Big Cities and 9 Province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와 9개 도의 인구를 말함.
시도별 인구구성비를 포함함.
- 산 식 : $(\text{시도별인구} / \text{전국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

1-18. 동·읍·면부별 인구(Population by Region, Dongs, Eups and Myun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행정구역상의 동부, 읍부, 면부별 인구를 말함. 광역시에 포함된 읍과 면도 읍부와 면부로 분류함. 동·읍·면부별 인구구성비를 포함함.
- 산 식 : $(\text{동·읍·면부별 인구} / \text{전국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

1-19. 지역별 장래추계인구(Regional Projected Population by Region, 7 Big Cities and 9 Province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16개 시도의 성 및 연령별 장래추계인구임. 전국인구에 대한 지역별 인구의 구성비를 포함함.
- 산 식 : 조성법에 의한 추계임.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1-20. 도시규모별 인구(Total Population by Population Size of City)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인구규모별 해당도시의 총인구와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임. 도시규모를 4 구간(-20 미만, 20~50, 50~100, 100+ :만명)으로 구분하였음.

- 산 식 : 해당도시 총인구의 구성비 = (해당도시 총인구 / 전국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국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민등록인구』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

1-21. 수도권 인구(구성비)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함.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 인구 구성비를 포함함.

- 산 식 : (수도권인구 / 전국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

1-22. 도시인구성장의 요인(출생, 사망, 이동) (Determinants of City Population Growth)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도시인구의 성장은 출생·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와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로 구분됨. 수도권 인구성장의 요인을 포함함.

- 산 식 : 도시인구성장 = 자연증가(PB-PD) + 순인구이동(전입자수-전출자수)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

1-23. 성 및 출생순위별 출생아수(Number of Births by Sex and Birth Order)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출생아수 통계이며, 출생부문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지표임. 성 및 출생순위별 출생아수의 구성비를 포함함.

- 산 식 : 성 및 출생순위별로 출생아수를 집계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1-24. 출생시 성비(전국, 지역 및 출생순위별) (Sex Ratio at Birth)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로 표시되며 출생아의 성비를 출생시 성비라고 함. 출생시 성비는 지역별 문화나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지역 및 출생순위별 성비를 포함함.
- 산 식 : $\text{성비} = (\text{Pm} / \text{Pf}) \times 100$
출생시 성비 = $(\text{Bm} / \text{Bf})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1-25. 연령별 출산율 (Age Specific Fertility Rate, ASFRi)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15~49세의 가임연령인구의 연령별 출산율임. 연령층별로 여성 1인당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추정하는 지표임. 20대 후반이 가장 높고 그 후 감소하여 50세를 전후로 0이 되며, 결혼연령, 연령별 유배우율, 연령별 피임실천율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산 식 : $(\text{출생아수} / \text{연령별여자인구}) \times 1,000 = (\text{Bi} / \text{Pfi}) \times 1,0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1-26. 합계 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로서 한 사회의 출산수준은 타 사회와 비교할 때 단일 지표인 합계출산율을 산출함. 일반적으로 한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이 앞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로 정의됨. 기간 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이라고도 함.
- 산 식 : $5 \times \sum \text{ASFRi}$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1-27. 코호트별 누적출산율 (Cohort Cumulative Fertility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여자의 출생코호트(특정 연도에 출생한 집단)별로 전 가임기간(15~49세)에 출산한 평균 총 출생아수를 말함.
- 산 식 : $\text{누적출산율(TFR)} = 5 \times \sum \text{ASFR}_i$
단, 연령별 출산율은 동일 코호트의 출산율임.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1-28. 순재생산율 (Net Reproductive Rate, NRR)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합계출산율에서 여아에 대한 출산율을 계산하고, 다시 여아출산시 어머니의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여아의 수를 말함. 순재생산율이 1명일 때 장래인구는 정지상태에 접근하게 되고, 1명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장래인구는 각각 증가나 감소하게 됨.
- 산 식 : $n \sum \{ \text{연령별 출산율} \times (100 / 205) \times \text{SRf}_{0 \rightarrow i} \}$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29.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총조사) (Children Ever Born per Ever Married Women)

- 지표작성주기 : 3~5년
- 정 의 : 조사당시 기혼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를 말함. 기혼부인의 연령별 및 교육정도별 출생아수를 별도로 산출할 수 있음.
- 산 식 : $\text{총출생아수} / \text{기혼부인수}$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30.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Induced Abortion Rate by Ag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은 가임연령기의 5세 계급별 여자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건수로 표시.
- 산 식 : $\text{연령별중절률} = (\text{연령별인공임신중절건수} / \text{연령별여자인구}) \times 1,0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31.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Induced Abortion Experience Rate by Ag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15세 이상 연령계급별 여자인구에 대한 인공임신중절경험이 있는 여자수의 비율을 의미함.
- 산 식 : $(\text{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수} / \text{연령별 여자인구}) \times 1,0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32. 이상자녀수 (Ideal Number of Childre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은 출산력수준, 피임실천양상,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연결되는 근원적 태도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음.
 - 이상자녀수는 현존자녀수와 관계없이 몇명의 자녀를 두면 이상적인가의 주관적 자녀수로서 자녀규모에 대한 가치관의 한 척도임.
 - 이상자녀수는 전국 15~44세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기본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임.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33. 자녀에 대한 선호 (Consciousness on Number of Childre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15세 이상 여자의 가족규모에 대한 의식을 질문을 통하여 파악함. 이것은 장래자녀수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표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34. 무자녀 또는 한 자녀 이유(Reasons for Non or One Child)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15세 이상 여자 중 무자녀 또는 한 자녀를 원할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함. 장래 자녀수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표임. “결혼하지 않음”, “직장관계”, “양육 등 경제적 이유”, “건강상의 이유”, “기타”로 조사 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35. 교육정도별 출산율의 비 (Fertility Ratio by Educational Level)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여성의 연령별 교육정도별 출산력의 차이를 측정하여 출산대책에 활용. 교육정도를 무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이상 등 5개로 분류함.
- 산 식 : 연령별 출산수준(조출생율)을 기준으로 특성별 상대적 출산수준을 측정.
 $(\text{교육정도별 조출생율} / \text{특정연령의 평균조출생율}) *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

1-36. 거주지역별 출산율의 비 (Fertility Ratio by Residential Area)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여성의 거주지역별 출산력의 차이를 측정하여 출산대책에 활용. 거주지역을 “면부, 읍부, 동부”와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읍부, 면부”로 분류함.
- 산 식 : 연령별 출산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특성별 상대적 출산수준을 측정.
 $(\text{혼인상태별 조출생율} / \text{특정연령의 평균조출생율}) *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

1-37. 성 및 연령별 사망자수 (Deaths by Sex and Ag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사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임.
- 산 식 : 성 및 연령별로 사망자수를 집계.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1-38. 성 및 연령별 사망률 (Age Specific Death Rate by Sex, ASDR)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성·연령별 인구 1,000명당 연간 사망자수로 표시함. 연령을 5세 계급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5세 미만에서는 0세(영아)와 1~4세(유아)로 구분함.
- 산 식 : 연령별 사망률 = (연령별 사망자수 / 연령별 인구) × 1,000

$$ASDR_i = (D_i / P_i) \times 1,000$$
- 자료원 : 통계청, 『추계인구』, 『주민등록인구』, 『인구동태통계』

1-39. 표준화 사망률 (Standardized Death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조사망률은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차이에 영향을 받으므로 서로 다른 인구나 서로 다른 시기의 조사망률을 직접 비교할 수 없음. 그러므로 표준인구 또는 표준연령별 사망률을 서로 다른 인구나 시기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사망수준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함.
- 산 식 : 직접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며, 2000년 연령별 추계인구를 표준인구로 함.
- 자료원 :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동태통계』

1-40.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t Age x by Sex)

- 지표작성주기 : 2년
- 정 의 :
 - 어떤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함. 출생시의 기대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 함.
 - 연령별 기대여명의 변화로 연령별 사망수준을 예측할 수 있음.

- 산 식 : 생명표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이용함.
- 자료원 : 통계청, 『생명표』

1-41. 지역별 전입·전출인구(순이동 포함) (Internal Migration by Region)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지역(시도, 동부·읍면부)별 전입자와 전출자 통계를 작성함. 전출자와 전입자의 차이가 순이동이 됨. 또한 총전입자수에 대한 지역별 전입 또는 전출자의 구성비를 계산함.
- 산 식 : 순이동자수 = 전입자수 - 전출자수

$$\text{지역별 전입자수 구성비} = (\text{지역별 전입자수} / \text{총전입자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이동통계』

1-42. 지역별 순인구이동률 (Net Internal Migration Rate by Area)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지역별 국내 순인구이동률로 전입률과 전출률의 차로 표시됨. 지역은 시·도와 동부 및 읍·면부로 구분함.
- 산 식 : 전입률 = $(\text{지역별 전입자수} / \text{지역별 인구}) \times 100$

$$\text{전출률} = (\text{지역별 전출자수} / \text{지역별 인구}) \times 100$$

$$\text{순인구이동률} = \text{전입률} - \text{전출률}$$

$$\text{NMR}_i = \{(\text{IM}_i - \text{OM}_i) / \text{P}_i\}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이동통계』

1-43. 지난 1년간 이주 원인별 구성비 (Proportion by Internal Migration by Reason in Last 1 Year)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지난 1년간 이주한 사람들의 이주원인을 조사하여 그 원인별 구성비를 계산함. 응답범주는 직장을 얻어서, 새집을 장만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자녀 교육목적으로, 가족재결합을 목적으로, 기타 등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44. 지역별 국제인구이동(내국인 및 외국인) (International Migration by Reg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자를 국제인구이동으로 하고, 내국인과 외국인별로 집계함.
 - 주요 국가별 국제인구이동자수를 집계함. 총 국제인구이동자수에 대한 국가별 구성비를 계산함.
- 산 식 : 국가별출국자구성비 = $(\text{국가별출국자수} / \text{총출국자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통계』

1-45. 해외이주 및 귀국허가 현황 (Declarers for Emigration and Immigr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주거목적으로 이주한 이민자수를 집계함. 지역(국가)별 이민자수의 구성비를 계산함.
- 산 식 : 국가별 이주허가자 구성비 = $(\text{국가별이주허가자수} / \text{총이주허가자수}) \times 100$
- 자료원 : 외교통상부, 『해외이주허가통계』

1-46. 이민에 대한 태도 (Attitude on and Preference Region for Emigra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이민에 대한 예측을 위하여 이민에 대한 개인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이민을 원할 경우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요즈음 해외로 이민가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달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외 이민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외국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등의 응답범주로 조사될 수 있음.
 - '이민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돈을 잘 벌 수 있다, 국내가 불안하여 외국으로 피하고 싶다,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

다,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 기타 등의 응답범주가 있음.

- '이민의사가 있다면 어느 지역(국가)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서유럽, 일본, 기타 등의 응답범주가 있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47. 선호하는 이민지역 (Attitude on and Preference Region for Emigra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이민에 대한 예측을 위하여 이민에 대한 개인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이민을 원할 경우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요즈음 해외로 이민가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달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외 이민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외국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등의 응답범주로 조사될 수 있음.

- '이민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돈을 잘 벌 수 있다, 국내가 불안하여 외국으로 피하고 싶다,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 기타 등의 응답범주가 있음.

- '이민의사가 있다면 어느 지역(국가)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서유럽, 일본, 기타 등의 응답범주가 있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48. 지역별 주간인구 (Daytime Population by Region)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대도시권의 통근통학인구를 출발지와 목적지에 가감함으로써 상주지와 목적지의 인구변화를 계산할 수 있음. 지역은 대도시권의 구, 시 및 군으로 분류 함.

- 산 식 : 주간인구 = 상주인구 - 이출인구(나가는 통근통학인구)

+ 이입인구(들어오는 통근통학인구)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가구와 가족

2-1. 가구의 종류별 분포(Distribution of household types)

2-2. 인구의 거주 가구종류별 분포(Distribution of H. members by H. typ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 일반가구

- 통상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친족가구)
-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5인이하 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1인가구)
*부부, 양자, 양부는 혈연관계가 아님.

□ 집단가구

- 집단시설가구 : 기숙사, 고아원, 양노원, 모자원, 특수병원 등의 사회시설내에서 생활하는 가구
- 비혈연[친족?] 6인이상 가구 : 혈연[가족?]관계가 없는 6인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주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3. 가구종류별 가구원수 분포와 평균가구원수(Average No. of H. members by H. typ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가구형태를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고, 이를 평균가구원수와 함께 제시함

- 산 식 : $\text{평균가구원수} = \text{총가구원수} / \text{총일반가구수}$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4. 일반가구주의 성구성(Head of ordinary H. by sex)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성구성은 남성가구주 비율 또는 여성가구주 비율 사용. 가구형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5. 일반가구주의 연령구성(Head of ordinary H. by ag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연령구성은 15세 미만, 다음 5세간격으로 20세에서 69세까지, 70세 이상으로 함. 가구형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 2-4와 2-5 한 표로 통합제시 가능.

2-6. 가족의 세대구성(Generational composition of the family)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 여기서 가족은 친족(혈연)가구를 지칭함. 이는 일반가구에서 집단가구(집단시설가구, 비혈연 6인이상 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가리킴. 여기서는 외국인가구도 제외됨. 세대는 혈연관계의 관념에 입각한 가족원 사이의 수직적인 거리를 뜻함.
 - 가족의 세대구성
 - 가족구성형태는 국민의 가족생활의 한 측면과 그 변화추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1세대가족 :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기타 친척

2세대가족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① 부부+자녀 ② 편부모+자녀 ③ 부부+양친 ④ 부부+편부모
 ⑤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⑥ 부부+손자·손녀
 ⑦ 편조부모+손자·손녀 ⑧ 기타

(부부+편부모+부부 또는 편부모의 형제자매/

부부+양친+부부 또는 양친의 형제자매/

부모+자녀+편부모의 형제자매/ 조부모+손자·손녀)

3세대가족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① 부부+자녀+양친(또는 편친)

② 양친(또는 편부모)+부부+자녀+부부 또는 양친의 형제자매

4세대가족 : 가구주와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이상에 걸쳐 사는 가구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7. 가족의 종류별 분포(Distribution of family type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과 직계가족, 기타 가족으로 나눔.

• 핵 가족 : 부부만의 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 직계가족 : 부부와 부모(양친또는 편친)로 구성된 가족, 부부와 부모(양친 또는 편친), 자녀로 구성된 가족

• 기타가족 : 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8. 인구의 거주 가족종류별 분포(Distribution of F. members by F. typ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가족의 형태를 핵가족과 직계가족, 기타 가족의 형태로 나누어 각 형태별로 거주하는 인구의 분포를 파악함.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9. 가족종류별 평균가구원수(Average of F. members by F. typ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가족의 종류별로 평균가구원수를 파악함.
- 산 식 : $\text{평균가구원수} = \text{총가구원수} / \text{총가족(구)수}$
 * 가구원수에는 동거하는 비 가족성원 도 포함됨.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10. 일반가족의 성원구성별 추세(Trends of ordinary families by their member composition)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일반가족의 성원구성형태는 부부만의 가족(Couple only families), 부부와 자녀 가족(Families with couple & children), 부와 자녀 가족(Families with father & children), 모와 자녀 가족(Families with mother & children), 조부모 자녀가족(Families with grandparents & children)으로 나누어 파악함.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11. 특별가족추세(Trends of selective families by their member composition)

- 지표작성주기 : 5년 또는 3년
- 정 의 : 여기서 다루는 특별가족에는 미성년 가족(소년소녀 가족)(Children only families), 미혼모 가족(Families with unwed mother & children), 양자 가족(Families with adopted children), 분산가족(ispersed families), 비혼동거가족(Living-together families)이 포함됨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또는 『사회통계조사』

2-12. 평균초혼연령 1(센서스)(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15세 이상 인구의 매세 또는 5세 미혼인구비율에서 헤이날 방법(Hajnal-

method)으로 계산한 것으로 인구의 연령구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임,
상식적 개념의 평균초혼연령과 구분됨.

- 산 식 : Hajnal method

15세 ~ 19세 미혼인구비 A%

20세 ~ 24세 미혼인구비 B%

:

45세 ~ 49세 미혼인구비 G%

50세 ~ 54세 미혼인구비 H%

$I = \sum(A\% + B\% + \dots + G\% + H\%)$, $I \times 5 = J$, $J + 1500 = K$

45~49세, 50~54세 미혼인구비의 평균(L)

$L = (G + H)/2$, $L \times 50 = M$, $K - M = N$, $100 - L = P$

평균초혼연령 = N/P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13. 평균초혼연령 2(동태통계)(Average age at first marriag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또는 5년

- 정 의 : 혼인의 호적신고에 의한 인구동태통계를 사용하여 초혼의 평균연령 산출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14.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또는 5년

- 정 의 :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산 식 : 조혼인율 = $(\text{연간 결혼건수} / \text{연앙인구}) \times 1,0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2-15. 총(또는 합계)혼인율(Total marriage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또는 5년
- 정 의 : 현재의 연령별 혼인확률을 따른다면 한 개인이 평생 혼인할 확률을 뜻함.
인구구성과 상황에 관계없이 혼인에 대한 시기별 추세의 비교가 가능
- 산 식 : 연령별 혼인확률=연령집단 i에서 발생한 1년간 혼인자수/i 연령집단의
중간시점에서의 인구. 연령은 15세에서 59세까지로 함.
혼인은 초혼에 한함.
$$\text{총혼인률} = \sum (\text{연령집단별 혼인확률} \times \text{연령집단의 간격})$$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2-16. 이혼연령분포(Age distribution of the divorce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또는 5년
- 정 의 : 이혼의 호적신고에 의한 인구동태통계를 사용하여 연령 분포를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17. 평균이혼연령(Average age at divorc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또는 5년
- 정 의 : 이혼의 호적신고에 의한 인구동태통계를 사용하여 그 평균연령을 파악
- 산 식 : 이혼연령(이혼 연월일-출생 연월일)의 총합/ 이혼자수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18.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또는 5년 또는 5년
- 정 의 :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
로 나타낸 것
- 산 식 : 이혼율= (연간 이혼건수/ 연앙인구)×1,0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2-19. 총이혼율(Total divorce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또는 5년
- 정 의 : 현재의 연령별 이혼확률을 따른다면 한 개인이 평생 이혼할 확률을 뜻함.
인구구성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혼에 대한 시기별 추세의 비교가 가능
- 산 식 : 연령집단별 이혼확률= i 연령집단에서 발생한 1년간 이혼자수/ i 연령집단의 중간시점에서의 인구 연령은 15세에서 59세까지로 함.
총이혼률= $\Sigma(\text{연령집단별 이혼확률} \times \text{연령집단의 간격})$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2-20. 재혼형태분포(Type of remarriag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또는 5년
- 정 의 : 재혼의 형태를 초혼(남)-재혼(여) 재혼(남)-초혼(여) 재혼(남)-재혼(여)으로 구분하여 그 추세를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21 재혼율(또는 재혼비율)(Remarriage rate (or proportion of remarriag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또는 5년
- 정 의 : 1년간 발생한 총 재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총 혼인건수로 나눈 수치를 백분비로 나타낸 것
- 산 식 : 재혼(비)율= (연간 재혼건수/ 연간 혼인건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22 첫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Women's mean age of first birth)

- 지표작성주기 : 매년 또는 5년
- 산 식 : 첫 자녀 출산연령=첫 자녀의 출생 연월일-모의 출생 연월일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23. 첫 자녀 출산비율(Proportion of first birth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또는 5년
- 산 식 : 첫자녀 출산수 / 전체 출산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24. 이상자녀수(Ideal family siz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전국 15~44세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로 이상자녀규모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25. 입양추세(Trend of child adop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또는 3년
- 정 의 : 국내외 입양, 입양자의 연령분포 등 입양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자료원 : 보건복지부

2-26. 1인가구 거주자 추세(Trend of one-person household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단독으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인구의 추세를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27. 비친족가구 거주자 추세(Trend of persons living in non-relative household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친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주거생활을 하는 인구의 추세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28. 비혼동거가족 거주자 추세(Trend of persons unwed living together)

- 지표작성주기 : 5년 또는 3년
- 정 의 :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는 가족의 추세 파악은 결혼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또는 『사회통계조사』, 여성개발연구원, 『가족조사』

2-29. 시설가구 거주자 추세(Trend of person living in institutional household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집단시설 등 시설가구 거주자의 추세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30. 청년 1인 가구 추세(Trend of one-person single youth household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청년 혼자 거주하는 가구의 추세를 미혼청년 1인가구(one-person single youth households), 기혼청년 1인가구(one-person married youth households)로 구분하여 파악. 연령은 15세에서 35세까지로 하고 연령간격은 5세로 함.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31. 노인 1인가구 추세(Trend of one-person elderly household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 추세를 파악.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하고 연령간격은 84세까지는 5세 이후는 85+로 함.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32. 비친족가구 거주 노인 추세(Trend of the elderly living in non-relative household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비친족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추세를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33. 노인의 거주가구 형태분포(Type of household of the elderly)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노인 개개인의 거주가구별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로 거주가구형태는 1인가구, 친족가구 (부부가구, 기혼자녀 동거, 기타 친족가구), 비친족 및 시설가구 (비친족가구, 시설가구, 기타)로 구분함.
노인의 삶의 양식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지표로 노인문제의 전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34. 노인의 연령별 가구생활(Residential pattern of the elderly by ag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노인의 연령별로 가구생활의 차이를 파악. 가구는 1인가구, 친족가구, 기타로, 연령집단은 65-74, 75-84, 85+로 단순화함.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35. 주 생계지원 형태(Primary measure of economic suppor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주 생계수단이 되는 지원형태별로 구분하여 그 추세를 파악
 - 생계지원 형태는 일·직업, 부동산집세, 저축·증권의 이익배당, 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보조, 동거자녀로부터의 보조, 기타 친척으로부터의 보조, 국가보조, 단체로부터의 보조 등임.
 - 설 문: (65세 이상 자에 한함) 님께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항목들 가운데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36. 부차 생계지원 형태(Secondary measure of economic suppor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부 생계수단이 되는 지원형태별로 구분하여 그 추세를 파악
 - 생계지원 형태는 일·직업, 부동산집세, 저축·증권의 이익배당, 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보조, 동거자녀로부터의 보조, 기타 친척으로부터의 보조, 국가보조, 단체로부터의 보조 등임.
- 설 문 : 2-35에 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37. 바람직한 노후생활에 대한 인지(Perceptions on desired elderly lif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노후의 바람직한 생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형태를 파악
 - 자녀와 함께 산다. 자녀와 따로 산다. 양노원에서 지낸다. 기타
 - 설 문 : 댁에서는 노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38.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Most serious problems felt by the elderl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
 -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경제문제, 직업문제,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의 푸대접, 경노의식 약화, 여가활용문제, 복지문제, 자녀문제, 결혼문제 등임.
 - 설 문 : (65세 이상 노인에 한함) 오늘날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39. 노후 생활에 대한 전망(Prospects of the elderly on the futur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노후에 예상되는 생활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
 - 전망은, 매우 여유로울 것이다, 여유로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 등임.
 - 설 문 :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함) 댁에서는 앞으로의 생활이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40.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son preferenc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가계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남아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조사함.
 - 태도는, 꼭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갖는 것이 좋다, 없어도 별로 상관없다, 없어도 전혀 상관없다. 등
 - 설 문 :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댁에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41. 어머니 성 쓰기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the adoption of mother's family nam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지금까지의 부의 성 사용에서, 모의 성을 쓰는 것에 대한 태도를 파악
 - 태도에 대한 응답은 모든 경우에 찬성한다, 경우에 따라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등임.
 - 설 문 : 요즘에는 자녀에게 아버지 성 대신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댁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42. 현모양처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the image of "wise mother-good wif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현모양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파악
 - 태도에 대한 응답은 매우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등임.
 - 설 문 : 과거 우리나라 여성의 이상형은 “현모양처”였습니다. 댁에서는 이것이 현대여성에게도 여전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43.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the responsibility of child rearing in divorce or remarriag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파악
 - 태도는 부가 책임진다, 모가 책임진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제3자에 맡긴다. 등임
 - 설 문 : 이혼이나 재혼을 하는 사람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댁에서는 누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맡아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44. 독신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celibac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파악
 - 태도는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등임.
 - 설 문 : 다음의 항목 각각에 대해 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a) 평생 독신으로 지낸다: 남자
 (1-b) " " : 여자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45.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marriag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우리나라의 사람이 아닌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사고를 파악
 - 태도는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등임.
 - 설 문 : 2-44의 연속
 - (2-a) 국제결혼을 한다 : 남자
 - (2-b) " : 여자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46. 이혼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divorc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지표로, 자녀가 없을 때, 어린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모두 성장했을 때로 나누어 조사함.
 - 태도는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등임.
 - 설 문 : 2-44의 연속
 - (3-a) 이혼을 한다 : 자녀가 없을 때
 - (3-b) " : 자녀가 어릴 때
 - (3-c) " : 자녀가 모두 성장했을 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47. 재혼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remarriag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재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지표로, 자녀가 없을 때, 어린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모두 성장했을 때로 나누어 조사함.
 - 태도는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등임.
 - 설 문 : 2-44의 연속
 - (4-a) 여자가 재혼을 한다 : 자녀가 없을 때
 - (4-b) " : 자녀가 어릴 때
 - (4-c) " : 자녀가 모두 성장했을 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48. 미혼모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unwed mother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은 여성을 보는 시각을 파악
 - 태도는 문제가 매우 많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등
 - 설 문 : 댁에서는 미혼녀가 아기를 낳아 키우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49. 입양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child adop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입양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파악
 - 태도는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등임.
 - 설 문 : 2-44의 연속
 - (5-a) 자녀 입양 : 자녀가 없을 때
 - (5-b) " : 딸만 있을 때
 - (5-c) " : 아들이 있을 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50.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consensual living together)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것에 대한 태도의 변화 추세를 파악
 - 태도는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등임.
 - 설 문 : 2-44의 연속
 - (6-a)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 혼인 전제
 - (6-b) " : 비혼인 전제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 소득과 소비

3-1. GDP 및 GNP/GNI(Gross domestic product and Gross national Product/Gross national incom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GNP/GNI는 한 나라의 가계·기업·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주로 1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서,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지표임.

• GDP는 적용가격에 따라 경상 GDP와 불변 GDP로 구분됨. 경상 GDP는 각년도의 생산물에 그 해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불변 GDP는 각년도의 생산물에 기준년도의 가격(불변가격)을 곱하여 산출함.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의 GDP를 추계하는 까닭은 국민경제의 구조나 국민소득 구성요소의 변동 등을 분석하는데는 경상 GDP가 더 유용하고, 국민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데는 불변 GDP가 더 유용하기 때문임.

• GDP는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의 총계를 의미하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라고도 불리는데, 국민총생산(GNP)은 국내총생산(GDP)에 대외순수취요소소득(대외수취요소소득 - 대외지급요소소득)을 더한 것임.

• 1993년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로의 이행을 위한 국민계정의 개편에 따라 GNP 대신 GNI가 더 널리 쓰이게 됨

- 산 식 : $GNP = GDP + \text{대외순수취요소소득}$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2. 1인당 GDP 및 1인당 GNI (GDP & GNI per capita)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GNI (또는 GDP)를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눈 값이 원화로 표시한 1인당

GNI (또는 1인당 GDP, 원화표시)이고, 이를 다시 대미 달러화 환율로 나누면 달러화로 표시된 1인당 GNI (또는 1인당 GNP, 달러화 표시)가 됨. 국내 물가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1인당 GNI 그 자체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일반적인 생활수준이나 복지수준의 국제간 비교에 주로 쓰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환율은 평균 대미공정환율(한국은행 집중기준율)임.

- 산 식 : $1인당GNI(원화표시) = 경상GNI(원화표시)/연앙인구$
 $1인당GNI(달러화표시) = 1인당GNI(원화표시)/평균환율$
 $1인당GDP(원화표시) = 경상GDP(원화표시)/연앙인구$
 $1인당GDP(달러화표시) = 1인당GDP(원화표시)/평균환율$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3. 국민가처분소득 (National disposable incom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말함.
- 산 식 : 국민가처분소득 = 국민총생산 - 고정자본소모 + 대외순수취경상이전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4. 개인가처분소득 (Personal disposable incom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개인이 임의로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국민소득을 분배면에서 볼 때 제도부문별 분류 중 개인부문의 가처분소득이 여기에 해당됨. 개인소득(PI)에서 직접세(소득세 등)와 기타 경상이전지급(교포에 대한 송금 등)을 공제한 것이 개인가처분소득임. 이 개인가처분소득은 국민소득을 분배측면에서 본 지표이며 소비와 저축결정에 널리 이용됨.
- 산 식 : 개인가처분소득 = 개인소득 - 직접세 - 경상이전지급
 - 개인소득이란 좁은의미의 국민소득(요소비용 국민소득)에서 개인에게 지급되

지 않는 부분인 법인소득과 일반정부의 재산소득을 공제하고 정부의 사회보장비와 대외수취경상이전과 같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부분을 합한 것을 말함.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5. 가구당 평균소득 (Household distribution by monthly income grou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총소득을 가구수로 나눈 값임.
 - 가구주가 도시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말하며, 비정기적인 소득(퇴직금, 연금일시금과 복권, 경품권 등에 의한 상금 등)은 실제로 가계지출에 충당된 금액만을 가구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음.
 - 농가월평균소득은 농가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이전수입)의 합으로 구성됨.
- 산 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기타소득
 농가 월평균소득 = 농가의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3-6.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Average monthly income of urban househol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가구주가 도시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말하며, 비정기적인 소득(퇴직금, 연금일시금과 복권, 경품권 등에 의한 상금 등)은 실제로 가계지출에 충당된 금액만을 가구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음.
- 산 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기타소득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7. 농가 소득 (Average monthly income of farm househol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농가 월평균소득은 농가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이외의 소득, 이전수입)의 합으로 구성됨.
- 산 식 : 농가 월평균소득 = 농가의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자료원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3-8. 도시·농촌가구의 평균소득 비율 (Average monthly income of salary & wage earners' households in urban & rural)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농촌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산 식 : $(\text{농가 월평균소득} / \text{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3-9. 소득원천별 구성비 (Composition of monthly income of salary & wage earners' households in all cities by income sourc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사회보장수혜 등을 모두 합산한 것임. 또한 이 지표는 지방화 시대의 구현에 발맞추어 지역별 소득수준을 비교하는 척도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산 식 :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이자 및 배당금 + 임대료 + 사회보장수혜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10. 지역내 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지역주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새로이 창출한 최종생산의 가치를 화폐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임. 각년도

의 생산물을 각 연도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 경상GRDP이며, 기준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 불변GRDP임.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3-11. 1인당 GRDP(Per capita GR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1인당 GRDP는 총 GRDP를 당해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값임.
- 산 식 : 경상GRDP / 당해지역인구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3-12. 지역별 생산구조 (Production structur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생산구조를 시·도별로 나타낸 것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3-13. GDP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Ratio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to G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 소비생활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비지출규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산 식 : 민간소비지출률 = $(\text{민간소비지출} / \text{국내총생산}) \times 100$
정부소비지출률 = $(\text{정부소비지출} / \text{국내총생산}) \times 100$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14. GDP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 (Ratio of Gov't consumption expenditure to G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 소비생활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비지출규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산 식 : 민간소비지출률 = $(\text{민간소비지출} / \text{국내총생산}) \times 100$

정부소비지출률 = (정부소비지출 / 국내총생산) × 100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15.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액 (Consumption expenditure per capita priv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민간소비지출을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눈 것임.

- 산 식 : 1인당 민간(정부)소비지출액 = 민간(정부)소비지출 / 총인구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16. 1인당 정부최종소비지출액 (Gov't Consumption expenditure per capita priv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민간소비지출을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눈 것임.

- 산 식 : 1인당 민간(정부)소비지출액 = 민간(정부)소비지출 / 총인구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17. 가구당 소비재종류별 지출률 (Composition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by type of good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가구당 평균 세분소비재지출 비율을 지표화한 것임. 내구소비재는 실질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구당 내구소비재 지출의 증가율은 가구당 실질자산의 평균증가율을 나타내는 대리지표가 됨.

- 산 식 : 가구당 내구소비재지출 = (내구소비재 지출액 / 총가구수) × 100

가구당 준내구소비재지출 = (준내구소비재 지출액 / 총가구수) × 100

가구당 비내구소비재지출 = (비내구소비재 지출액 / 총가구수) × 100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18.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Composition of monthly consumption expenditure of farm household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전가구의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의 구성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총소비지출, 식료품, 외식비,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 교육비, 교통·통신, 개인교통비, 기타소비, 잡비 등으로 세분됨.
- 산 식 : 가구소비지출항목구성비 = (항목별 가계소비지출 / 총가계지출) ×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19. 가구소득 대비 내구소비재 지출률 (Composition of monthly consumption expenditure of salary & wage earner' households in all citi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가구소득에 대한 내구소비재지출률 = (내구소비재지출 / 총가구소득) ×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20.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비성향 (Average propensity of consump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근로자가구의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부분이 가처분소득인데,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소비성향임. 한편 평균흑자율은 가처분소득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흑자율임. 평균소비성향과 평균흑자율의 합은 항상 1이 됨.
- 산 식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총소득 - 비소비지출)} ×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21.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흑자율 (Surplus ratio)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근로자가구의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부분이 가처분소득인데,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소비성향임. 한편 평균흑자율은 가처분소득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가처분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흑자율임. 평균소비성향과 평균흑자율의 합은 항상 1이 됨.

- 산 식 : 평균흑자율 = $(1 - \text{평균소비성향})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경제연보』

3-22~24. 총저축률(Gross saving ratio), 민간저축률(Private saving ratio), 정부저축률(Gov't saving ratio)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국민총가처분소득중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국민저축이라고 하는데, 이는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으로 구성되며 투자의 재원조달 역할을 함.
- 산 식 : 총저축 = 국민총가처분소득 - 총소비
 총저축률 = $(\text{총저축} / \text{국민총가처분소득}) \times 100$
 민간저축률 = $(\text{민간저축} / \text{국민총가처분소득}) \times 100$
 정부저축률 = $(\text{정부저축} / \text{국민총가처분소득}) \times 100$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25. 국내총투자율(Gross domestic investment ratio)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국내총투자율은 국내총자본형성의 국민총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이며 대외투자(경상계정잉여)의 국민총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임. 국내총투자율과 대외투자율의 합은 총저축률과 사후적으로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통계상 불일치만큼 차이가 나게 됨.
- 산 식 : 국내총투자율 = $(\text{국내총투자} + \text{해외투자} / \text{국민총가처분소득}) \times 100$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26. 국외투자율(Foreign investment ratio)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국내총투자율은 국내총자본형성의 국민총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이며 대외

투자(경상계정잉여)의 국민총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임. 국내총투자율과 대외투자율의 합은 총저축률과 사후적으로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통계상 불일치만큼 차이가 나게 됨.

- 산 식 : 대외투자율 = (대외투자 / 국민총가처분소득) × 100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27. 투자재원 자립도(Ratio of total saving to fixed investm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국내총투자율은 국내총자본형성의 국민총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이며 대외투자(경상계정잉여)의 국민총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임. 국내총투자율과 대외투자율의 합은 총저축률과 사후적으로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통계상 불일치만큼 차이가 나게 됨.

- 산 식 : 투자재원자립도 = (명목 총저축액 / 명목 국내총자본형성) × 100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28. 가계저축률(Savings possession household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총가계저축액이 총가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산 식 : 가계저축률 = (총가계저축액 / 총가계수입) ×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29. 가구당 금융자산잔고(Net saving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개인부문의 금융자산잔액을 총가구수로 나눈 것임.

- 산 식 : 가구당 금융자산잔고 = 개인부문 금융자산잔고 / 총가구수

- 자료원 : 한국은행, 『우리나라 자금순환계정의 이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3-30. 부채가구 비율(Liabilities household rat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부채가구비율은 빈곤한 가구의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가구당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액의 비율이 1보다 큰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지방화시대의 구현과 더불어 지역간 비교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음.
- 산 식 : 부채가구 비율 = $(\text{부채가구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31. 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

- 지표의 작성 주기 : 매년
- 정 의 :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짐.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몫을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함.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으로 나눈 값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함.
- 산 식 : 노동소득분배율 = $\{\text{피용자보수} / \text{국민소득(좁은 의미, NI)}\} \times 10$
 * 국민소득(좁은 의미)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31. 영업이익(Operating surplu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주체에게 나누어지는데 이중 생산주체에게 귀속되는 몫을 영업잉여라고 함.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32. 순간접세(Indirect taxes subsidi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간접세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가
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말하며, 보조금이란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정
부가 그 물건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비용중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
공해 주는 것을 말함.
- 산 식 : 순간접세 = 간접세 - 보조금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33. 소득10분위별 분포(Income share by decil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소득분배가 얼마나 균등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소득의 계층별분배
이며, 일반적으로 개인별보다 최소 생활단위인 가구별로 분석하게 됨. 전체
가구를 최저소득부터 최고소득까지 10분위(전체가구를 10%씩 구분)로 나누
어 각 분위의 소득을 전체가구소득의 백분비로 나타낸 것이 소득10분위별
소득분포임.
- 산 식 : 소득10분위별 분포 = (각분위의 소득수준 / 전체가구소득)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34. 소득집중도(지니계수, 소득10분위 분배율)(Income distribution by index of concentr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소득의 집중정도란 소득불평등의 척도를 말하며,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파레토계수, 10분위 분배율 등이 있음.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국제적 비교가 용이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을 사용하여 소득의 집중정도를 파악하고 있음.
 -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0은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고 1은 완전불균등분배를 나타냄.
 - 10분위분배율은 소득10분위별로 등분된 소득분포자료에서 하위 40%소득 계층이 점유하는 소득비율을 상위 20% 소득계층이 점유하는 소득비율로

나누어 얻음.

- 10분위분배율은 0에서 2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0은 완전불균등분배를 나타내고 2는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냄.

- 산 식 : 지니계수 = 호OC의 면적 / Δ OBC의 면적
10분위 분배율 = 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비율 /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 비율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35.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인식(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수치상으로 분배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배상태에 대한 인식은 개개인의 상대적 빈곤감이나 부, 소득집중도 등에 민감함. 이론에 근거한 객관적인 분배상태와 주관적인 인식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통계조사시에 현재의 소득분배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을 실시하여 “매우 불공평하다, 약간 불공평하다, 그저 그렇다, 약간 공평하다, 아주 공평하다”의 5가지로 분류함. 지방화시대에는 지역간의 분배상태에 대한 인식 비교도 가능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36.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인식(Awareness on the balance of taxes burde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세금의 소득수준에 대해 적당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조세형평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파악함.
• 응답은 “매우 적게내고 있음, 적게내는 편임, 적당한 편임, 많이 내는 편임, 매우 많이내고 있음, 모르겠음”으로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37. 조세부담률(Tax burden ratio)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조세부담률이란 조세수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이는 국민전체의 조세부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이와 같은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조세의 누진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됨. 한편 조세수입의 포괄범위나 포착기준 등의 차이 때문에 국민계정통계상의 조세부담률과 재정통계상의 조세부담률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 산 식 : $\text{조세부담률} = (\text{조세부담액} / \text{경상GNP}) \times 100$
- 자료원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서울특별시, 『도시비교통계』

3-38. 국세부담률(National tax burden ratio)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국세부담이 경상GNI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산 식 : $\text{국세부담률} = (\text{조세 이외의 사회보험부담액} + \text{제 공과금}) / \text{GNI} \times 100$
 $\text{국세부담률} = (\text{국세부담액} / \text{경상GNP})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39. 지방세부담률(Local taxes burden ratio)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지방세부담이 경상GNI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산 식 : $\text{지방세부담률} = (\text{지방세부담액} / \text{경상GNP})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40. 사회보장부담금부담률(Social security burde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41. 비조세부담률(Tax burden ratio)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조세 이외의 사회보험부담액 및 제 공과금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산 식 : 비조세부담률 = ((조세 이외의 사회보험부담액 + 제 공과금) / 가계소득) ×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42.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Expectation on the future household incom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이 지표는 장래 경제적 기대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래소득에 대한 기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함. 이 지표는 직업별, 소득계층별 등으로 구분하여 지표화할 수 있으며, 지역간 비교도 가능함.
 - “많이 나빠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전과 비슷할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많이 나아질 것이다”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43. 소득만족도(Levels of satisfaction with incom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자기의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로서, 지역별, 소득계층별 및 직업별로 구분이 가능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44.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s index)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소비자 물가지수란 일반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물가지수임.
 - 식료품/주거비/광열·수도/가구집기·가사용품/피복·신발/보건의료/기타 등의 구분 또는 식료품/식료품이외의 구분이 가능함.
 - 생활물가지수란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중 일반 소비자들의 기본생

필품 156개를 선정하여 계산한 물가지수로 장바구니에 더 근접한 물가지수임

- 물가상승률이란 소비환경의 안정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 선정된 지표이며, 물가상승 자체가 실질적·직접적인 감가이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음.

- 산 식 : 소비자물가상승률=
$$\{(\text{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text{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1\}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물가연보』
한국은행, 『물가총람』

3-45.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index)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소비자 물가지수의 역수이며,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 산 식 : 구매력지수 = $1 / \text{소비자물가지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물가연보』

3-46. 생활물가지수(Living prices index)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소비자 물가지수란 일반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물가지수임.
• 식료품/주거비/광열·수도/가구집기·가사용품/피복·신발/보건의료/기타 등의 구분 또는 식료품/식료품이외의 구분이 가능함.
• 생활물가지수란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중 일반 소비자들의 기본 생필품 156개를 선정하여 계산한 물가지수로 장바구니에 더 근접한 물가지수임
• 물가상승률이란 소비환경의 안정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 선정된 지표이며, 물가상승 자체가 실질적·직접적인 감가이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음.

- 산 식 : 소비자물가상승률=

$$\{(\text{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text{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1\}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물가연보』

한국은행, 『물가총람』

3-47. 수입물가지수(Import prices index)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임.

- 자료원 : 한국은행, 『물가총람』

통계청, 『물가연보』

3-48. 공공요금지수(Public utility rate index)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전기료, 수도료, 보건 및 의료서비스, 납입금, 공공서비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과 같은 공공교통요금 및 통신요금 등의 변동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임.

- 자료원 : 통계청, 『물가연보』

3-49.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Settlement of consumer conflic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소비환경의 개선을 보기 위한 지표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현대 경제사회의 발전에 상응하는 소비자 주권을 나타내는 척도인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소비생활의 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 자료원 : 소비자보호원,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4. 노동

4-1.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Economic activity status& Participation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노동력인구비율이라고도 함.
- 산 식 : $(\text{경제활동인구} / \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2. 실업률(unemployment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산 식 : $(\text{실업자} /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3.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Composition of unemployed persons by duration of unemploym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평균실업기간(월)} \times \text{실업자수}) / \text{총실업자수}$
-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Composition of employed persons by industr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산업별 취업자수} / \text{취업자})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5.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Composition of employed persons by occupation),

여성 관리직 종사자 비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직업별 취업자수} / \text{취업자})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6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Percentage of employed persons aged 55 years & over)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총 근로자 중에서 55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 산 식 : $(\text{고령취업자} / \text{취업자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7 고용형태별 취업자 분포, 취업자 중 피용자율, 상시 취업률,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Distribution of employed persons by employment shap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4-8. 외국인 고용현황(Foreign worker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외국인 근로자수} / \text{총근로자수}) \times 100$
- 자료원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

4-9 장애인 고용현황 (Disabled persons employment shap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

4-10. 산업별 주당근로시간(Weekly hours worke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임금수준과 더불어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 산 식 : 월평균근로시간 $\times(7/30.4)$
- 자료원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4-11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Monthly average days worked by industr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월중근로일수/(전월말근로자수+당월말근로자수) $\div 2$ }
- 자료원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

4-12 산업별 평균 근속기간(Average duration services by industr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4-13. 주5일제 근무 사업체 비율(Rate of five days worked industr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주5일제 근무 사업체/전체사업체 $\times 100$
- 자료원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

4-14. 평균정년퇴직 연령(Average ages of retire for ag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

4-15.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Monthly wage levels by industr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임금수준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100으로 하여) 산업별, 직종별, 교육 수준별, 연령계층별 임금수준을 제시함.
평균임금지수는 임금총액에 대한 지난 3개월 간 평균임금을 의미함.
- 자료원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4-16.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Monthly wage levels by occup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4-17. 산업별 입직률(Employment accession rate by industr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입직률은 전월말 근로자수에 대한 당월 중 입직자(신규채용, 다른 사업체로부터 전입자)의 비율로 매월의 입직률을 연평균한 수치임.
- 산 식 :
$$\text{입직률} = \{ \text{금월중입직자수} / (\text{전월말근로자수} + \text{금월말근로자수}) \div 2 \} \times 100$$
- 자료원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4-18. 산업별 이직률(Employment separation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이직률은 전월말 근로자수에 대한 당월 중 이직자의 비율로 매월의 이직률을 연평균한 수치임. 이직자란 해고, 사직(자진사퇴), 퇴직(군복무, 정년퇴직, 신체적 장애, 사망, 전출 등)자 등을 의미함.
- 산 식 :
$$\text{이직률} = \{ \text{금월중 이직자수} / (\text{전월말근로자수} + \text{금월말근로자수}) \div 2 \} \times 100$$
- 자료원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4-19. 직업훈련자수(Vocation trained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사내훈련, 공공, 인정포함한 직업훈련자수
- 자료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20.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Technical certificate holder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검정통계연보』

4-21.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Number of establishm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고용보험적용사업체수} = \frac{\text{고용보험가입사업체수}}{\text{총사업체수}}$
 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
- 자료원 : 근로복지공단(1997년부터 자료수록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통계연보』

4-22.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수(Number of workers applied employment insuranc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고용보험적용사업체수} = \frac{\text{고용보험가입사업체수}}{\text{총사업체수}}$
 $\text{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 = \frac{\text{고용보험가입근로자수}}{\text{총근로자수}}$
- 자료원 : 근로복지공단(1997년부터 자료수록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통계연보』

4-23. 산업별 실업급여 수급자수(Number of unemployment insurance received by industr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통계연보』

4-24. 건강진단 수검률 (Rates of health examin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4-25. 직업병 근로자비율 (Rates of occupational diseas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4-26. 산업재해도수율(Rates of frequency, severity & death in industrial acci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4-27. 재해강도율(Rates of frequency, severity & death in industrial acci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4-28. 재해사망률(Rates of frequency, severity & death in industrial acci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4-29. 노동생산성 지수(Labor Productivity index)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의 생산적 효율(productive efficiency)을 의미하며, 기술혁신에 의해 크게 좌우됨.
- 산 식 : 산업생산지수 또는 불변 GDP지수/연실근로시간지수
- 자료원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4-30. 노동조합조직률(Union membership rate, number of labor dispute & working days los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노동조합조직률: (조직근로자수/조직대상자)×100
- 자료원 : 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4-31.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Union membership rate, number of labor dispute & working days los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노사분규건수, 손실일수 및 비율: (노사분규손실일수/총노동일수)×100
- 자료원 : 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4-32. 직업선택요인(Reasons for job selec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직업선택요인을 명성·명예, 안정성, 수입, 보람, 발전성, 기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4-33.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Levels of satisfaction for working condition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직무, 업무환경, 장래성, 임금, 근로시간, 인간관계,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 등의 재차원에 걸쳐 근로자의 만족도를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4-34.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Opinion of female employmen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4-35. 여성취업 장애요인(Obstruction to female employmen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 교육

5-1. 성·연령계층별 평균 교육년수(Average years of educational attainment by sex & age group)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로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국교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초급 및 전문대중퇴 13년, 대학 이상 중퇴는 14년으로 계산함.
- 산 식 : $\text{국민의 총교육년수} / \{(\text{만 6세 이상 인구}) - (\text{학생수})\}$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2.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Composition of popul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 (25 years & over))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25세 이상 성인인구에 대한 각 교육단계별 졸업자의 구성비로 나타낸 것임.
- 산 식 : $\{\text{교육단계별 졸업자수(중퇴자 포함)} / \text{25세 이상 성인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3. 자녀교육의 목적(Expected purpose of education by parent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국민의 일반적인 교육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자녀를 대학 이상 수준까지 교육을 시키려는 경우 목적을 가구주에게 질문하여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4.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Expected level of education by studen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학생의 교육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학생이 기대하고 있는 교육 수준을 중·고·대학생에게 질문하여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5.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Expected purpose of education by studen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학생의 교육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학생이 기대하고 있는 교육목적을 중·고·대학생에게 질문하여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6. 취학률(Gross school enrollment ratio)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취학자수} / \text{적령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5-7. 진학률(Advance rate of graduates to higher school level)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졸업자 중에서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교육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임.
- 산 식 : $(\text{진학생수} / \text{졸업생수}) \times 100$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5-8. 중도탈락률(Mid-dropout rates of stu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중도탈락률은 전체 재적 학생수 대비, 학교를 다니던 중에 제적, 중퇴, 휴학 등으로 학교를 탈락한 학생의 비율을 말함.
- 산 식 : $(\text{당해년도 제적} \cdot \text{중퇴 및 휴학자수} / \text{전년도 재적 학생수}) \times 100$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5-9. 인구만명당 대학생수(Number of college students per 10,000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육기회가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구만명당 대학생수의 추이로 교육기회의 확대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음.
- 산 식 : $(\text{대학생수} / \text{총인구수}) \times 10,000$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5-10. 인구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Doctoral degrees conferred per 10,000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육기회의 개방 정도와 고급 인적자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산 식 : $(\text{박사학위취득자수 누계} / \text{총인구수}) \times 10,000$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5-11.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Annual participation rate of lifetime learning program)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만 15세 이상 가구원(재학생 및 재수생 제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참여여부와 연간 교육이수일수를 조사함.

- 산 식 : 평생학습참여율 = (평생학습참여자수 / 재학생 및 재수생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 총수) × 100

$$\text{평생교육 이수율} = (\text{총 교육이수율} / \text{재학생 및 재수생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 총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12. 교육기회의 미충족 및 이유(Levels of dis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attainment & reasons for dissatisfac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조사대상 15세 이상 인구 중 재학생·재수생을 제외하고 응답자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학교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이유를 조사함.
- 산 식 : (교육기회 미충족자수 / 재학생 및 재수생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 총수)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13.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Programs of wanting to learn among life learning programs)

- 지표작성주기 : 2년
- 정 의 : 조사대상 15세 이상 인구 중 재학생·재수생을 제외하고 가구원이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는지 여부와 받고 싶은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함.
- 산 식 : (받고싶은 교육이 있다고 응답한 수 / 재학생 및 재수생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 총수)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14. 학생 현황(Number of stu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교육자원에 대한 중요한 지표임.
• 초·중·고·대학생을 시·도별로 표기하되, 여학생 비율을 포함시켜 표기 함.
- 산 식 : 여학생 비율 = (여학생수 / 총학생수) × 100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15. 교원현황(Number of teacher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원수의 범위는 시간교사를 제외한 전임교사(임시교사 포함)이상인 재직교원수(휴직자 포함)임.
- 산 식 : 여교원 비율 = (여교원수 / 총교원수) × 100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16. 교원 1인당 학생수(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원수의 범위는 시간교사를 제외한 전임교사(임시교사 포함)이상인 재직교원수(휴직자 포함)임.
- 산 식 : 교원 1인당 학생수 = 총학생수 / 총교원수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17. 교원의 평균연령, 평균 경력년수(Average age of teachers, Average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원수의 범위는 시간교사를 제외한 전임교사(임시교사 포함)이상인 재직교원수(휴직자 포함)임.
- 산 식 : 교원의 평균연령 = 교원의 총연령 / 총교원수
교원의 평균경력년수 = 교원의 총경력년수 / 총교원수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18. 각급학교 교원 세부현황(Teachers by level of school)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원의 현황, 근무여건, 인력수급 등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임.
- 산 식 : $\text{교원의 주당수업시간수} = \frac{\text{교원의 주당 총 수업시간수}}{\text{총교원수}}$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5-19. 교원의 이·퇴직률(Resignation rate of teacher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원 이·퇴직률은 연간 이·퇴직 교원수가 총 교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퇴직 교원수는 전년도 4월2일부터 당해년도 4월1일까지 1년 동안의 질병, 사망, 정년, 이직, 해임, 기타의 사유로 교직을 떠난 교원수를 의미함.
- 산 식 : $(\text{이·퇴직 교원수} / \text{총교원수}) \times 100$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20. 사무직원당 교원수(Number of teachers per clerical staff)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지표임.
- 산 식 : $\text{총교원수} / \text{총사무직원수}$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20. 학급당 학생수(Number of students per clas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학교의 교육여건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임.
- 산 식 : 총학생수/ 총학급수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5-21. 학생 1인당 건물·교지·체육장 면적(Areas of school building, land & playground per stud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건물·교지·체육장 면적은 학습의 과정에 충분한 공간과 설비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임.
- 산 식 : 학생당 교지면적= 총학교교지/ 총학생수
학생당 건물면적= 총건물면적/ 총학생수
학생당 체육장면적= 총체육장면적/ 총학생수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22. 학생 1인당 도서관 좌석 및 장서수(Number of volumes and seats in school librari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주요 지표임.
- 산 식 : 학생당 장서수 = 학교도서관 보유장서수/ 총학생수
좌석당 학생수 = 총학생수/ 학교도서관 좌석수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23. 컴퓨터 1대당 학생수(Number of students per computer by level of school)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육정보화 여건 및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여건을 확인하는 대표적 지표임.
- 산 식 : 총 학생수 / 총 컴퓨터대수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24. 교원 1인당 교원용 컴퓨터수(Number of computers per teacher by level of school)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원들을 위한 교육정보화 여건 및 정보화교육의 여건을 확인하는 대표적 지표임.
- 산 식 : 교원용 컴퓨터대수 / 교원수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25. 급식실시학교 및 학생 비율(Rate of meal-providing schools & rate of students receiving meal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급식 실태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임.
- 산 식 : 급식실시학교 비율 = $\frac{\text{급식실시학교수}}{\text{전체 학교수}}$
 급식실시학생 비율 = $\frac{\text{급식실시학생수}}{\text{전체 학생수}}$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26. GDP 대비 공교육비(Rate of public expenditure to G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국가 교육재정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 산 식 : $(\text{총 공교육비} / \text{GDP}) \times 100$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5-27. 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예산(Government Budget vs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정부 중앙예산 가운데 교육부분에 투입하는 예산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 산 식 : 교육인적자원부예산 / 정부예산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28.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per stud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학교급별로 학생 1인에 지출되는 학교교육비를 말하는 것으로, GDP 대비 공교육비와 함께 학교 교육재정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 산 식 : $\text{총 공교육비}(\text{국·공·사립학교 교비} + \text{기성회비}(\text{학교운영지원비})) / \text{전체 학생수}$
- 자료원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5-29.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Percentage of financial aids beneficiaries among stu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장학생수} / \text{총학생수}) \times 100$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5-30.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Percentage of expenditure on education per househol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육비 지출률은 가구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교육비에
는 각급학교 납입금, 교과서, 보충교육, 잡부금 등이 포함됨.
- 산 식 : $(\text{연간교육비} / \text{연간소비지출})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농가경제통계』

5-31. 사교육 참여비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Participation rate of private education & private expenditure on education per student)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학교급별 및 소득계층별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과 학생 1인당 지출되
는 사교육비를 조사함.
- 산 식 : 사교육 참여비율 = $(\text{사교육 참여학생수} / \text{전체 학생수}) \times 100$

$$\text{학생1인당 사교육비} = \text{총 사교육비} / \text{전체 학생수}$$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5-32.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Perception of burden of educational expenditure & reasons for burde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전체 가구 소비 지출에서 교육부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응답은 매우 부담된다, 약간 부담된다, 보통, 부담이 별로 없다, 부담이
전혀 없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33.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Ratio of research & development expenditures to G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총연구개발지출} / \text{GDP}) \times 100$
- 자료원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보고서』

5-34. 학업성취수준(Students' achievem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학업성취도는 교육의 성과를 재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OECD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제시하여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제시함.
- 자료원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OECD, 『Education at a Glance』

5-35. 학교교육의 효과(Effect of school educa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15세 이상 조사인구 중 재학생·재수생을 제외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를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조사함. 이는 교육목표인 지·덕·체·생활직업에의 활용의 달성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나타낸 지표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36. 졸업생 취업률(Employment rate by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 대상자는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수와 군입대자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함.
- 산 식 : $\{ \text{취업자수} / (\text{졸업자수} - \text{진학자} - \text{입대자} - \text{기타}) \} \times 100$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5-37.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Level of consistency with occupation and major field of stud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중이거나 취업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과 전공이 얼마나 상응하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 응답은 “매우 일치함, 일치하는 편임, 그저그렇다, 관계가 없는 편임, 전혀 관계가 없음”으로 나누어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

5-38. 비행학생 비율(Number of delinquent stu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폭력, 절도, 흉악, 기타 비행발생수} / \text{총학생수}) \times 100$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5-39. 교육수준별 월 평균 임금 수준(Monthly wage levels by educational attainm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육수준별로 평균임금을 비교 조사함.

- 산 식 : $\text{월평균임금총액} = \text{월급여액} + \text{연간특별급여액} / 12$

- 자료원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5-40.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Level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by student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학생의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를 학교급별(중,고,대학교)로 조사함.
 - 항목은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육내용, 학교시설,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주변환경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응답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41.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Level of satisfaction with school education by parent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자녀의 학교교육 및 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학교급별(중,고,대학교)로 조사함.
 - 항목은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육내용, 학교시설,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주변환경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응답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42. 교사의 직업 만족도(Level of satisfaction with job by teacher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교사의 직업 만족도를 조사함.
 - 항목은 직무, 근무여건, 보수, 사회-경제적 지위, 동료 교사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응답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6. 보건

6-1. 기대여명(Life expectancy)

- 지표작성주기 : 2년
- 정 의 :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를 말하며 평균여명이라고 함. 이는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잔여 평균여명을 예측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요구와 직결되는 지표임.
- 산 식 :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동태 자료로서 생명표(life table) 제시
- 자료원 : 통계청, 『생명표』

6-2. 건강기대여명(건강수명)(Health expectanc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하여는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하며, 기대여명에서 이러한 장애의 기대기간을 뺀 건강한 상태의 기대여명은 복지의 손실량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됨.
- 산 식 :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생명표 방식으로 계산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6-3. 저체중아 출생률(Birth rate of babies weighting under 2,500g)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모자보건 지표로 중요한 지표로서 출생아의 생존률 및 성장발육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표임.
- 산 식 : $(\text{연간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아} / \text{연간 출생아수}) \times 1,0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6-4. 학생(초5, 주2, 고2)의 신장, 체중, 흉위(Height, Weight, Breast circl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학생의 신장, 체중, 흉위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성장지표이며, 대표 학년 즉, 초등 5학년 · 중등 2학년 · 고등 2학년 등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시 측정한 결과임.
- 질병, 사망 등이 건강의 척도인데 비해 체위, 체격은 건강의 양성적인 척도인 동시에 영양상태의 간접적인 측정방법이기도 함.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6-5. 학생의 비만율(BMI 분포)(Prevalence of obesity among stu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신장과 체중을 알고 있을 경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를 계측할 수 있으며, 이 지수는 비만도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성인병 발병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지수는 25로서 아래의 산식에 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수의 크기가 커질 수록 비만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음.
- 산 식 : $BMI(\text{체중(kg)} / (\text{신장(m)})^2)$ 가 25 이상인 자 / 전체대상자 $\times 100$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6-6. 성인비만율(Prevalence of obesity among adul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신장과 체중을 알고 있을 경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를 계측할 수 있으며, 이 지수는 비만도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성인병 발병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지수는 25로서 아래의 산식에 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수의 크기가 커질 수록 비만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음.
- 산 식 : $BMI(\text{체중(kg)} / (\text{신장(m)})^2)$ 가 25 이상인 자 / 전체대상자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 영양조사』

6-7. 정신질환 유병률(Prevalence rate of mental disea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화가 다양해질수록 정신질환자는 증대할 것이므로 정신질환자에 관한 지표가 필요함. 정신질환 중 조울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산 식 : $(\text{특정시기 정신질환자수} / \text{그 당시의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6-8. 치매 유병률(Prevalence of Dementia)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사회가 복잡해지고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치매가 중요한 사회적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정기적으로 조사되지 않고 있음.
- 산 식 : $(\text{치매노인수} / \text{65세 이상 노인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노인실태조사』

6-9. 1인 보유 우식경험 영구치아수(12세아동)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12세 아동 조사인구 전체의 부식치아수, 발치치아수, 보충치아수를 조사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세계 공통의 지표임.
- 산 식 : $(D+M+F) \text{의 수} / \text{조사인구}$
D: 부식치아수 M: 발치치아수 F: 보충치아수
- 자료원: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실태조사』

6-10. 노인의 무치아 인구비율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65세 이상 노인 중 치아가 1/2 이상 없거나 이로 인해 보철한 노인의 비율로 노인의 구강보건상태를 제시할 수 있음.
- 산 식 : $(\text{치아가 1/2 이상 빠진 노인수} / \text{노인 인구})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실태조사』

6-11.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Self-assessment of health)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SIP(Sickness Impact Profile)개념의 사회의료수혜자 입장에서의 주관적 건강상태평가는 건강이 단순히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녕된 상태(Social Well-being State)라는 지표의 정의에 비추어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 개인의 건강평가는 응답자가 자신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응답토록 “귀하는 연령에 비하여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6-12. 스트레스 인식정도(Self-assessment of stress statu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스트레스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세 이상에게 “평소에 당신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낍니까”(매우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약간 느낀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를 질문하여 파악함.
- 자료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6-13. 2주간 주관적 호소 유병률(Persons who have subjective symptoms per 1,000 persons: morbidity rate during 2 week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기간(2주간) 동안에 본인이 새롭게 아팠거나 계속 해서 아픈 경우를 포함하여 본인 스스로 아프다고 호소한 비율임.
 - 일반적으로 아프다는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어린이는 잘 놀지 못할 정도로 질환이나 약물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
- 학생이나 직장인은 공부나 직장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
- 주부나 기타 사람들은 평소에 하던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
- 장기질환자 및 기타 심신장애자.
- 이환율에 대한 면접조사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인구라 일반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자각되지 않는 질환은 조사하기 힘들고 계절적 질환(감기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등의 단점이 있음을 유의하여 이용하여야 함.
- 산 식 : $(\text{기간내 유병자수} / \text{조사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6-14. 1인당 열량섭취량(Calorie intake per capita per da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가장 기본적인 영양지표임.
- 자료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6-15. 1인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섭취량(Nutrient intake per capita per da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단백질 섭취량은 위와 같이 계산된 1일 1인당 순식용 공급량에 식품별 단백질 성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양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견과류, 두류, 기타 식물성 단백질의 양이며, 동물성 단백질은 육류, 난류, 우유류, 어패류, 등의 단백질의 양으로 실제 섭취량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같다고 보아도 별 문제는 없음.
- 자료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6-16. 1인당 쌀 및 육류소비량(Daily rice & meat consumption per capita)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식품섭취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임.
- 자료원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보고서』

6-17. 음주율 및 고도음주자 비율(Percentage of drinkers and everyday drinker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음주율은 조사인구 중에서 음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고도음주자 비율은 인구 중에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인구비율임.
- 산 식: $(\text{음주인구} / \text{조사인구}) \times 100$
 $(\text{거의 매일 음주자} / \text{조사인구}) \times 1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6-18. 1인당 주류소비량(출고량)(Annually delivered quantity of alcoholic beverages per pers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주류소비량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임.
- 자료원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6-19. 흡연율 및 1일 평균 흡연량(Percentage of smokers and smoking amoun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흡연율은 조사인구 중에서 흡연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흡연량은 흡연인구의 1일 평균흡연량(갑 기준)을 분포로 나타냄.
- 산 식 : $(\text{흡연인구} / \text{조사인구})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6-20. 연간 담배판매량(Annual sale amounts of cigare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국민들의 담배소비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됨.
- 자료원 : 한국담배인삼공사

6-21. 규칙적 식사 이행률(Percentage who have regular eating habi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조사인구 중 규칙적으로 3끼 식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 1회 2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주 3회 이상(규칙적 중등도) 하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하루에 평균 7-8시간 정상적으로 수면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함. 이들 변수는 일상활동의 건강행태로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자료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6-22. 규칙적 운동 실천율 (Percentage who have regular physical exerci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조사인구 중 규칙적으로 3끼 식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 1회 2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주 3회 이상(규칙적 중등도) 하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하루에 평균 7-8시간 정상적으로 수면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함. 이들 변수는 일상활동의 건강행태로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 식 : 백분율로 표시
- 자료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6-23. 정상 수면율 (Percentage who have regular sleeping)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조사인구 중 규칙적으로 3끼 식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 1회 2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주 3회 이상(규칙적 중등도) 하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하루에

평균 7-8시간 정상적으로 수면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함. 이들 변수는 일상활동의 건강행태로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자료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6-24. 주산기 사망률(Perinatal death rat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산 식 : 주산기사망률 = $(A+B)/C \times 1,000$

사산율 = $A/C \times 1,000$

단, A: 임신 제29주 이후의 사산수, B: 생후 7일 미만의 초생아 사망수

C: 같은 해의 연간 출생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6-25. 자연사산율(Still-birth rat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후기사산과 조기신생아 사망과는 그 사망원인에 공통성이 인정되고 있음.

임신경과(임신 제29주 이후) 중에 발생하는 태아사망과 생후 7일 이내의

초생아사망에는 선천성 이상의 상태인 것이 많다고 알려져 있음. 현재 우

리나라에서는 2002년 1월에 특수환자조사(모성사망조사)와 동시에 실시되

었음.

- 산 식 : 주산기사망률 = $(A+B)/C \times 1,000$

사산율 = $A/C \times 1,000$

단, A: 임신 제29주 이후의 사산수, B: 생후 7일 미만의 초생아 사망수

C: 같은 해의 연간 출생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6-26.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영아는 환경, 영양, 질병 등의 외인성 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서 생후 1년 이내의 영아사망률과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 사망은 경제상태, 영양((섭취)문제,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 등의 의료수혜정도, 교육정도, 환경위생상태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 따라서 국제간은 물론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인종에 따라 크게 변화되므로 국제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보건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이용됨.
- 1993년도부터 영아사망에 관한 전국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 산 식 : 영아사망률=(출생 1년 미만의 사망아수/특정년도 1년간 출생수)×1,0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6-27. 신생아 사망률(Neonatal mortality rat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영아는 환경, 영양, 질병 등의 외인성 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생후 1년 이내의 영아사망률과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 사망은 경제상태, 영양((섭취)문제,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 등의 의료수혜정도, 교육정도, 환경위생상태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 따라서 국제간은 물론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인종에 따라 크게 변화되므로 국제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보건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이용됨.
- 1993년도부터 영아사망에 관한 전국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신생아 사망률도 산출됨.
- 산 식 : 신생아사망률=(출생 28일 미만의 사망아수/특정년도 1년간 출생수)×1,0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6-28. 모성사망률(Maternal mortality rat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영아사망률과 함께 모자보건의 주요 지표가 되고 있음. 임신, 분만, 산욕

에 의한 사망률을 의미함.

- 산 식 : (연간 임신, 분만, 산욕에 의한 사망수/특정년도 1년간 출산수)×10,0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6-29. 주요 사망원인별 구성비(Composition of major causes of death)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사인별 사망자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동 지표는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지연신고, 신고누락(특히 영아), 사인미기록 등으로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인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원사인)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선행사인(원사인)으로 사망원인으로 보았음.
 - 직접사인은 직접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또는 상황을 뜻하며, 중간선행사인은 직접사인을 야기시킨 병태이고, 선행사인은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 상상을 야기시킨 질병 또는 상해를 말함.
 -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한 국가의 건강상태가 증진됨에 따라 총 사망자가 상대적 크기변화와 아울러 사망원인의 구성에 변화가 온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지표임.
- 산 식 : (각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전체 사망자수)×100
- 자료원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6-30.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Death rate by chronic diseases per 100,000 popul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사인별 사망자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동 지표는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지연신고, 신고누락(특히 영아), 사인미기록 등으로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인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원사인)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선행사인(원사인)으로 사망원인으로 보았음.
- 직접사인은 직접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또는 상황을 뜻하며, 중간선행사인은 직접사인을 야기시킨 병태이고, 선행사인은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 상상을 야기시킨 질병 또는 상해를 말함.
-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한 국가의 건강상태가 증진됨에 따라 총 사망자가 상대적 크기변화와 아울러 사망원인의 구성에 변화가 온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지표임.

- 산 식 : $(\text{각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 \text{전체 사망자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6-31. 암사망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Death rate by malignant neoplasms per 100,000 popul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생활습관에 주로 기인하는 사망으로서 현대 사회의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나, 주요사망 원인별 구성비로는 그 사망률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별도로 인구 100,000 명당 사망률로 제시함.

- 산 식 : $(\text{해당연도의 각종 암 질환별 사망자수} / \text{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6-32. 주요 전염성질환 발생률

(Number of cases of major communicable diseases & incidence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전염병의 발생률은 주요 법정전염병(장티푸스, 홍역, 일본뇌염, 유행성이하선염, 말라리아)이 인구 10만명당 몇 명이 발생하는지의 지표로서 만성질환 유병률과 함께 국민건강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음.

- 산 식 : $(\text{해당연도중 전염병종류별 발생건수} / \text{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통계연보』

6-33. AIDS 환자수 및 유병률(Number of AIDS cases & prevalence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치명률이 높은 중요 질환이므로 별도의 지표체계가 필요함.
- 산 식 : (해당연도의 AIDS 환자수/인구수)×100,000
-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통계연보』

6-34. 주요 만성전염병 유병률(결핵, 한센병, B형간염)(Prevalence rate of chronic infectious diseas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만성전염병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주요 유병률이 높거나 특별 관리되고 있는 결핵, B형간염, 한센병에 대한 유병률이 필요함.
- 산 식 : (해당연도의 특정 전염병 질환 환자수/인구수)×100,000
-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통계연보』

6-35. 만성질환 유병률(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관절염)
(Prevalence rate of chronic disease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유병률이란 어느 특정시점(시점유병률) 또 특정기간(기간유병률)에서 일정한 집단안에 질병에 걸려 있는 환자가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함. 주요 성인 질환은 심장병, 뇌졸중,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임.
- 산 식 : (해당 기간의 만성질환별 유병건수/인구수)×1,0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6-36. 암 유병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Prevalence rate of chronic disea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유병률이란 어느 특정시점(시점유병률) 또 특정기간(기간유병률)에서 일정한 집단안에 질병에 걸려 있는 환자가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함. 주요 성인 질환은 심장병, 뇌졸중,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임.
- 주요 암질환은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등임.
- 산 식: (해당 기간의 암 질환별 유병건수/인구수)×1,0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립암센터, 『암등록자료』

6-37. 자살률(Death by suicid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사회의 구조적 모순 및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각종 사고나 자살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한 인구 10만당 사망률은 주요한 사회지표가 되고 있음.
- 산 식 : (해당 기간의 자살자수/인구수)×100,000
- 자료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산업재해분석』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교통부문)』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6-38. 산업재해 사망률(Death by occupational accid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사회의 구조적 모순 및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각종 사고나 자살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한 인구 10만당 사망률은 주요한 사회지표가 되고 있음.
- 산 식 : (해당 기간의 특정 사망수/인구수)×100,000
- 자료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산업재해분석』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교통부문)』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6-39. 교통사고 사망률(Death by traffic accid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사회의 구조적 모순 및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각종 사고나 자살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한 인구 10만당 사망률은 주요한 사회지표가 되고 있음.
- 산 식 : $(\text{해당 기간의 교통사고 사망수} / \text{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산업재해분석』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교통부문)』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6-40. 활동제한일수(restricted activity da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활동제한일수는 질병이나 상해 때문에 평소활동(usual activity)을 평소보다 덜 해야했던 날을 말함. 여기에는 외병일수가 포함됨.
 - 외병일수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평균적으로 환자 1인이 거의 하루종일(반나절 이상)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총 일수를 의미하며, 입원, 결석·결근일이 포함됨. 앞으로 의료보험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산 식 : $\{(2\text{주간의 총활동제한일수 또는 외병일수} / 14) \times 365\} / \text{대상인구}$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6-41. 외병일수(bed-disability da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활동제한일수는 질병이나 상해 때문에 평소활동(usual activity)을 평소보다 덜 해야했던 날을 말함. 여기에는 외병일수가 포함됨.
 - 외병일수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평균적으로 환자 1인이 거의 하루종일(반나절 이상)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총 일수를 의미하며, 입원, 결석·결근일이 포함됨. 앞으로 의료보험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산 식 : $\{(2\text{주간의 총활동제한일수 또는 외병일수}/14) \times 365\} / \text{대상인구}$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6-42. 건강검진율(Physical examination rate)

- 지표작성주기 : 2년/3년
- 정 의 : 모든 질병에 대비한 건강검진은 불가능하나 생활습관병(고혈압, 심장병, 간 질환 등)과 암질환(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자궁암, 유방암)에 대한 건강검진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함. 조사인구중의 건강검진이나 암검진을 받은 자의 비율을 나타냄.
- 산 식 : $(\text{특정기간에 건강검진 또는 암검진을 받은 사람} / \text{총조사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보고서』

6-43. 암검진율(Cancer examination rate)

- 지표작성주기 : 2년/3년
- 정 의 : 모든 질병에 대비한 건강검진은 불가능하나 생활습관병(고혈압, 심장병, 간 질환 등)과 암질환(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자궁암, 유방암)에 대한 건강검진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함. 조사인구중의 건강검진이나 암검진을 받은 자의 비율을 나타냄.
- 산 식 : $(\text{특정기간에 건강검진 또는 암검진을 받은 사람} / \text{총조사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보고서』

6-44. 예방접종률(Percentage vaccinated against major communicable diseas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예방접종은 질병예방에 가장 중요한 수단임.
- 산 식 : $\text{특정연도의 특정인구의 종류별 예방접종수} / \text{특정인구수}(0-4\text{세인구})$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45. 외래수진율(일반, 치과, 한방)

(Frequency of outpatient utilization per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6-46. 외래건당 내원일수(일반, 치과, 한방)(Visit days per treatment ca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6-47. 외래 내원일당 진료일수(일반, 치과, 한방)(Treatment days per visit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6-48. 병상이용률(일반, 특수병원, 한방)(bed utilization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병원운영의 합리화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병상당 재원환자이용률을 의미함. 여기서 일반병원이라 함은 종합병원, 병원을 말하고, 특수병원은 결핵, 정신, 나병원을 말함.
- 산 식 : $(1\text{일평균 재원환자수}/\text{가동병상수})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49. 입원수진율(일반, 한방)(Frequency of inpatient utilization per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and length of stay per inpati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전국민 건강보험이 달성되었기에 의료이용의 지표는 건강보험의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료이용률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가 수진율, 건당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일수임.

- 수진율 : 건강보험가입자가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연평균 몇번 하는 지에 대한 지표.
- 내원(입원)일수 :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건강보험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
- 진료일수 :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진료기간으로 총투약일수가 포함된 일수임.
- 산 식 : 수진율= 연간 진료건수(treatment case)/연평균 보험가입자수
 외래건당 내원일수= 내원일수/내원건수
 내원일당 진료일수= 진료일수/내원일수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6-50. 평균재원일수(일반, 한방)

(Frequency of inpatient utilization per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and length of stay per inpati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전국민 건강보험이 달성되었기에 의료이용의 지표는 건강보험의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료이용률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가 수진율, 건당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일수임.
 - 수진율: 건강보험가입자가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연평균 몇번 하는지에 대한 지표
 - 내원(입원)일수: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건강보험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
 - 진료일수 :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진료기간으로 총투약일수가 포함된 일수임.
- 산 식 : 수진율= 연간 진료건수(treatment case)/연평균 보험가입자수
 외래건당 내원일수= 내원일수/내원건수
 내원일당 진료일수= 진료일수/내원일수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6-51. 구급차 수 및 보유률(Number of ambulanc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52. 구급차 출장건수(Frequencies of dispatches of ambulanc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국가기관, 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에 보유하고 있는 총구급차수}) / \text{인구수} \times 100,000$
 $(\text{연간 총 구급차 출동건수}) / \text{인구수} \times 1,0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소방방재청

6-53. 의약품 소비량 및 생산실적(Consumption and production amounts of drug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의료이용에서 의약품 사용량이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아직 의약품 소비량에 대한 자료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의약품 생산실적으로 의약품 소비를 유추하게 됨.
- 산 식 : 품목별 생산량 제시
- 자료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등 생산실적보고』

6-54. 의료인력수 및 1인당 인구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Number of medical personnel)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보건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 \text{총인구} / \text{직종별 보건의료인력}$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55.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수(의사, 간호사)(Medical personnel working at medical faciliti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실제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인구당 또는 병상당으로 제시한 지표임. 의료기관이라 의료법상에서 정의한 모든 병원과 의원, 조산원 등이 포함됨.
 - 여기서 병원이라 함은 종합병원, 병원, 특수병원을 말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제외함.
- 산 식 : 병상당 인력=의료기관 종사 인력수/동일종류 의료기관의 병상수 $\times 100$
 인구 10만당 의료기관종사인력= 의료기관 종사 인력수/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56. 의료기관수 및 인구10만당 수(의료기관종별)(Number of medical faciliti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수= 의료기관수/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57. 병상수 및 인구10만당 병상수(의료기관종별)(Number of bed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인구 10만명당 병상수= 의료기관 총병상수/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58.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Ratio of public hospitals and hospital bed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공공병원이라 함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대학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과 같이 공공재정에서 투자한 병원을 말함. 공공병원 및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한방병원과 치과 병원은 제외함.
- 산 식 : 공공병원수(병상수)/전체 병원수(병원병상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59. 1인당 국민의료비지출(National health expenditures per capita)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영아사망률 및 기대여명이 보건의료부문의 산출물이라면 국민의료비는 투입물로서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국민의료비의 수준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요한 지표임.
- 산 식 : $1인당\ 국민의료비지출 = 총국민의료비 / 총인구$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의료비추계』

6-60.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용(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s share of G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GDP대비 국민의료비지출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분배 또는 투입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고 국제통계에서 제시하고 있음.
- 산 식 : $(국민의료비지출 / GDP) \times 1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의료비추계』

6-61. 공공의료비 지출 비율(Composition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국민의료비지출 중 공공부문 지출의 구성비율임.
- 산 식 : $(공공부문\ 의료비지출 / 국민의료비지출) \times 1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의료비추계』

6-62. 가구지출 중 의료비지출 비율(Health expenses as share of household expenditur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가계 소비지출 중에서 의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가구당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계자료는 통계청과 농림부에서 발표되고 있으나 의료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해석에 주의를 요함.
- 산 식 : $(가계의료비지출 / 가계소비지출)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6-63.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 지출비율

(Medical expenses by old age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s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비 지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산 식 : $(\text{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총액} / \text{건강보험 총진료비}) \times 10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6-64. 정부예산대비 보건예산 비율

(Annual health budgets as share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정부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보건부문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보건의료에 대한 자원배분의 정도를 알 수 있음.
- 산 식 : $(\text{보건부문 예산} / \text{당년도 총예산}) \times 100$
- 자료원 : 재정경제부, 『예산개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65. 장기이식건수(간, 신장, 폐, 심장 등의 이식건수)(Number of organ transplant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의료기술의 발달은 장기이식 등을 통하여 인간의 수명과 경제활동을 연장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래에도 계속되어 장기 등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나, 의료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적절함. 인공장기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장래에는 이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각 의학학회별로 자료가 발표되는 경우(예: 신장학회)도 있으나 보다 정확한 자료생산을 위해서는 병

원별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임.

- 산 식 : 건수 및 인구 10만당
- 자료원 : 국립의료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자료』

6-66. 의료보장구 장치건수(Number of persons equipped medical devices)

- 지표작성주기 : 2년
- 정 의 : 인공관절, 고정장치, 실리콘 등의 장치건수를 말하며, 장기이식건수와 같은 이유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산 식 : 건수 및 인구 10만당
- 자료원 : 보건복지부, (조사필요)

6-67. 고가장비보유대수(인구 10만명당)(Number of medical equipm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감마나이프, CT, MRI 등의 고가장비의 보유가 항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료기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의료수가 및 의료비와도 연결되어 있어 보건의료정책면에서도 중요한 지표임.
- 산 식 : 일정 시점에서의 고가장비보유대수/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주거와 교통

7-1. 주택보급률(Housing supply rat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 일반가구수(총가구에서 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에 대한 현존 주택수의 비율임.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 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함.
- 산 식 : $(\text{주택재고수} / \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2. 인구 1천명당 주택수(Number of Housing per 1,000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주택의 양적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가구기준으로 한 주택보급율과 함께 인구기준을 적용한 지표
- 산 식 : $\text{총주택수} / \text{총인구수} \times 10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3. 주택투자율(Housing investment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주거용건물 건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 산 식 : $(\text{총주거용건물건설 투자액} / \text{GNP}) \times 100$
- 자료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4. 연간 주택건설호수(Housing units constructe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공공 및 민간 주택건설수를 포함하며 공공부문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민간시공 주택건설), 주택사업자 등이 포

함됨.

- 산 식 : $(\text{연간 총건설호수} / \text{인구수}) \times 1,000$
- 자료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5. 주택의 유형(Type of housing uni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기타 등의 분포를 파악
- 자료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6. 공공주택 비중(Ratio of public housing)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공공주택은 주택공사, 지자체, 민간주택업체 등에서 건설·공급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년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주택 중 이들 주택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임.
- 산 식 : $\text{공공주택} / \text{전체주택} \times 100$
- 자료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7. 주택의 노후도(Housing by year of construction)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현재 거주주택의 내구년수를 의미함.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8. 주택 규모 (호당주택면적, 호당대지면적)(Floor space of housing)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양적인 주거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호당 주택면적 및 호당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음.
- 산 식 : $\text{호당 주택면적} = \text{전체 주택면적} / \text{주택수}$

호당 대지면적= 전체 대지면적/주택수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9. 최초 주택마련시 자금조달방법(Source of fund for purchasing own hou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에 자기집이 있었거나 현재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에게 자기소유의 최초주택을 마련했을 때 당시 조달한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여 각 방법(자금원천)의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 부모 및 친척보조, 저축, 융자 및 사채, 퇴직금, 보상금, 재산매각, 상속 등이 있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10. 도시주택가격지수(Housing purchase price indic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수요와 공급 양측간에 형성되는 가격변동상황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특히 주택수요측면에서 주택의 수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도시의 주택규모형태를 고려하여 매월 “도시주택 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얻음.
- 산 식 : 전월(혹은 전년) 대비 도시주택가격의 변화지수
- 자료원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7-11. 도시주택전세값지수(Chose price indices)

- 지표작성주기 :
- 정 의 :
 - 수요와 공급 양측간에 형성되는 전세가격변동상황을 측정하는 척도임.
 - 도시의 주택규모형태를 고려하여 매월 “도시주택 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얻음.
- 산 식 : 전월(혹은 전년) 대비 도시주택전세가격의 변화지수
- 자료원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7-12. 가구당 주택자금대출 비중(Ratio of housing loaning fund per househol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주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가구당 주택자금대출 비중을 파악
- 자료원 : 국민은행, 한국은행

7-13. 주택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Satisfaction level of the housing, The reason for dissatisfaction with housing)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하고 있는 주택자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
 - 주택에 대한 불만이유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약간 불만,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불만이유를 “일조, 통풍불량, 주택협소, 난방시설불량, 부대시설미비, 상하수도 시설 미흡” 등으로 구분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14. 원하는 주택규모(Desire floor space of housing)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자기집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장래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가구주가 앞으로 원하는 주택규모를 의미함. 주택규모는 보통 대지를 제외한 연건평을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15. 원하는 주택유형(Desire type of housing)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현재 주거하는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가구주가 장래 희망하는 주택형태를 조사함. 주택의 형태로는 “단독, 연립,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을 구분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16. 주거점유형태(Type of housing occupancy)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자가, 전세, 월세 형태별 주거비율임.
- 산 식 : {각 점유형태별 가구수(자가, 전세, 월세)/ 총가구수}×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17. 주택당 거주가구수(Resident households per housing)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1주택당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로, 항목으로는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이상으로 나누어 파악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7-1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Households under lowest residence level)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 성능 환경기준의 세가지 요소로 작성됨.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19. 현 주택거주년수(Years of residence at the current hous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가구주가 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7-20. 최초 주택마련시기(Time of purchasing own hou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가구주가 최초의 주택을 마련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알아보는 것임.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의 주택이란 「자기 소유의 주택」 개념에 따른 최초의 주택을 말하며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시기에 대해 사실상 혼

인을 기준으로 결혼이전과 결혼이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결혼이후 주택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결혼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년, 월 단위까지 파악하여 6개월을 단위로 하여 사사오입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21. 결혼후 내집마련까지의 이사회수(Moving frequency before purchasing own house after marriag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결혼후에 최초의 주택을 마련한 가구주만 대상으로 결혼후 최초의 주택을 마련한 때까지의 이사회수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22. 현 거주지 선택이유(Reasons for choosing the current resident area)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가구주를 대상으로 현거주지 선택이유를 “자녀교육 또는 본인 학업, 자녀육아 및 양육, 직장 또는 사업상, 교통 및 근린생활시설이 편리해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자연환경이 좋아서, 옛날부터 살아와서, 기타” 등으로 나누어 파악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23. 거주지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Satisfaction level of the resident area, The reason for dissatisfaction with resident area)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교통시설, 각종 편의시설, 주변환경, 공해 등 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지표로 주거지역 주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요인을 포함 측정
• 응답은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으로 나누어 조사함.

- 현거주지역에 대하여 약간 불만 또는 매우 불만으로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불만이유를 “교육여건불만, 교통사정불편, 주변환경불량, 공해, 편익시설낙후, 범죄다발지역, 기타” 등으로 나누어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24. 원하는 주거형태(Desire type of housing)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가구의 측면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형태를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25. 가구당 주거비 부담(Housing expenses burden per househol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제가구 소비지출 중에서 주거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구당 주거비용 구성비율 증감추세를 파악하는 지표임.
- 산 식 : $(\text{주거비지출} / \text{소비지출})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7-26. 가구당 주거면적(Floor space per household)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 주택규모의 변화를 나타내는 주거 복지지표로 주거면적(건평)을 살펴봄
• 가구당 주택수(또는 주택보급률)에 비하여 주택규모의 차이를 고려한 지표임.
- 산 식 : $\text{총사용건평} / \text{총가구수}$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27. 가구당 사용방수(Rooms per household)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가구당 주택수(또는 주택보급률)에 비하여 주택규모의 차이까지 고려한 지표임.

- 산 식 : 총사용방수/ 총가구수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28. 1인당 주거면적 비(Floor space per person)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가구별 가구원수 및 평균가구원수의 변화를 반영한 지표로 국민 1인당 사용 주거면적의 변화를 파악
- 산 식 : 총주거면적/ 총인구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29. 방당 거주인수(Persons per room)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가구당 주택수(또는 주택보급률)에 비하여 가구규모의 차이까지 고려한 지표임.
- 산 식 : 총가구원수/ 총사용방수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30. 상수도 보급률(Water supply facilities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총인구(연앙추계인구) 대비 급수인구 비율로 급수인구라 함은 간이상수도, 우물물, 기타를 제외한 상수도 사용인구임.
- 산 식 : (상수도 공급인구/ 총인구)×100
- 자료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31. 하수도 보급률(Sewer system supply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총인구(연앙추계인구) 대비 우수배수인구, 오수배수인구, 처리인구, 수세식인구 비율임.

- 산 식 : $(\text{하수도 공급인구} / \text{총인구}) \times 100$
- 자료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32. 입식부엌 시설률(Modern kitchen rat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 부엌의 현대화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임.
 -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입식부엌은 조리(취사)시설, 싱크대 등 현대식(입식)시설을 갖춘 부엌이 해당되며, 재래식은 싱크대 없이 재래식 아궁이 등을 갖추고 있는 부엌이 해당됨.
- 산 식 : $(\text{입식부엌시설 가구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33. 목욕탕 시설률(Bath facilities rat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파악
 - 목욕시설을 갖추고 따뜻한 물이 공급되면 온수시설, 그렇지 않으면 비온수시설로 함.
- 산 식 : $(\text{단독목욕탕시설 주택수} / \text{총주택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34. 수세식화장실 시설률(Flush bathroom facilities rat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수세식은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하여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수세식이외의 화장실시설을 재래식이라고 함.
- 산 식 : $(\text{수세식 변소 시설 가구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7-35. 주차장 확보율(Automobiles rate of parking spac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주택에서 주·야간 여부에 관계없이 운행하지 않을 때 가정에서 주로 주차하는 장소를 확보한 정도를 파악함.
- 산 식 : $(\text{전용주차장확보주택수} / \text{총주택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36. 가구별 난방방식(Housing units by type of heating facilitie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연탄온돌, 중앙집중식 난방, 단독연탄보일러, 단독유류보일러, 단독가스보일러, 단독전기보일러, 태양열, 지역난방 등의 사용난방을 파악
- 산 식 : $(\text{난방방식별 가구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37. 편의시설 근접도(Close contact level of Convenience facilitie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주거복지의 구성요소인 근린생활시설 중 금융기관, 우체국, 병·의원, 유치원·초등학교까지의 소요시간을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38. 교통기반시설규모(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통수단별 대표적 시설규모 (도로연장(도로밀도), 철도연장, 지하철영업거리, 공항처리능력, 항만처리능력)
- 산 식 : $\text{도로밀도} = \text{도로연장} / \text{국토면적}$
- 자료원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교통DB』

7-39. 교통수단보유규모(Vehicle possession by mod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통수단별 수송수단 보유 규모 (자동차등록대수, 철도차량보유대수, 항공기 대수, 국적선선박수)
- 자료원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교통DB』

7-40. 건설교통예산(Budget for transportation & construc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통부문에 투입된 예산 규모
- 자료원 : 건설교통부, 『국가교통DB』

7-41. 교통수단별 여객수송(Annual passenger traffic by mod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교통수단(공로, 철도, 지하철, 항공, 해운)별 연간 여객수송인원 및 수송량분담률
- 자료원 : 건설교통부, 『국가교통DB』

7-42. 평균 통행회수(Number of trips by purpo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1인당 일주일간 통행목적(통근통학, 학원, 업무, 개인용무, 쇼핑, 여가, 기타)별 통행회수
- 산 식 : 통행목적별 일주일간 총회수/ 총인구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43. 자가용승용차보유(1인당; Number of private cars per person, 1가구당; Number of private cars per househol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전국의 자동차등록대수-도로연장 대비 자동차수를 나타내는 차량당 도로연

장, 개인교통수단인 자가용승용차 보유율을 나타내는 1인당 및 1가구당 자가용승용차등록대수 지표 포함

- 산 식 : 1인당 자가용승용차보유대수 = 자가용승용차등록대수 / 주민등록인구
1가구당 자가용승용차보유대수 = 자가용승용차등록대수 / 가구수
차량당 도로 연장 = 총도로연장 / 자동차등록대수
- 자료원 : 건설교통부, 『국가교통DB』(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건설교통부 자료; 인구, 가구수-지자체 자료)

7-44. 자동차 주행속도(Average speed of motor vehicl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평균차량주행속도
 - 현재 서울시 및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통행속도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동차 주행속도를 나타낼 대표값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향후 산정방법이 제시되면 지자체의 속도조사 자료 등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주행속도 지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원 : 조사필요

7-45. 통근·통학 교통수단(Commuters and students by mod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하는데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46. 통근·통학 소요시간(Commuters and students by travel time)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
 -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직주근접과 교통수단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혼잡 등의 복합요인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갖는 지표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47. 버스·지하철 접근성(Access time to bus stop or subway sta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시간, 주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의 편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 자료원 : 조사필요

7-48.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Satisfaction level of traffic facilitie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표지판, 횡단보도 및 교차로 신호기 설치, 신호등, 도로넓이 등 교통시설에 대한 만족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49. 교통문제(Traffic Problem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회수 부족문제, 주차시설부족, 교통체증, 교통안전시설미비, 교통법규준수미약, 기타" 6개 세부항목에 대해 중요한 교통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나타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50. 교통수단별 만족도(Satisfaction level by traffic mod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주요교통수단인 자가용 / 버스 / 지하철 각각에 대해 통행수단으로써의 만족도를 나타냄
- 자료원 : 조사필요

7-51. 자가용 이용시 교통문제(Problems related to using private car)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자가용 이용시의 문제(불만족 사항)를 “교통체증(통행시간 증가 및 정시성 저하), 주차공간부족, 운전환경(신호, 표지 등 시설 미비 및 부적절, 난폭운전 등), 통행료, 유지비용 (차량구입, 유지관리, 보험료, 세금, 유류비 등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 자료원 : 조사필요

7-52.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문제(Problems related to using public transporta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대중교통 (버스와 지하철 등) 이용시의 문제(불만족 사항)를 “교통체증(통행시간 증가 및 정시성 저하), 접근성(노선) 부족, 환승, 대기시간, 운행회수 부족 및 배차간격 불안정, 탑승환경(혼잡, 좌석부족 등), 요금”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 자료원 : 조사필요

7-53. 통근·통학비용(Travel cost of home based work trip & school trip)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하는데 소요되는 금전적 통행비용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사회통계조사』

7-54. 도로교통혼잡비용(Road traffic congestion cos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특별·광역시 및 지역간 도로에서 도로교통혼잡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금전적 단위로 환산한 값

- 통계조사자료가 아니라 자료에 기초한 연구·분석 자료임

- 자료원 :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

7-55. 물류비용(Logistics cos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화물수송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나타냄, 물류비용의 대부분을 수송비용이 차지하고 있어 교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회적 비용임
- 통계조사자료가 아니라 자료에 기초한 연구·분석 자료임
- 자료원 :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

7-56. 도로교통사고비용(Social cost of road traffic accid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도로교통사고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
- 통계조사자료가 아니라 자료에 기초한 연구·분석 자료임
- 자료원 :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

7-57.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Monthly expenditure on transportation per househol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가구의 교통관련 지출비용과 공공교통지출, 개인교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8. 정보와 통신

8-1. 정보통신연구개발비(R&D expenditures on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정보통신부문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으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 파악
- 자료원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한국전자통신진흥원

8-2. 통신 기술도입액 및 기술수출액(Payments & receipts on import & export of information technolog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기술도입 및 수출액; 기술, 지적재산권, 자문, 설계 및 유지 용역 계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도입 및 수출액
- 자료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8-3. 정보통신산업 생산액(production of IT industr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정보통신산업에 속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의 생산액을 파악
- 자료원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www.kait.or.kr』

8-4. 정보통신산업 수출입(export & import of IT industr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정보통신산업에 속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의 수출입액을 파악
- 자료원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8-5.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수(employment in IT industr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정보통신산업의 정보통신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
- 자료원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www.kait.or.kr』

8-6. 인구 천명당 PC보급대수(PC supply per 1,000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개인 사용자, 일반 기업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용 컴퓨터의 보유 대수를 인구 1,000명당으로 나눈 지표임.
- 산 식 : $(\text{PC 보유대수} / \text{총인구수}) \times 1,000$
- 자료원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www.eiak.org』

8-7. 전화가입률(Telephone supply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전화가입률은 업무용 및 주택용 전화를 포함하며 차량용 및 공중전화는 제외됨.
- 산 식 : $\text{전화가입률} = \text{총전화 가입자수} / \text{총인구} \times 1,000,000$
- 자료원 : 정보통신부, 『www.mic.go.kr』

8-8.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Mobile telecommunication & broadband internet service subscriber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수 및 율을 파악
- 산 식 :
 - 이동전화 가입률 = $\text{이동전화가입자수} / \text{총인구} \times 10,000$
 -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 $\text{인터넷 가입자수} / \text{총인구} \times 10,000$
- 자료원 : 정보통신부, 『www.mic.go.kr』

8-9. 케이블TV 가입가구(Cable TV subscriber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케이블 TV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수를 파악
- 자료원 :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8-10. 위성방송 가입가구(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 subscriber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위성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수를 파악
- 자료원 : 방송위원회

8-11. 인터넷 이용률(Percentage of Internet user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특성별로 인터넷을 월평균 1회 이상 이용하는 율을 파악
- 산 식 : $\text{인터넷} = (\text{인터넷 가입회선} / \text{총전화회선}) \times 100$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12. 인터넷 호스트 및 도메인 수(Number of internet host & domai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전문대 이상 대학 및 대학원, 기업 및 상용기관, 중앙정부 기관, NT 운영기관, 비영리기관, 연구기관, 지역, 교육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기관별로 인터넷 호스트 수 및 도메인 수를 파악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KRING isis.nic.or.kr』

8-13. 인터넷 접속방식(Kinds of Internet Acces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인터넷 접속을 전화모뎀, ISDN, XDSL, 케이블 TV 등 어떤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지 중복응답이 가능토록 하여 파악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14. 전자상거래 규모(Electronic commerce marke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기업간 전자상거래,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파악함.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15. 최근 6개월내 인터넷쇼핑 경험 및 구매회수(Experience of internet shopping & number of purchase the last six month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대상 특성별로 인터넷 쇼핑경험여부 및 경험회수를 파악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16. 인터넷쇼핑 구매품목(Purchase goods or services by internet shopping(multiple respon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품목을 구입하였는지를 특성별로 파악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17. 인터넷 상거래 지출액(Amount paid for e-commerce transac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6개월 간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한 지출액을 특성별로 파악함.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18. 최근 6개월내 유료콘텐츠 이용경험, 이용종류(Experience of paid internet contents the last six months & The kind of paid internet contents(multiple respon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온라인 게임, 성인물, 영화 방송, 교육용 콘텐츠, 뉴스/신문, 증권 정보, 메일

용량추가/사이버 저장공간, 업무/연구목적 자료, 커뮤니티 동호회, 음악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경험 및 종류를 파악함.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19. 컴퓨터 이용시간(Hours used on Computer(average hours per week))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1주당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용하는 지를 파악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20. 컴퓨터 이용목적(Use of computer by purpose(multiple respon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PC 통신 인터넷, 자판연습, 게임오락, 업무수행, 정보자료관리, 교육 관련, 그래픽, 프로그램 개발 등 어디에 있는지를 복수응답토록 하여 파악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21. 휴대전화 이용목적(Use of mobile phone by purpose(multiple respon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휴대전화 이용목적이 통화, 문자서비스, 인터넷 검색, 사진, 음악감상, 금융결제, TV시청, 오락, 위치정보서비스 등 어느 것인지 복수응답토록 하여 파악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22. 인터넷 이용목적(Use of internet by purpose(multiple respon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인터넷 이용목적이 자료정보검색, 메일사용, 쇼핑예약, 채팅 메신저, 게임, 인터넷 बैं킹, 학습, 오락, 신문뉴스잡지 등인지를 복수응답으로 파악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23.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록 고객수(Internet Banking Service registr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등록한 고객수를 파악
- 자료원 : 한국은행, 『www.bok.or.kr』

8-24.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Monthly Average expense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인터넷 전용회선 접속가구, 전화보유가구, 이동전화 보유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의 변화를 파악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25. 필요정보 입수경로(Sources of getting needed information(multiple respons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방송, 신문, 생활정보지, 서적 잡지, PC 통신, 공공기관, 가족 동료 친구 등으로 구분하여 그 입수경로를 파악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26. 정보화의 영향(Effect of information societ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생활의 편의성, 사생활침해정도, 주변사람의 일자리 증가, 소외화, 비인간화 느끼는 정도, 소득격차의 변화, 지역문화 수준격차의 변화 등을 파악
 - 생활의 편리정도 변화 측정은 “그렇다, 전과 비슷하다, 그렇지 않다”로 사생활 침해 변화는 “그렇다, 전과 비슷하다, 그렇지 않다”로 주변사람의 일자리 늘은 정도는 “그렇다, 전과 비슷하다, 그렇지 않다”로 그리고 소외화, 비인간화를 많이 느끼는지 여부는, “그렇다, 전과 비슷하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소득격차가 줄었는지는 “그렇다, 전과 비슷하다, 그렇지 않다”로 그리고 지역문화수준 격차가 줄었는지는 “그렇다, 전과 비슷하다, 그렇지 않다” 등으로 파악함.

- 자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8-27.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성별, 학력별, 연령별, 직종별, 수입별 등 특성별로 컴퓨터이용률, 인터넷이용률 등의 차이를 파악
- 자료원 :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격차실태조사』

8-28. 해킹, 바이러스 및 스팸메일(Hacking, virus and spam mail))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해킹 피해건수, 바이러스피해건수, 스팸메일수신(1일평균) 등의 추세를 파악
- 자료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9. 환경

9-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Emission of air polluta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1년 동안 발생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먼지 등의 배출량을 의미함.
- 자료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2. 폐수발생량(Wastewater emission quantit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의미하며, 폐수발생량은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을 의미함.
- 자료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3. 1인당 생활오수 발생량(Sewage emission quantity per capita)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1인당 하루에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을 의미함.
- 산 식: 1인당 오수발생량 = 오수발생량/총인구
- 자료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4.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Generation quantity of domestic waste per capita per da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총량을 의미함.
- 산 식: 1인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총인구

- 자료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5. 지정폐기물 발생량(Generation quantity of specified was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등이 있음.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장 지정폐기물 총량을 의미함.
- 자료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6. 방사선폐기물 배출량(Emission of radial rays was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9-7.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비료소비량(Chemical fertilizer consumption as percent of crops produc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식량작물 생산량에 대한 비료 소비량의 비율로 식량작물은 미곡류, 맥류, 잡곡류, 두류, 서류를 포함
- 자료원: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9-8.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농약출하량(Agricultural chemicals shipment as percent of crops produc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식량작물 생산량에 대한 농약출하량의 비율로 식량작물은 미곡류, 맥류, 잡곡류, 두류, 서류를 포함
- 자료원: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9-9. 유해화학물질 유통량(Chemicals in Circulation)

- 지표작성주기 : 4년
- 정 의: 대기, 수질 배출업소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석유정제업 등 26개 업종의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1998년 현황을 1999년에 최초 조사하였으며, 4년을 주기로 조사할 예정임.
- 자료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10.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Emission of chemicals in non-point sources)

- 지표작성주기 : 4년
- 정 의: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s)은 비특정(비특정)오염원, 면(면)오염원, 이동오염원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도 함. 점오염원이 특정한 배출경로를 가진 것과는 달리 도시노면배수나 농경지배수와 같이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지역을 가리킴.
- 자료원: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화학물질과

9-11.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CO₂ emissions per capita)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연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의 총량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산업화에 따른 인간 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료원: OECD, IEA

9-12. CFCs 사용량(Use of CFC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이 지표는 대기 중에 배출되어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지구 표면을 보호하는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나타내는 지표임.
- 자료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13. 해양오염사고현황(Marine pollution accidents)

- 지표작성주기 : 부정기, 발생일시별로
- 정 의 :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 이동 중의 오염물질 및 유독 물질 유출사고 현황을 사고원인별과 사고 일시, 사고내용을 주 내용으로 제시함.
- 자료원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14. 상수도 보급률(Water supply faciliti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상수도 보급률은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의 백분율로서 여기에서 급수인구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급수시설이 정비된 지역내에 거주하여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를 의미함.
- 산 식 : $\text{상수도 보급률} = \text{상수도 급수인구} / \text{총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환경부, 『상수도 통계』

9-15. 1일 1인당 급수량(Amount of water supply per capita per da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1일 1인당 급수량은 정원용도를 포함하여, 음식물 섭취, 위생, 요리, 가정용기 세척 및 기타 가정용도의 목적으로 소비되는 물의 양을 의미함.
- 산 식 : $\text{1일 1인당 급수량} = \text{1일 총급수량} / \text{총인구}$
- 자료원 : 환경부, 『상수도 통계』

9-16. 지하수 이용현황(Use of groundwater)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이 지표는 국가 물수요에 대한 용수원이 개발되고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 국가의 물 부족 측면의 취약성을 측정해주는 역할을 함.
- 자료원 : 건설교통부, 『지하수조사연보』

9-17.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Final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최종에너지란 최종 소비부문의 에너지 이용설비에 알맞은 형태로 사용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총에너지 소비량을 총인구로 나눈양을 의미함.
- 산 식 :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 \frac{최종에너지\ 소비량}{총인구}$
- 자료원 : 산업자원부, 『에너지통계연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9-18. 1인당 전력 소비량(Electric power consumption per capita)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전력 소비량은 생산용, 주택용, 전철용, 전기사업자용, 수도, 상가 및 기타 등 판매전력 소비량 기준이며 1인당 소비량은 총 판매전력 소비량을 총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 산 식 : $1인당\ 전력소비량 = \frac{총\ 전력\ 소비량}{총인구}$
- 자료원 : 산업자원부, 『에너지통계연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9-19. 농지면적 변화추이(Area of cultivated lan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토지는 사용 방법에 따라 그 속성이 변화되는 한정된 자원으로 토지 사용의 변화는 토지 자원의 관리 및 장기 사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요한 지표임.
- 자료원 : 농림부 『환경통계연감』

9-20. 도시화율(Urbanization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환경부,

9-21. 산림면적(Forest area)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산림은 목재 및 기타 산림 자원을 제공하고 토양 침식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이산화탄소 흡수, 홍수조절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자료원 : 통계청, 『KOSIS』

9-22. 임목벌채(Logging)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목재는 경제활동을 위한 소모품의 가치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연환경으로 그 가치가 높음.
- 자료원: 산림청

9-23. 대기 오염도(Air pollu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아황산가스(SO₂)의 환경기준은 연간 평균치 0.02ppm이하이며, 24시간 평균치는 0.05ppm이하, 1시간 평균치는 0.15ppm이하임.
- 자료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24. 주요 도시의 오존 오염도(Ozone concentrations in major citi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오존(O₃) 환경기준은 연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는 0.1ppm이하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2조 ②」에 따라 대기오염정보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되었음. 1시간 평균농도 1.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시에는 경보, 0.5ppm 이상시에는 중대경보를 발령함.
- 자료원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25. 수질오염도(Water pollu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란 어떤 물속의 미생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 안정시키는 데 요구되는 산소량으로 물기 유기 오염의 지표 중 한가지임.
- 자료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26. 해수오염도(Marine pollu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란 물속의 유기물 등 오염이 되는 물질을 산화제로 산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의 양으로 하천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임.
- 자료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9-27. 주요 도시의 빗물의 산도(Acidity(pH) of rain in major citi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자연의 비는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와 평형상태에 있다고 하면 pH(수소이온 농도) 5.6이 하한(하한)임. 오늘날 이보다 훨씬 산성이 강한 강우가 전세계적으로 관측되고 있음. 산성비에는 포름알데히드·아크릴알데히드 등 각종 유기화합물이 검출되고 있음.
- 자료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28. 먹는 물의 수질 현황(Drinking water qualit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먹는 물의 수질현황은 수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검사 이외에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검사 결과이며, 정수장 및 수도꼭지는 1990년부터, 간이상수도는 1991년부터, 약수터는 1992년부터 시행하였음.
- 자료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29. 상수도 시설과 식수사용 행태(Water supply facility & source of drinking water)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상수도가 설치된 가구수와 주요한 음용수의 섭취 행태를 나타내는 지표임.
- 자료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9-30. 연간 총 어획량(Fishery produc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1년 동안 잡은 총 어획량을 측정함.
- 자료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9-31. 멸종위기 종 비율(Endangered, Vulnerable wildlif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멸종위기 종 비율은 알려진 종의 수와 그 중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비율임.
- 자료원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32. 주요 도시의 소음공해도(Noise levels in major citi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소음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서 환경기준치를 중심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소음 공해도를 측정 지역별로 구분하였음.
- 자료원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33.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Change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지표작성주기 : 4년
- 정 의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진동, 전반적 환경오염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지표이며 여기 서 지역의 범위는 동·읍·면 정도의 범위를 의미하며 해당이 없는 경우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로 조사하였음.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9-34. 농약 오염에 대한 불안(Contaminated by agriculture chemical)

- 지표작성주기 : 4년
- 정 의 : 각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심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불안’, ‘보통’, ‘불안하지 않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음.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9-35. 하수도 보급률(Sewerage system supply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폐수 처리율은 오염에 의한 부하를 줄이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공중위생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표임.
- 산 식: 하수도 보급률 = 총 하수처리 인구/총인구 × 100
- 자료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36.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소비비중(Share of consumption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소비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너지 소비원 중 수력을 이용한 에너지 자원의 이용비율을 측정함.
- 자료원: 통계청, 『KOSIS』

9-37. 폐기물 재활용(Waste recycling)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1년 동안 발생한 종이, 유리, 고철, 금속캔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측정하는 자료임.
- 자료원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38.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Expenditures on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per capita)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환경오염방지 지출통계는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환경오염을 예방,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대기, 폐기물, 수질 등 오염 매체별로 분류, 집계하는 통계임.
- 산 식 :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 환경오염방지 지출액/총인구
- 자료원 : 한국은행, 『환경오염방지지출 추계결과』

9-39. GDP 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비율(Expenditures on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as ratio to G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GDP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지출로 환경오염방지지출이란 오염 및 환경의 황폐화를 막고, 줄이고, 제거하는데 드는 실제 비용을 추산함.
- 산 식 :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 환경오염방지 지출액/GDP
- 자료원 : 한국은행, 『환경오염방지지출 추계결과』

9-40. 환경오염방지 노력(Ways of effor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서, 합성세제, 쓰레기 문제, 자연보호 운동참여에 대한 의식조사에 대한 자료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9-4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preserve the environmen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중심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것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9-42. 재생산업 사업체 수(Number of recycling products manufacturing co.)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수를 측정한 지표임.
- 자료원 : 한국환경자원공사

9-43.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활용 실적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사업체 일반사항과 재활용 의무 이행 계획량 및 실적을 측정함.
- 자료원 : 한국환경자원공사, 『정책개발팀』

9-44.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화 실적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사업체 일반 사항과 폐기물 발생량, 그리고 감량화 실적 등을 측정함.
- 자료원 : 한국환경자원공사, 『정책개발팀』

9-45. 환경보호 부담의향(Tax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환경보호와 관련한 지출을 위해 국민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총 5가지 응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자료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9-46. 공해배출 부담금 및 징수액(Imposition and collection of pollution charg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대기오염, 수질오염,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해서 공해배출 부담금을 징수하고 그 징수액을 추징한 자료임.

- 자료원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47. 쓰레기봉투 사용시 불편한 점(Inconveniences of the volume-rate garbage disposal system)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 처리비도 그만큼 많이 부담하는 제도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 복지

10-1.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예산(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as % of government expenditur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사회보장예산} / \text{정부예산})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2.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as % of G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사회보장예산} / \text{GDP})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3. GDP 대비 사회보장비지출(on social security as % of G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사회보장비지출을 GDP 대비 규모를 파악
- 산 식 : $(\text{사회보장지출비 총액} / \text{GDP}) \times 1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비 지출 추계』

10-4.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the change of living conditions)

- 지표작성주기 : 4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5. 기업복지재단수와 재단출연금(Number of corporate welfare foundations and contribu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위해 많은 기업이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음. 민간의 사회복지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주고 있음. 이러한 민간자원의 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의 수와 재단출연금을 지표화함.

- 자료원 : 삼성경제연구소

10-6. 민간부문 모금액(The amount of private sector fund raising)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민간사회복지사업의 대표적 재원인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경우, 1975년부터 정부에서 주관하던 이웃돕기 모금사업이 1998년 7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국 및 16개 지회)로 이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자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7.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5년전과 비교하여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삶의 변화정도 즉, 개선정도를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8. 현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현재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삶의 질 향상정도에 대한 기대 정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9.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현재와 비교하여 미래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정도를 파악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10.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Perception about the burden of social insurance)

- 지표작성주기 : 4년
- 정 의 : 건강보험에 있어서 기여의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매달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가 귀하의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11. 1인당 건강보험 부담액(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per covered pers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총보험료} / \text{건강보험 가입자수}) \times 10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10-12. 1인당 건강보험 급여액(Health insurance benefit per covered pers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총급여비} / \text{건강보험 가입자수})$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10-13. 공적연금 가입자(Public pension insura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공적연금 가입대상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에 가입한 자임.
- 산 식 : $(\text{공적연금 가입자} / \text{18세 이상 취업자}) \times 100$
- 자료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10-14. 공적연금 수급자(Public pension beneficiari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공적연금 수급자수} / \text{공적연금 가입자수}) \times 100$
- 자료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10-15. 공적연금 평균 급여비(Benefit amount per public pension beneficiar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종별 급여비} / \text{종별 급여건수}) \times 100$
- 자료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10-16.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Perception abou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17. 정부예산 대비 공공부조예산(Expenditure on public assistance as % of government expenditur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공공부조예산} / \text{정부예산})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18. GDP 대비 공공부조예산(Expenditure on public assistance as % of G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공공부조예산액} / \text{GDP})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19. 사회보장예산 대비 공공부조예산(Expenditure on public assistance as %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공공부조예산} / \text{사회보장예산})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2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No. of Public social welfare specialists by city/provinc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연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2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s of total popul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기초생활보장수급자} / \text{총인구})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22.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Medical aid beneficiaries as of total popul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의료급여대상자} / \text{총인구})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23.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by age grou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자료원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10-24. 일반 및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액(General recipient & institutional recipient beneficiari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총 급여액 / 수급자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25. 최저생계비(Minimum standard cost of living)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인간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 즉, 인간 노동능력의 원활한 재생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계비를 의미함. 가구원수별로 제시함.
- 자료원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10-26. 노숙인 수(Number of homeles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조사필요

10-27. 노숙인 보호시설 수(Number of institutions)

- 지표작성주기 : 2년
- 정 의 : 노숙인은 쉼터 이용자와 거리 노숙인으로 나누고 있으며, 쉼터는 노숙인 긴급구호를 위하여 종교기관, 사회복지관 등이 운영하고 있음.
- 자료원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10-28.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Expenditure on welfare service as % of government expenditur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사회복지서비스예산 / 정부예산) ×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29.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Expenditure on welfare service as % of G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사회복지서비스예산} / \text{GDP})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30. 사회보장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Expenditure on welfare service as %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사회복지서비스예산} / \text{사회보장예산})$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31.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수(Number of welfare institut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임.
- 산 식 :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시설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32. 사회복지수용시설별 평균 생활인원(Average number of inmates in welfare institut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시설별 생활인원} / \text{시설별 시설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33.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종사자수(Average number of workers in welfare institut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시설별 종사자수} / \text{시설별 시설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34. 사회복지관 수(Social welfare service centers by type of corpor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운영주체별 사회복지관 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35.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Qualified social welfare specialis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36.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수(Unreporte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y institution typ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37. 노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Elderly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 / 65세 이상 인구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38. 노인인구중 복지시설 생활인 비율(Elderly inmates in welfare institut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노인시설 수용자수 / 총노인수) ×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39. 노인복지시설별 시설수 및 입소자수(Number of welfare institutes for the aged & inmates by typ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노인복지시설별 시설수 및 입소자 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40. 65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 여부(Physical activities of the elderly aged 60 Years & over)

- 지표작성주기 : 5년
- 산 식 : 65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 여부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0-41.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Means of living of the elderly aged 65 Years & over)

- 지표작성주기 : 5년
- 산 식 :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0-42. 65세 이상 인구의 자녀거주 장소(Children's residence of the elderly aged 65 Years & over)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65세 이상 인구의 자녀거주 장소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0-43.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종사상의 지위(Employed persons by industry & employment status aged 65 years & over)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종사상의 지위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0-44. 65세 이상 인구의 주부양자(Major supporter of the elderly aged 65 years & over)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65세 이상 인구의 주부양자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0-45. 노인문제(Problems of old ma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65세 이상 노인문제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46.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방법(Method of receiving living costs aged 60years & over)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방법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47. 65세 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Welfare service aged 60years & over)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65세 이상 받고 싶은 서비스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48. 65세 이상 여가시간 활용의향(Opinions about use of spare time aged 60years & over)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65세 이상 인구의 여가시간 활용의향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49. 65세 이상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Whether live with sons and daughters in the future or not aged 60 years & over)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65세 이상 인구의 자녀와 동거여부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50. 65세 이상 장래 살고 싶은 곳(Place to live in the future aged 60years & over)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65세 이상 장래 살고 싶은 곳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51. 모자보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Number of maternal and child welfare institution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모자보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52. 미혼모 보호시설 및 인원(Number of unmarried mother institution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미혼모 보호시설 수 및 보호인원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0-54. 자녀양육실태(Conditions for bringing up childre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자녀 양육실태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0-55. 소년소녀가장 가구수(Number of child headed household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아가는 가구로서 생계·의
료급여 및 교육급여를 실시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56.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수(Daycare centers & accommodated childre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57. 아동입양 기관수 및 입양아 수(Adoption agencies & adopted childre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아동입양 현황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58. 요보호아동 발생수(Status of children needing protection and treatm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요보호아동이란 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 받고 있는 아동, 기타 환경상 요양을 요하는 아동을 가리키며, 광의로는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자의 간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말함.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아동을 의미하며, 기아, 미혼모의 아동, 미아, 가출아로 나눌 수 있음.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0-59. 위탁아동 보호현황(Number of consigned children to the group hom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위탁아동이란 요보호아동 5~6명과 보호자 1인으로 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사회적응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에 보호하는 제도임.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0-60. 장애인 등록률(Percentage of registered disabled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한 장애인을 의미함.
- 산 식 : $(\text{등록장애인수} / \text{추정 장애인수})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0-61. 장애인 의무고용준수율(Percentage of establishments abiding quota for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산 식 : $(\text{의무고용준수사업체수} / \text{의무고용대상사업체수}) \times 100$
- 자료원 :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62. 장애유형별 장애인수(Disabled persons by type & number of disabled persons per 100person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나누어짐.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10-63. 장애인 출현율(Detected prevalence rate of the disabled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산 식 : $(\text{장애인수} / \text{총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10-64. 장애인 취업자 비율(Employment Rate of disabled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산 식 : $(\text{취업장애인수} / \text{취업희망장애인수}) \times 1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10-65. 장애인중 복지시설 수용자 비율(Percentage of welfare facilities inmates among the disabled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0-66. 취업희망 장애인 비율(Percentage of disabled persons wishing to work)

- 지표작성주기 : 5년
- 산 식 : $(\text{취업장애인수} / \text{취업희망장애인수}) \times 1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10-67.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 지표작성주기 : 5년
- 산 식 : $(\text{차별경험 장애인 수} / \text{장애인수}) \times 1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10-68. 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비율(Disabled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수} / \text{등록장애인 수}) \times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현황분석』

10-69. 희망하는 복지혜택(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재가장애인의 복지욕구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10-70.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수(Facilities for the traffic convenience of handicapped)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장애인 교통 편의시설 즉, 장애인 전용주차면수, 횡단보도, 유도노면, 음성정보신호수, 지하철승강기 시설수 등을 조사
- 자료원 : 조사필요

11. 문화와 여가

11-1. 국가지정 문화재 수(Number of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수를 의미함.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기념물, 중요민속자료로 분류하며, 유형문화재는 국보와 보물, 기념물은 사적, 사적·명승, 명승, 천연기념물로 세분류함.
- 자료원: 문화재청, 『문화재청연보』

11-2. 시·도지정 문화재 수(Number of Civic & Provinci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재 수를 의미함.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함.
- 자료원 : 문화재청, 『문화재청연보』

11-3. 문화시설 수(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 시·도별 문화시설 수를 의미함. “문화예술진흥법”의 분류에 따르면, 문화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타문화시설로 분류됨. 이 가운데 영화관, 도서관, 야외음악당, 조각공원, 기타시설은 제외함. 영화관과 도서관은 개별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야외음악당과 조각공원은 그 수가 적고, 실외에 위치하여 다른 항목과 공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시설은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한편 공연장은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으로 세분류하여 파악함.

- 자료원 :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1-4. 도서관 수(Number of Libraries)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 연도별 도서관 수를 의미함.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으로 분류됨. 이 가운데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제외하였는데, 이것은 도서관 관련 지표가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데 한정되기 때문임.
- 자료원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1-5. 도서관 장서 수(Number of Volumes in Libraries)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 도서관 수에서 파악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수를 의미함. 인구 만 명 당 장서 수를 포함함. 한편 정기간행물과 비도서자료(시청각매체)를 추가하여 파악함.
- 자료원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1-6. 도서관 좌석 수(Number of Seats in Libraries)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 도서관 수에서 파악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좌석 수를 의미함. 인구 만 명 당 좌석 수를 포함함.
- 자료원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1-7. 영화관 수(Number of Movie Theater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시도별 영화관 수를 의미함. 인구 만명 당 영화관 수를 포함함.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영화상영관이라고 함. 영화상영관은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과 영화관으로

구분되는데, 자동차극장은 상설 영화상영 공간이 아니므로 제외함.

- 자료원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

11-8. 영화관 스크린 수(Number of Screens in Movie Theaters)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 영화관 수에서 파악한 영화관이 보유하고 있는 스크린(영사막) 수를 의미함. 인구 만명 당 스크린 수를 포함함.
- 자료원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

11-9. 영화관 좌석 수(Number of Seats in Movie Theater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영화관 수에서 파악한 영화관이 보유한 좌석 수를 의미함. 또한 인구 만명 당 좌석 수를 포함함.
- 자료원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

11-10. 문화시설 이용률(Percentage of People Visiting at Cultural Facilitie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 산 식 : 문화시설 이용률 = (연간 시설별 이용자/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11. 예술행사 수(Number of Artistic Events)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 예술행사는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국악공연), 대중가요콘서트, 미술전시회를 의미함.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파악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연간, 시·도별 예술행사 수를 파악함. 초·중등학교 행사와 음식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는 제외함.

- 자료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연감』

11-12. 영화상영편수(Number of Films Released)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 단편영화를 제외하고 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편수를 의미하며,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로 분류함.
- 자료원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

11-13. 예술행사 관람률(Percentage of People Attending at Artistic Event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예술행사 관람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예술행사는 공연예술행사, 대중예술행사, 미술전시회로 분류함. 공연예술은 음악(오페라 포함), 연극(뮤지컬 포함), 무용, 국악공연으로 세분류하며, 대중예술은 영화와 대중가요콘서트로 세분류함. 예술행사와 마찬가지로 초·중등학교 행사와 음식점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제외함. 관람률과 함께 연평균 관람횟수를 포함시킬 수 있음.
- 산 식 : 예술행사 관람률: (연간 예술행사 관람자/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14. 문화예술교육 참여율(Percentage of People Taking Private Arts Course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까지 문화예술교육 강좌에 참여(수강)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문화예술교육은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영화, 문화유산으로 분류됨. 교육담당 주체는 공공기관, 학원, 대학교부설 기관, 방송국과 사설단체(백화점, 신문사) 부설문화센터 등을 의미함.
- 산 식 :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 (문화예술교육별 참여자/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15. 도서발행 종수(Number of Kinds of Publications)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 매년 신간 발행하여 문화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의 종류를 의미함. 도서는 종이에 인쇄하는 간행물 가운데 정부·연구기관 발간물, 초·중등학교 교과서, 정기간행물, 팜플렛을 제외한 것을 의미함. 또한 전자매체에 편집·복제하는 전자출판물을 제외함. 도서분류는 십진분류법(Korea Decimal Classification)에 따르되, 학습참고서, 아동, 만화를 포함함. 따라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학습참고서, 아동, 만화로 분류함.
- 자료원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11-16. 도서발행 부수(Number of Volumes of Publications)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 도서발행 종수에서 파악한 도서의 발행권수를 의미함.
- 자료원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11-17. 독서인구 비율(Percentage of People Reading Book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도서(문학도서, 교양도서, 실용도서, 기타), 잡지, 만화로 분류함. 문학도서는 시, 소설, 수필 등을 의미함. 교양도서는 문학 이외의 역사, 정치, 경제, 종교, 과학, 예술, 철학 등을 의미함. 실용도서는 어학, 컴퓨터, 건강, 스포츠, 취미, 재테크 등을 의미함. 독서경험자의 평균 독서권수를 포함함.
- 산 식 : 독서인구 비율: $(\text{연간 독서경험자} / \text{15세 이상 조사인구}) \times 100$
연평균 독서권수: $\text{연간 총 독서권수} / \text{독서인구}$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18. 신문구독률(Percentage of People Reading Newspaper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신문을 읽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신문은 일간신문을 의미하며, 인터넷신문은 제외함. 인터넷 신문은 문화관련 인터넷 사이트이용률에서 별도로 측정함. 하루평균 신문구독 시간을 포함함.
- 산 식 : $\text{신문구독률} = (\text{1주간 신문 구독자} / \text{15세 이상 조사인구}) \times 100$
하루 평균 신문구독시간 = 하루 신문구독 총시간 / 신문구독 인구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19. 신문 관심부문(Favorite Section in Newspaper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신문 독자가 관심있게 읽는 지면의 비율을 의미함. 지면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역, 연예, 스포츠, 문화, 과학, 사설·칼럼, 기타로 분류하며, 설문조사 시 중복응답 문항으로 함.
- 산 식 : $\text{신문 관심부문} = \text{항목별 응답수} / \text{신문구독 인구 수}$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0. 텔레비전 시청률(Percentage of People Watching TV)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텔레비전은 지상파, CATV, 위성TV를 포함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TV시청은 제외함. 인터넷 TV 시청은 문화관련 인터넷 사이트이용률에서 별도로 측정함. 텔레비전 시청시간을 포함하며, 시청비율과 시청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파악함.
- 산 식 : $\text{텔레비전 시청률} = (\text{1주간 텔레비전 시청자} / \text{15세 이상 조사인구}) \times 100$
주간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 = 1주간 총 시청시간 / 텔레비전 시청인구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1. 텔레비전 선호프로그램(Favorite TV Program)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텔레비전 시청자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의 비율을 의미함. 프로그램은 뉴스, 드라마, 교육, 교양, 스포츠, 영화, 연예·가요·코미디, 만화, 홈쇼핑, 기타로 분류함. 설문조사 시 중복응답 문항으로 함.
- 산 식 : $\text{신문 관심부문} = \text{항목별 응답수} / \text{텔레비전 시청 인구 수}$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2.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Level of Satisfaction with TV)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텔레비전 시청자가 텔레비전 방송내용과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파악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3. 비디오 시청률(Percentage of People Watching Video)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개월 동안 비디오물을 시청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의미함. 비디오물은 비디오테이프, DVD로 구분하며, 장르는 오락(영화), 교육, 기타로 분류함.
 - 인터넷을 이용한 시청은 제외하며, 문화관련 인터넷 사이트이용률에서 별도로 측정함. 월평균 시청편수를 포함함.
- 산 식 : $\text{비디오 시청률} = (\text{1개월 동안 비디오 시청자} / \text{15세 이상 조사인구}) \times 100$
 $\text{월평균 비디오 시청편수} = \text{월간 총 시청편수} / \text{비디오 시청인구}$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4. 음악청취율(Percentage of People Listening Music)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음반을 이용하여 음악을 청취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음반은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의미함. 음반은 LP, CD, 테이프로 분류함. 적극적인 음악청취를 의미하므로 라디오를 이용한 음악청취는 제외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음악청취는 문화관련 인터넷사이트 이용률에서 별도로 측정함. 주간평균 음악 청취시간을 포함함.
- 산 식 : 음악 청취율 = (1주 동안 음악 청취자/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주간 평균 음악 청취시간 = 1주간 총 청취시간/음악 청취인구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5. 선호하는 음악장르(Favorite Music Genre)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음반을 이용한 음악 청취자가 가장 자주 듣는 음악장르의 비율을 의미함. 음악장르는 클래식, 한국가요, 외국가요, 국악, 기타로 분류함.
- 산 식 : 선호하는 음악장르 = 부분별 응답수/음악 청취 인구 수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6. 게임물 이용률(Percentage of People Using Electronic Game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비율을 의미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의미함. 게임물은 이용기기에 따라 온라인게임, 아케이드게임, PC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으로 분

류함. 또한 주간평균 게임시간을 포함함.

• 게임물 이용비율과 게임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파악함.

- 산 식 : 게임물 이용률 = (1주 동안 게임물 이용자/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주간 평균 게임시간 = 1주간 총 게임시간/게임 이용자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7. 문화예술 인터넷사이트 이용률(Percentage of People Using Internet Site Related Culture)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개월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화예술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접속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관련 사이트는 도서(문학), 공연예술, 미술, 영화, 음악, 신문, 방송, 만화, 게임으로 분류함. 정보와 통신부문의 통신서비스이용과 연계하여 파악함. 설문조사 시 중복응답 문항으로 함.

- 산 식 : 문화관련 인터넷사이트 이용률 = (각 사이트별 이용자/인터넷 사용자)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8. 문화자원봉사활동 참여율(Percentage of People Participating in Voluntary Culture Service)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까지 문화관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문화자원봉사 참여는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유적지, 지역문화예술축제 등에서 무급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함. 연평균 참여횟수를 포함함. 사회참여 부문의 지표인 자원봉사활동과 연계될 수 있음.

- 산 식 : 문화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문화자원 봉사경험자/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연평균 문화자원봉사 참여횟수 = 연간 문화자원봉사 참여횟수/자원봉사 참여자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9. 문화단체 참여율(Percentage of Participating in Cultural Group)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까지 문화관련 동호회, 단체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문화단체는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영화, 문화유산, 생활취미, 여행, 체육과 관련된 단체로 분류함. 사회참여 부문의 지표인 사회단체참여의 스포츠·레저단체 참여와 연계될 수 있음.
- 산 식 : 문화단체 참여율 = (문화단체 참여자 수/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30. 여가활용 방법(Types of Leisure Activitie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여가는 노동(가사포함), 학교생활, 이동시간, 수면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여가활동은 예술관람, 스포츠관람, TV시청, 취미활동, 스포츠, 여행, 사교, 휴식(낮잠 포함), 인터넷 이용, 기타로 분류함. 평일과 주말·휴일로 나누어 파악함. 설문조사 시 중복응답을 하도록 함.
- 산 식 : 여가활용 방법 = (항목별 응답 수/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31. 여가활용 만족도(Level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여가활용에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5점척도로 파악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32.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Inhibiting Factor to Leisure Activitie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여가활동을 하는 데 걸림돌을 의미함.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시설부족, 프로그램부족, 정보부족, 건강·체력부족, 기타로 구분함. 기존지표에서는 여가활용에 '불만'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번 지표에서는 조사대상자가 15세 이상 전체임.
- 산 식 :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 (항목별 응답수/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33. 평균 여가시간(Average Time Spent on Leisure Activitie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의미함. 여가시간은 『생활시간조사보고서』의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으로 치환하여 파악함. 『생활시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시간은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로 구분됨. '교제 및 여가시간'은 교제활동, 대중매체이용, 종교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리고 기타로 분류됨.
- 자료원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보고서』

11-34. 가구 여가활동 비용(Expenditure on Leisure per Household)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 여가활동비용은 『도시가계조사연보』와 『농가경제통계』의 교양오락비로 치환하여 파악함. 『도시가계조사연보』에 따르면, 가구 소비지출은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로 나누어짐. 교양오락비는 신문도서, 교양오락품기구, 교양오락서비스를 포괄함. 또한 교양오락비가 가구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측정함.
- 산 식 : 교양오락비 비중 = (교양오락비/소비지출총액) × 100
-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연보』, 『농가경제통계』

11-35.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Time spend on activitie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 주요 항목별로 1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를 측정
• 생활시간은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 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로 구분됨. '교제 및 여가시간'은 교제활동, 대중매체이용, 종교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리고 기타로 분류됨.

- 자료원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1-36.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Attitude about time spend on activitie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 현대인은 항상 생활시간을 쪼개어 써야만 함. 따라서 생활시간이 여유 있는지 여부가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기반이 제공되는지를 밝혀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본측면이라고 할 수 있음.
• 응답은 "항상 쫓기고 있다, 때때로 쫓기고 있다, 쫓기는 일이 거의 없다"로 조사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37. 국내 관광여행 비율(Percentage of People Touring the Domestic)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여행을 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관광여행은 숙박여행과 비숙박(당일)여행으로 구분함. 연평균 여행횟수를 포함함.

- 산 식 : 관광여행 비율 = (1년간 관광여행 경험자/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연평균 관광여행 횟수 = (총 관광여행 횟수/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38. 국내 관광여행 지역(Domestic Tourists' Destination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여행을 한 사람의 목적지를 16개 시·도별로 분류한 것을 의미함. 설문조사 시 중복응답을 하도록 함.
- 산 식 : 국내 관광여행 지역 = (시·도별 응답 수/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39. 휴양시설 이용률(Percentage of People Visiting at Resort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관광시설은 “관광진흥법”의 전문휴양업을 재조정한 것임.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전문휴양업은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등록체육시설(스키장, 골프장 등),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을 의미함. 이 가운데 해수욕장, 온천장, 골프장, 스키장, 산림욕장과, 휴양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주요한 여행지인 놀이공원(테마파크)을 추가하였음.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상기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설문조사 시 중복응답을 하도록 함.
- 산 식 : 휴양시설 이용률 = (지난 1년간 시설별 이용자/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40. 해외여행 비율(Percentage of People Touring Oversea)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해외여행 경험을 의미함. 해외여행은 관광목적뿐만 아니라 가사(가사), 업무, 연수(교육)목적의 여행까지 포함함.
- 산 식 : 해외여행 비율 = (1년간 해외여행 경험자/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41. 시·도별 체육시설(Sports Facilities by City & Provinces)

- 지표작성주기: 매년
- 정 의 :
 -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의 수, 면적, 그리고 1인당 면적을 의미함.
 -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체육관 등 모두 27개 시설로 분류됨.
 - 등록체육시설은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로 분류된다. 신고체육시설은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으로 분류됨.
- 산 식 : 체육시설 1인당 면적 = 체육시설 총면적/시·도별 인구
- 자료원 : 문화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현황』

11-42. 생활체육 참여율(Percentage of People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ie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생활체육은 건강증진과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의미함. 체육종목은 육상·조깅, 등산, 보디빌딩, 맨손체조, 수영, 축구, 스케이트, 자전거, 배드민턴, 에어로빅, 농구, 골프, 테니스, 볼링, 탁구, 요가, 스쿼시, 댄스, 검도, 무도, 기체조, 족구,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개월 동안 위와 같은 운동을 직접 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주간 운동빈도를 포함함.
- 산 식 : 생활체육참여율 = (생활체육 활동 경험자/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문화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11-43. 스포츠경기 관람률(Percentage of Admission in Spectator Sports)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종목의 프로·아마추어

경기를 관중석에서 관람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경기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테니스, 기타로 분류함.

- 산 식 : 스포츠경기 관람률 = (경기 관람자/15세 이상 조사인구)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문화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11-44.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 지표작성주기: 3년
- 정 의 :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 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 안전

12-1. 향후 5년간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직장, 개인 가정생활)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5년 후에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안전(안정)하게 영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지표임.
 - 응답은 “①항상 가능할 것이다, ②때때로 가능할 것이다, ③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④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등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를 거쳐 정함.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경우는 그 이유를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이유: ①회사(직장)의 장래성 부재 ②퇴직(실직)대상의 예상 ③자신의 능력부족, ④직장생활 부적응 ⑤기타

12-2.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Law-abiding Level, Oneself and Other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자기평가 준법수준(또는 준법정신)란 자기 자신이 평가한 준법수준을 의미하고, 타인평가 준법수준이란 다른 사람의 준법수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함.
 - 응답은 “지킨다, 보통이다, 안 지킨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3. 사회안전(안정)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Social Safety and Order)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사회안전(안정)이란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고 사회질서가 바른 상태를 의미하고, 불안요인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위험사상, 국가안보, 치안, 범죄, 각종사고, 각종 정보보안(개인, 회사, 인터넷망 등), 기타 등의

개인적인 요인이 아닌 사회전체의 포괄적인 불안요인을 의미함. 사회적으로 관심사로 부각되는 안전(안녕)과 공중질서(Public order)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견해를 반영하는 지표임.

- '정보보안'은 인터넷 침해사고(2004년 1월 25일)와 같이 해킹·바이러스 유포로 인해 개별 시스템이나 네트워크가 입는 피해를 입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급속히 증가하는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정도 등임. 단순한 정보화의 역기능차원을 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함. 기존 조사에 항목의 추가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여겨짐.
- 조사항목(예) : 국가안보, 치안, 경제, 환경, 건축물 및 시설물, 식품, 교통, 각종 통신망, 주거지역의 불안전지대, 공중질서, 정보안전도, 기타 등임. 이러한 조사항목들은 불안하지 않은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 조사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응답은 "매우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그저 그렇다, 비교적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4.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Fear of Crim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주요범죄피해에 대하여 예상되는 두려움의 정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빈도가 많지 않은 '살인'은 제외함).
 - 응답은 "느낀다, 보통이다, 못 느낀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느낀다에 응답하는 경우 "강도(Robbery), 절도(Theft), 주거침입절도(Burglary), 강제추행(Sexually motivated violence 여성), 폭행·상해, (Bodily harm), 기타(Others)" 등에 대하여 가장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범죄가 무엇인지를 질문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5.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Percentage of Phone Harassmen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유·무선 전화를 통한 폭력과 공갈, 협박을 당한 경험여부를 파악하는 지표임.
- 산 식 : 전화폭력을 경험한 인구수/조사인구수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6.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Fear of Crime : Persons Afraid to Walk Alone at Nigh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1Km 또는 1 mile 안에 있는 지역에서 야간 보행시에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운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음으로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설계된 지표임. 참고로 미국과 독일의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 미국 ; Is there any area right around here – that is, within a mile – where you would be afraid to walk alone at night?
 - 독일 : Is there any area in the immediate proximity -- I mean within a radius about one kilometre?
 - 조사항목의 추가 : 1990년대 중반이후 ‘야간보행시의 위험한 장소(지역)’ 보다는 ‘야간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고 있음. 예컨대 1993년 이후부터 독일은 “How secure do you feel or would you feel, if you are outside at night on your own in this area around here?”와 같이 질문하고 있음. 따라서 이 질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우리말 질문을 사회통계조사시에 추가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응답은 “두렵다(있다), 두렵지 않다(없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7. 성희롱 경험률*(Percentage of Sexual Harassment)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직장내(상사, 동료, 기타), 사이버공간(인터넷 등)에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의 이용 중에, 도로상에서, 음식점 등에서, 기타 등지에서 응답자(남자, 여자)가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임. 성희롱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의 계수화를 위해서는 조사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검토와 사전조율이 필요함(특히 직장, 대중교통의 이용 중에 성희롱을 경험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한 내용도 조사하여야 할 것임).

- 산 식 : 성희롱 경험한 여성인구수/조사대상 여성 인구수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8. 공직자의 증·수뢰 경험비율(Percentage of Bribery-Government Official)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공직자가 뇌물을 요구하였거나 뇌물을 기대하였던 경험을 한 사람의 비율.
 - 응답은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주었다)', '없다(주지 않았다)'이며 있다(주었다)의 경우 그 이유를 묻음.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9. 보고된 범죄발생 총건수(인구 10만명당) (Number of reported Crimes per 100,000 persons, excluded traffic acci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형법범 및 특별범 범죄의 총 발생건수를 의미함. 형법범의 경우 유형별로 표시함.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10. 보고된 주요범죄 발생건수(인구 10만명당)

(Number of reported Major-Crimes* per 100,000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주요범죄로는 절도, 강도, 폭행 및 상해, 강간, 살인이 있고, 절도란 남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강도란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단순강도, 특수강도, 살인강도, 기타), 폭행·상해란 형법상의 폭행 및 상해,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정한 연령 이상의 부녀를 간음하는 것, 살인이란 보통살인, 존속살인, 영아살인, 기타 등을 각각 의미함.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11. 자동차절도·자동차털이 범죄율(Motor-Vehicle Theft Rate, Rate of Theft from Motor Vehicl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자동차 절도범죄발생건수: 등록차량 10만대당 보고된 자동차 절도발생건수
• 자동차털이 범죄발생건수: 등록차량 10만대당 보고된 자동차 절도발생건수

- 자료원 : 경찰청 자료

12-12. 미성년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율(10만명당) (Sexually Abused Rate under Age of 15)

- 지표작성주기 : 매년(장래개발)

- 정 의 : 15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에 대한 성적학대율은 이 연령층에 대한 강간과 강간미수 건수를 여성인구 10만명당으로 그 발생건수를 표시함.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된 총강간건수는 2001년 현재 6,911건으로서 이 중 15세 미만여성만을 집계하면 대단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지표에 의하여 보고되지 않은 성적학대발생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음.

- 산 식 : $(15\text{세미만 여성에 대한 강간 및 강간미수발생건수} / \text{여성인구}) \times 100,000$

- 자료원 : 경찰청 자료

12-13. 가정폭력 발생율(1,000가구당)(Number of Domestic Violence per 1,000 household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사태의 발생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임. 가정폭력의 범위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폭력, 부부싸움,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으로 구분되나, 폭력의 범위는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학대 등 그 범위의 규정이 쉽지 않음. 흔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구타임. 이 지표의 집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97. 12. 31. 시행 1998. 7. 1)에 의하여 보고된 가정내폭력 발생건수를 1,000가구당으로 표시함.

- 산 식 : (가정폭력발생건수/ 총보통가구) × 1,000
- 자료원 : 경찰청 자료

12-14. 마약류 범죄율(인구 10만명당) (Drug Offense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마약류는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표현됨. 우리나라는 마약, 향정(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3가지 마약류에 대한 세분류는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름.
 -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천연마약, 합성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등에 대한 비교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료원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2-15. 외국인에 의한 국내범죄발생 건수(Number of Foreigner's Crim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외국인(국적기준)에 의하여 발생한 국내범죄의 연간 건수 또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자수(발생건수보다 많이 나타남)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범죄의 주동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말함.
 - 범죄종류별로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있음. 형법범은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풍속범죄, 기타 등이 있고, 특별법범은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기타 특별법범 등이 있음.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16.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발생 건수(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Korean Abroa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의 연간 발생건수는 범죄의 주동자가 내국인인 경우를 의미함.
- 자료원 : 개발필요

12-17. 주요범죄별 범죄자수(인구 10만명당) (Reported Criminal Offenders by Major-Crim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주요범죄별 범죄자수} / \text{총 인구}) \times 100,000$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18. 주요범죄자 평균연령(Average Age of Offenders by Major-Crim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19. 주요범죄 재범자비율(Re-offender Rate : Major-Crim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주요범죄 재범자수} / \text{주요범죄자수}) \times 100$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20. 교도소 재소자수(인구 10만명당)(Average Number of Inmates per 100,000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연간 교도소재소자수} / \text{총인구}) \times 100,000$
- 자료원 : 법무부, 『법무연감』

12-21. 여성범죄자의 비율(Percentage of Female Offenders by Motiv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여성범죄자수} / \text{총범죄자수}) \times 100$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22. 마약류범죄 체포자수(Number of Captures by selected Drug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2-23. 수감되지 않은 각종 법규위반자 수(Unconfined Law-violators per 100,000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수감되지 않은 범법자의 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임.
- 자료원 : 경찰청 자료

12-24. 청소년 범죄율(Percentage of Juvenile Offender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20\text{세 미만의 주요 범죄자수} / \text{주요 범죄자수}) \times 100$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25. 청소년 범죄 피의자 비율(Juvenile Criminally Accused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청소년이 장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남자, 여자의 비율을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26. 학교주변 및 교내폭력·협박의 피해학생수(학생 1만명당)

(Number of Student in and School surrounding)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학교주변이란 등하교시 통학 도로상을 의미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27.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Perception of Juvenile Delinquenc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청소년에 의한 비행 및 탈선행동에 대한 인지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 인지정도는 “경험하였다, 보았다, 들었다” 등으로 조사되고, 인지내용은 학내에서 “학생간 폭행, 집단구타, 학내 시설물 파괴, 스승구타” 등이고, 가정에서는 “혈연폭행, 가구집기의 파괴, 가출” 등이며, 사회에서는 “흡연, 음주, 악물의 오·남용, 심야배회, 성적 탈선” 등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28.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률과 피해자수(인구 10만명당)

(Major-Crimes Rate and Number of Victim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주요범죄 발생률은 ‘당한적이 있다’에 응답한 비율임. 조사대상범죄는 강도, 절도(소매치기 포함), 폭행상해 등의 민생범죄 등임.
- 산 식 : 발생률= (피해자수/ 조사대상인구)×100,0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29.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피해건수와 평균피해액

(Average Number of Victims and Amount of Los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조사대상 범죄로는 강도, 절도(소매치기 포함), 폭행상해 등의 민생범죄 등임.
- 산 식 : (주요범죄 피해자수/ 총 가구수)×1,0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30. 범죄피해에 대한 예상(상해, 강도, 강간, 주거침입절도)*

(Expectation of Victimization : Bodily Harm, Robbery, Sexually Motivated Violence, Burglar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조사대상 범죄로는 상해, 강도, 강간, 주거침입절도

- 앞으로 12개월(1년)안에 상해, 강도, 강간, 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할 예상정도를 질문함. 응답(예시)은 “①가능성이 매우 많다(높다) ② 가능성이 있다(가능성이 많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⑤절대로 없을 것이다”

- 산 식 : (범죄피해 예상자 / 조사대상자)×1,0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31. 공직자 중 공공안전·질서유지 분야종사공직자의 비율

(Percentage of Public Service Employee, work for Public Safety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총공직자 중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행정부(정부)에서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종사하는 기관의 공직자의 비율을 말하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 그러나 공공안전과 질서유지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공직자와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종사하는 공직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함.
 총공직자 : 대통령직속기관, 국무총리 직속기관, 위원회, 헌법기관, 각처, 각부, 각 청의 공직자
 공공안전과 질서유지종사 공직자 : 행정부(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에서 직접적으로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하는 기관으로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와 각청의 공직자로 파악함. 즉 법무부, 관세청(Customs Service), 검찰청(Public Prosecutor's Office), 경찰청(National Police Agency), 소방방재청(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해양경찰청(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의 공직자.
- 자료원 : 행정자치부 자료

12-32. GDP대비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재정지출비율(사법기관별)

(Expenditure for Public Safety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as a Percentage of the G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재정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기 위한 지표임.

•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재정지출의 범위는 사법부로서 (대)법원과 행정부의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관세청(Customs Service), 검찰청(Public Prosecutor's Office), 경찰청(National Police Agency), 소방방재청(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해양경찰청(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으로 한정함.

- 자료원 : 예산처 자료

12-33. 경찰력구성(성별, 지위별)(Composition of Police Forc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경찰력구성을 근무관서별 및 직급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임. 직접적으로 대민관계를 갖는 부서(경찰서 및 파출소)에 경찰력이 배치되어있는 비율, 직급별로 간부와 비간부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임.

- 자료원 : 경찰청

1)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 Seoul, Busan, Daegu, Incheon, Ulsan city

2) 기타: 경찰대학(National Police University), 경찰종합학교(Police Comprehensive Academy), 중앙경찰학교(Central Police Training School), 경찰병원(National Police Hospital), 운전면허시험관리단(Driver's License Agency)

3) 간부 :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이상

4) 비간부 : 순경, 경장, 경사

12-34. GDP대비 경찰비 지출액 (기능별)

(Functional Expenditure for Police Agency as a Percentage of the GDP)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앞에서 “GDP대비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재정지출비율” 은 기관별로 파악하는 지표이나 이 지표는 경찰청의 경찰비지출액과 그 구성을 GDP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고 또한 기능별 지출액 및 구성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자료원 : 결산서

12-35. 경찰관 1인당 인구수 (Police Density Rate : Number of Police Officers per 100,000 person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경찰청

12-36. 지구대당 순찰차량수 (Number of Patrol Cars per Police-Box)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경찰청 자료

12-37. 자택보안개량의 이유 (Reasons for Improving Home Securit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거처하는 집(자택)은 어떠한 형태이든 보안시설이 되어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자택보안시설의 개량이 필요 없는 경우와 보안개량이 필요하여 그 시설을 개량(개선)한 경우로 구분됨.
 - 자택보안개량의 이유에 대한 조사항목을 예시로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음(이 예시는 영국의 "Social Trends"에 나타난 것이므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임)
 - “1) 가옥개선의 일부로 보안시설을 개량하였음. 2)도둑이 들었기 때문에 3) 인근지역의 절도가 증가하여 4)집주인의 결정, 시설에 대한 개인책임 때문에 5)집을 비운 채 다른 곳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6)이웃집에 도둑이 들어서 7)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8)광고를 보고 9)친구, 친척이 도둑

맞아서 10)경찰, 보안회사직원의 충고로 11)보안장치판매업자와의 접촉으로 12) 기타”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38.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미신고 이유

(Percentage of Report to Police, Reasons for Non-Repor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 미신고 이유로는 “피해근소, 신고해도 효과없음, 증거 없음, 경찰이 귀찮게 할 것같아서, 자체해결, 보복우려, 범인이 아는 사람, 명예손상(손해보거나 창피할 것 같아), 기타” 등임.
- 조사대상 범죄로는 강도, 절도(소매치기 포함), 폭행상해 등의 민생범죄 등 임.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39.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시간별 분포

(Distribution of Time taken for Arrest by Perio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체포기간으로는 1일 이내, 2~4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미만, 1년 이상 등임.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40.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Percentage of Arrests Fail to Remain Acci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2-41. 국민의 검찰·경찰에 대한 이미지*(Public Images of the Prosecutors and Polic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 안전부문의 핵심지표로서 ‘국민의 검찰,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하였

음. 즉 치안을 책임지는 사법기관으로서 검찰과 경찰의 이미지는 범죄로부터 국민이 얼마나 안전한지의 여부를 가름하는 지표임.

◦ 조사항목 :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으나 중지를 모아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1) 검찰, 경찰은 국민을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잘 모르겠다 ④아닌 것 같다 ⑤절대 아니다.

2) 검찰, 경찰의 '수사결과'를 어느 정도 믿습니까?

①완전히 믿는다 ②믿는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믿지 않는 편이다 ⑤전혀 믿지 않는다

3) 공직자로서 검사와 경찰관은 어느 정도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아주 청렴결백 ②비교적 청렴결백 ③그저 그렇다 ④청렴결백하지 않음 ⑤전혀 청렴결백하지 않음

4) 귀하의 자녀가 경찰관이 되겠다고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①매우 찬성한다 ②찬성한다 ③그저 그렇다 ④반대한다 ⑤절대 반대한다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42. 주요범죄 재범률(Re-Offender Rate by Major-Crim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주요범죄자수 중 재범자수 / 주요범죄자수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43.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Number of Inmates per Day and per Guar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법무부, 『법무연감』

12-44. 교도소 수감자 1인당 교도비 지출액(Expense of Confinement per Inm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수감자에 대한 경비 지출액 / 수감자수
- 자료원 : 법무부, 『법무연감』

12-45.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건수(Traffic Acci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자동차, 철도(철도, 고속전철), 지하철, 선박, 항공기에 의한 사고의 전년 및 전년동기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지수임.
- 자료원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12-46. 교통사고에 의한 사상자수(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000대당)

(Deaths & Injuries Due to Traffic Accidents per 100,000 persons, per 1,000 vehicle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2-47. 고속(화)도로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률

(Death & Injury Rate Due to Highway[Freeway] Traffic Acci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고속(화)도로 상의 교통사고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및 부상자의 비율을 의미함. 즉 고속도로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를 나타내는 지표임.
- 산 식 : (사망자수, 부상자수 / 고속(화)도로 상의 교통사고발생건수)×100
- 자료원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2-48.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Perception of Reasons for Traffic Accident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발생원인으로 운전자 부주의, 보행자 부주의, 교통혼잡, 도로구조의 잘못, 각

중 신호체계의 불비, 기타 등의 범주로 조사함. 보행자의 입장과 운전자의 입장에서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49. 교통안전시설(도로연장 100Km당) (Facilities for Traffic Safety)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2-50. 교통수단별사고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2-51. 도로교통사고(Traffic Accident on Roa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2-52. 도로교통사고 원인(Cause of Traffic Accid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2-53. 고속도로 교통사고(Highway Traffic Accid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2-54. 화재발생건수당 사상자수(Deaths & Injuries Due to Fire Inci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text{사상자수} / \text{화재발생건수}) \times 100$

- 자료원 :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12-55. 화재발생건수당 피해액(Amount of Damages per Fire Incid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총피해액/ 화재발생건수
- 자료원 :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12-56. 소방관 1인당 인구수(Persons per Fire Fighter)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주민수/ 소방관수
- 자료원 : 소방방재청

12-57. 소방자동차 1대당 인구수(Persons per Fire Engin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주민수/ 소방자동차수
- 자료원 : 소방방재청

12-58. 화재보험 가입상황(Number of Fire-insurance and Amount of Insurance Paymen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1000주택당 가입건수, 평균 가입액 및 보험료
- 산 식 : (주택형태별 화재보험 가입건수/ 주택형태별 주택수)×1,000
-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험개발원, 『화재보험통계자료』

12-59.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사고당)

(Unexpected Deaths & Injuries Due to Industrial, Social and Other Accident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불의의 사고란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한 인위적 대형사고로서 사회

적으로 크게, 또한 심각하게 부각되었던 사고를 기준으로 함(자연재해는 제외함). 이 지표의 기능은 산업적 재해, 고층건물화재(예: 대연각화재), 교량붕괴(성수대교), 가스폭발(대구), 건물붕괴(삼풍백화점), 군중에 의한 사고, 테러 등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사고를 정리하여 알리는 데에 있음.

- 산 식 : 사상자수/ 불의의사고 건수
- 자료원 : 각종사고 관련자료

12-60.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상자수 및 피해액)(Damages Due to Storms and Floods)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풍수해 또는 화재(산불 등)로 인한 사상자수와 피해액을 의미함.
- 자료원 : 행정자치부, 『재해연보』, 『화재통계연보』

12-61. 구속영장 발부율(Percentage of Warrant Issue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구속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의 청구 및 신청 건수 대비 구속영장 발부 건수를 말함.
- 자료원 : 법무부, 『법무연감』

12-62. 소송사건처리 건수(인구10,000명당)(Judicial Processing of the Cases : Dispose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소송사건으로는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소년, 기타의 사건 등이 있음. 이 지표는 인구 10,000명당 소송사건의 증감을 통하여 법원(판사)의 업무 부하량의 경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임.
- 자료원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2-63. 기소에서 선고까지의 평균일수

(Averaged Days taken between marking a Charged and Disposing of It)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 의 : 기소된 날부터 선고(처리)일까지 소요된 평균일수.
- 산 식 : 사건당 소요일수의 합계 / 총 기소사건
- 자료원 : 법원행정처, 『행정통계』

12-64. 유죄선고율

(Conviction Rate) 또는 (Ratio of Numbers Convicted to Numbers Charged)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유죄선고 / 기소범죄)×100
- 자료원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2-65. 형집행유예비율 (Percentage of Proba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집행유예/ 선고건수)×100
- 자료원 : 법무부 자료

12-66. 구금자 비율 (Imprisonment Rat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 식 : 인구 10만명당 재소자 및 유치자 수
- 자료원 : 법무부 자료

12-67. 피고인의 재판전 평균 구류기간

(Average Length of Term in respect of those sentenced to other centre of detention)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자료

12-68. 법률구조건수지수

(Index of Legal Aid, Number of Counseling per 100,000 of the Peopl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법률구조공단자료

12-69.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

(Number of Active Lawyers per 1,000 of the People)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원 : 변호사협회자료

13. 정부와 사회참여

13-1. 투표율(Voter turn-out rate)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각급 지방단체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회, 정치적 안정을 나타내어 주는 척도가 됨. 투표율을 정당별, 연령군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산 식 : $(\text{투표자 수} / \text{총 유권자 수}) \times 100$
- 자료원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총람』, 『국회의원선거 총람』, 『지방의회의원선거 총람』

13-2. 정치에 대한 관심(Interest in politic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일반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몸을 담고 있는 사회의 사회, 정치적 안정의 척도이므로 사회전체에 팽배해 있는 불안감을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가 됨.
- 산 식 : 5점 척도 (매우 많다, 많다, 있는 편이다, 적다, 전혀 없다)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3. 투표시 후보자선택의 기준(Criteria for voting for a candidate in elec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후보자 개인의 인물, 후보자 소속정당의 정책, 특정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4.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politician's credibility (parliament, local assembly members))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의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 지를 5점 척도로 점검함.
- 산 식 : 5점 척도 (전적으로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무관심하다, 신뢰하지 않는다, 결코 신뢰 할 수가 없다)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5.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중(Percentage of women parliamentarians in National Assembly)

- 지표작성주기 : 4년
- 정 의 : 여성의 지위향상 척도로 활용가능.
- 산 식 : $(\text{여성 국회의원 수} / \text{전체 국회의원 수}) \times 100$
- 자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총람』

13-6.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중(Percentage of female members in local assembly)

- 지표작성주기 : 4년
- 정 의 :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
- 산 식 : $(\text{여성 지방의회의원 수} / \text{전체 지방의회의원 수}) \times 100$
- 자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선거총람』, 『시·군·구의회의원선거총람』

13-7. 통일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national unifica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통일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총의를 집약하는 자료로 활용
- 산 식 : 3점 척도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현재의 분단 상태가 좀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8.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future of the countr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국민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3개 항목 (낙관적이다, 회의적이다, 비관적이다)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9. 사회단체 참가율(Participation rate in social organiza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친목단체, 학술단체, 스포츠 단체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단체에 어느 정도 활발하게 참가하는 가를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 산 식 : $(\text{사회단체 참가자수} / \text{15세 이상 조사대상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10. 사회교육 참여율(Participation rate in social educa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일반교양교육, 기술, 직업교육, 취미교육, 평생교육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정도를 파악함.
- 산 식 : $(\text{사회교육 참여인구} / \text{15세 이상 조사대상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11. 자원봉사활동 참가율(Participation rate in volunteer work)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측정
- 산 식 : $(\text{자원 봉사자수 (연인원)} / \text{15세 이상 조사대상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12. 후원금, 기부금 제공자 비율(Ratio of various fund contributor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제공한 사람을 파악하여 개인이 사회 전체를 위해 물질적인 면에서 기여하려는 정도를 파악

- 산 식 : (후원금, 기부금 제공자 수/15세 이상 조사대상인구) x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13. 노인의 사회활동 참가율(Ratio of old-age population participating in social organization)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65세 이상 노인의 각종 사회활동 (친목단체 및 스포츠단체 참가)현황을 파악
- 산 식 : (사회활동 참가노인 수/65세 이상 노인 인구) x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14. 종교인구 분포(Percentage distribution of population by religion)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종교별로 전체 인구에서 각 종교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함.
- 자료원 : 통계청,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

13-15. 종교집회 참여도(Frequency of attendance at religious services (religiosit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각 종교별로 종교성 (religiosity)의 정도를 나타내는 연간 종교집회 참여빈도를 측정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16. 해외봉사활동 참가자 수(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 volunteer work abroad)

- 지표작성주기 : 2년
- 정 의 : 연도별 해외봉사단원 파견현황을 파견 국가별, 파견 사업별로 제시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인 봉사활동상황을 요약
- 자료원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국제협력통계』, 『국제협력단 연보』

13-17. 해외교포단체 수(Number of overseas Korean community organization)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 의 : 해외교포의 활동상황과 교포단체의 특성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
- 자료원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교육재단 현황』
외교통상부, 『재외동포단체조직 현황』, 『해외동포현황』

13-18. 사회적 이동에 대한태도(Attitude toward social mobilit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한국사회에서 사회계층의 개방성 정도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사회적 이동 정도로 측정.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19. 주관적 사회계층의식(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가구주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교육정도, 직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자신의 사회계층을 분류하도록 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20. 빈부격차에 대한 태도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빈부격차로 야기되는 위화감을 4점 (계층간에 극단의 적대감이 팽배해 있다, 계층간에 반목의 조짐이 보인다, 위화감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위화감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척도로 분류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21.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foreign worker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체류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하여,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점검해 봄. 4점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국내유입은 적극 권장할만하다, 현재 국내 경제사정에 비추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을 당분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부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한다) 척도로 국민들의 사회계층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적인 태도를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22. 탈북자에 대한 태도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남북관계에 가장 민감한 사항의 하나인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교육정도별 및 연령별로 조사함.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23. 공무원 수 (인구 1,000명당)(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per 1,000 population))

- 지표작성주기 : 1년
- 산 식 : (공무원 수/총인구) x 1000
- 자료원 : 각 부처별 행정자료

13-24: 공무원 부처별 분포(Distribution of public officials by government sector)

- 지표작성주기 : 1년
- 산 식 : (각 부처별 공무원 수/ 전체 공무원 수) x 100
- 자료원: 각 부처별 행정자료

13-25. 여성 고위공무원 비중(Percentage of senior female government officials)

- 지표작성주기 : 2년
- 산 식 : (서기관급 이상 여성고위공무원/서기관급이상 고위공무원 총수) × 100
- 자료원 : 각 부처별 행정자료

13-26. 중앙 행정부서에 대한 신뢰도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중앙 행정부서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가를 5점 척도로 점검함.
- 산 식 : 5점 척도 (전적으로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무관심하다, 신뢰하지 않는다, 결코 신뢰 할 수가 없다)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27. 전자정부 (E-gov) 서비스 만족도(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정보사회에서 정부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5점 (대 만족이다,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자 정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척도로 점검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28.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Reasons for dissatisfaction with government services)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행정서비스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개 항목 (a. 담당공무원의 무성의와 불친절, b. 불필요한 각종 법규, c. 필수 불가결한 법규의 미비, d. 필요한 각종 시설의 미비, e. 각 행정부서간 중복되는 업무관장에서 비롯되는 행정업무의 혼선)으로 구분하여 불만 이유를 제시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29. GDP대비 기능별예산(Ratio of government expenditure to GDP)

- 지표작성주기 : 1년
- 정 의 : 정부예산의 기능별 배분상황을 제시하여 국가가 어느 부문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게 함.
- 산 식 : $(\text{기능별 예산액} / \text{GDP}) \times 100$
- 자료원 : 기획예산처 자료

13-30. 정부예산의 구성: 기능별 예산(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 지표작성주기 : 1년
- 정 의 : 정부기능을 방위, 교육, 사회복지, 문화, 경제부문등으로 나누어 각 기능별
지출구조를 제시함.
- 산 식 : $(\text{각 기능별 예산액} / \text{총예산액}) \times 100$
- 자료원 : 기획예산처 자료

13-31. 국민 1인당 기능별 예산비(per capita government expenditure)

- 지표작성주기 : 1년
- 산 식 : $\text{기능별 예산액} / \text{총인구}$
- 자료원 : 기획예산처, 재정원자료

13-32.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 지표작성주기 : 2년
- 정 의 :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점검.
- 산 식 : $((\text{지방세수입} + \text{세외수입}) / \text{세입총액}) \times 100$
- 자료원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3-33. 조세형평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axation policy)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 의 : 소득수준이나 사회계층에 따라 세금이 적절하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5점 (너무 많이 내고 있음, 비교적 많이 내는 편임, 적당한 편임, 적게 내는 편임, 매우 적게 내는 편임) 척도로 저울질 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제6장 종합지수

제1절 종합지수의 필요성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증거(Bauer, 1966)”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지표를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 가능하게 하여주는 척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사회지표는 삶의 부분적인 정보가 아니라 삶의 전체 체계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개별지표는 그 자체로서도 의의가 있지만, 체계 전체와 연관하여 볼 때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개별지표의 나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개별지표를 종합화하여 부문별 또는 전체로서 하나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종합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의 종합화를 위하여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체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종합화 방법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사회지표에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종합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지표의 종합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아울러 지표의 종합화를 위해서는 국민 선호도 조사와 같은 의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종합화 방법의 제시에 초점을 두되, 일부지표를 대상으로 시산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향후 이러한 사회지표의 종합화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외국사례: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

1. 신국민생활지표(PLI: people's life indicators) 작성 경위

국민 생활의 상황을 표시하는 지표체계에 대해서는, 1970년이래 국민생활심의회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1974년부터 사회지표로서 또 1986년부터는 국민생활지표로서 공표되어 왔다. 근년의 급격한 경제사회정세와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종래의 지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표 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13차 국민생활심의회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1992년 5월 조사위원회 보고를 반영하여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에서 신국민생활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2. 신국민생활지표의 특징

생활수준 및 풍요로움·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생활통계체계이며,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다양한 정보를 개인의 생활감각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구체적인 형태로 수량화하였다.

신국민생활지표는 사회전체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생활상의 여러 측면에 대한 평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사회전체의 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변화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생활의 다면적인 측면의 파악, 지역사회의 생활 수준과 특징의 파악,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신국민생활지표는 매년 개별지표와 지역별 지표 체계의 갱신을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시산단계에 있다. 국민의 측면에서 생활의 현상이 피부에 와 닿는 지표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신국민생활지표의 지표체계(표 1-6-1 참조)

8개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주거, 주거 환경, 근린 사회의 치안 등의 상황
2. 소비지출: 수입, 지출, 자산, 소비생활 등의 상황
3. 근로: 임금, 노동시간, 취업 기회, 노동 환경 등의 상황

4. 양육: (자신의 자녀를 위한) 육아·교육 지출, 교육시설, 진학을 등의 상황
5. 보건의료: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 등의 상황
6. 여가: 휴가, 여가시설, 여가 지출 등의 상황
7. 교육: (성인을 위한) 대학, 생애학습 시설, 문화적 시설, 학습 시간 등의 상황
8. 교제·관계: 혼인, 지역교류, 사회적 활동 등의 상황

생활평가축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안심: 개인의 욕구로서 보다 기본적인 축
2. 공정: 격차의 많고 적음과 사회의 편이도를 표시하는 축
3. 자유: 개인의 생활면에서의 선택을 표시하는 축
4. 쾌적: 보다 좋은 생활이 가능한 가를 표시하는 축

4. 구조변화지표

PLI는 주로 개인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둘러싼 사회전체의 구조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변화지표를 설정하였다. 구조변화지표의 영역은 고령화, 국제화, 집중화, 정보·서비스화, 그린화 등 5가지 영역에 걸쳐 있다.

5. 지표의 계산방식

- 개별지표의 표준화
 - 시계열: 1990년을 기준(100)으로 하여 증가율 계산
 - 지역별: 전국 평균을 50으로 하는 편차치 방식에 따라 표준화
- 종합지표의 산출
 - 표준화된 개별지표치를 활동영역 및 생활평가축 별로 종합화
- 가중치는 국민생활선호도 조사에서의 니드 득점을 활용

활동영역	안전·안심	공정	자유	쾌적
	(-) 중요절도범 인지건수 (-) 교통사고발생건수(-) 일반도로 보도설치율 건물화재건수(-) 주택임대대출반환액비율 (-) 쓰레기위생처리율 의료기관500m 미만 주 택비율			1인당 쓰레기 배출량(-) 통근통학 평균시간(-) 일반도로 포장율
소비지출	1인당 가계소득 연간 수입(전세대) 소비자 물가지수(종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입대비 저축비율 수입대비 부채비율(-) 생명보험 계약건수 개인 파산건수(-) 소비자위해정보비율(-)	생활보호세대비율(-) 소비자물가 지역격차 지 수(-) 소득격차(지니계수)(-) 연간 수입 지니계수(-) 30대부터50대의 세대내 소득 격차(지니계수)(-)	서비스 지출 비율 소매점수(대형 소매점 제외) 대형 소매점 수 백화점 수 소비자 신용 잔고 현금 카드 발행매수 외식 지출 비율	택배 취급 개수 현금 자동지불기 설치 대수 통신판매 매상고 편의점 수 내구소비재 지출비율
노동	실질임금(남여 평균) 실업률(-) 공공직업훈련시설수 근무연장·재고용 비율 전직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노동재해도수율(-) 단신부임비율(-) 남녀합계가사시간 고용인원의 과부족(-)	신체장애인비율(취직자 대비) 정신지체인비율(취직자 대비) 장애인비율(취직인구당) 청년층의 고령층에 대한 구인격차배율(-) 기업간 임금비율 여성관리직 비율 여성취업률 중고령자 취업률	전직률(+) 유효구인배율 연차유급휴가취득일수 30-34세의 여성노동력율 (20-24세여성비) 유연시간적용자비율 개업건수 연장보육실시시설수(+) 0-1세아보육소재소자수 (+)	초근시간비율(-) 실노동시간수(-) 통근시간1시간이상세대 비율(-) 연휴2일제적용노동자비 율 1인당 오피스 면적 평균월간출근일수(-) 남녀합계가사시간(-)

활동영역	안전·안심	공정	자유	쾌적
		남여임금격차(-)		
양육	영아사망률(출생아수대비)(-) 보육소재적률(3-5세인구비) 보육소정원수(맞벌이가정대비) 1학급당 학생수(-) 교육비 지출비율(-) 장기결석률(학교협오)(-) 고등학교등에의 진학을 자녀의 성인병(-) 소년범죄검거인원(소년인구비)(-) 교내폭력건수(-) 나안시력 1.0 미만자 비율(-) 연장보육 실시시설수(+) 보도인원(-) 0-1세아 보육소 재소자수(+) 	아동복지시설수 모자상담원 비율	유치원재적률(3-5세인구비) 유치원정원수(3-5세인구비) 고등학교수(15-17세인구비) 1인당교육비 지출에 점하는 학습속 비용 등의 비율(공립소중학교평균)(-) 교육비에의 지출비율(+)	아동관 수(3-11세 인구비) 청소년교육시설수 아동생도1인당교지면적
보건의료	평균여명(0세, 65세) 입원환자비율(-) 성인병 사망률(-) 보건의료비에의 지출비율(-) 일반병원병상수 응급고시병원수 의사수 간호사수 국민의료비중환자비부담률 양호, 경비 노인홈 정원	신체장애인 갱생원호시설 정원수(신체장애인수첩교부수비) 정신지체인원호시설 정원수 주간보호시설 이용상황(65세 이상 인구비) 주간보호시설 정원수(65세 이상 인구비) 노인보건시설정원수 특별양호노인홈정원수(65세 이상 인구비)	유료노인홈정원수(65세 이상인구비) 차액베드수(총병상수비)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65세 이상 인구비) 노인가정봉사원이용상황(65세이상인구비) 신체장애인홈헬파파견세대수(신체장애인수첩교부수비) 단기보호시설이용상황(65세이상인구비) 단기보호시설베드수(65세이상인구비) 주간보호시설정원수

활동영역	안전·안심	공정	자유	쾌적
	수 응급자동차 평균 수용시 간(-) 치매성 노인 발생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차액 베드수(총 병상수 비)(-)		와상노인비율(재가)(-)
여가	해외여행사사고피해자수 (출국인수비)(-) 하계연속휴가 실시일수	법인교제비/개인소비(-)	관광목적출국일본인수 교양오락비에의지출비율 극장, 음악회장 등 수 스포츠 시설수 상설영화관수 위성방송수신계약수 비디오대여점수 음식점수 공원유원지수 호텔여관객실수 신간서적발행종류수 렌트카 차량수 빠짱고점수 공영경기시행단체수	취미오락 주 평균시간 자연공원면적비 이용원천수 스포츠 행동자율
교육	대학입학자수/진학희망 고교생도수 정시제고교수(15세 이상 인구비)	육영회장학생채용수	대학원진학률 유학자수(15세 이상 인구 비) 상급학교 진학률 대학등진학률 상급학교 학생수(인구총 수비) 민간생애학습강좌수강자 서적·잡지 소매점수 서적 등에의 지출비율 성인일반학급수강자수	도서관수 도서대출자수 박물관수 사회교육관계직원수 성인일반학급강좌수 학습연구시간
관계	이혼율(-) 유배우합계이혼율(-)	-	이혼율(+) 유배우합계이혼율(+)	교제시간 공민관수

활동영역	안전·안심	공정	자유	쾌적
	혼인율 미혼율(-) 고령자의 자녀와의 근주 율		미혼율(+) 교제비에의 지출비율 봉사적 활동시간 사회봉사활동행동자율 노인크럽 가입률 청년해외협력대 참가자수 일일교류가능인구(전국 인구비) 국제결혼건수 헌혈자수(15~64세인구비) 부인단체가입률	1인당 선택가능정보량 지역정보화지표 파스콤 보급률

주: 각 지표는 원칙적으로 대상인구비율임.

제3절 종합지수 산출과정

종합지수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지표의 추출

- 사회의 각 영역을 평가하거나 또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지표 추출
- 가능한 한 시계열 자료로서 분석대상기간 이내에 (예를 들면 1990년이 기준년도일 경우 1990년 이래) 입수 가능한 자료가 있는 지표 추출

2) 개별지표의 보정

- 기준 년도 이래로 일부 자료가 없을 경우 보간법에 의하여 보정
- 보정방법
 - 중간 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 기하평균에 의한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 보정
 - 기준년도부터 없는 경우 (예: 최근에 제도가 도입된 경우) 0으로 처리

- 대리지표가 있는 경우 자료가 없는 기간 내에 있어서 대리지표의 변화율을 적용

3) 개별지표의 표준화

- 변동의 폭 등이 다른 다수의 개별 지표를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지표에 대해 표준화를 하여야 함.
- 표준화지수는 기준연도인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각 년도의 변화율의 절대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고, 각 년도의 변화율을 기준년(1990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

○ 개별지표의 표준화 방법

① 대칭변화율의 산출

- case 1: 지표가 통상의 지수이거나 현실의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

$$C_{i(t)} = \frac{D_{i(t)} - D_{i(t-1)}}{\left(\frac{D_{i(t)} + D_{i(t-1)}}{2}\right)} \times 100 \quad - (1)$$

단, $C_{i(t)}$: 대칭변화율; $D_{i(t)}$: 개별지표; i : 지표번호, t : 시점

- case 2: 지표가 구성비 등인 경우, 또는 0이나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C_{i(t)} = D_{i(t)} - D_{i(t-1)} \quad - (2)$$

② 표준화인자(A_i)의 산출

$$A_i = \frac{\sum_{t=2}^N |C_{i(t)}|}{N-1} \quad - (3)$$

단, N : 표준화기간의 시점수.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이면 $N=12$ 임.

③ 표준화 변화율 ($B_{i(t)}$)

$$B_{i(t)} = \frac{C_{i(t)}}{A_i} \quad - (4)$$

④ 표준화 지수($S_{i(t)}$)의 산출

- 기준년차의 $S_{i(t)}$ 를 100으로 하고, 다음의 식에 따라 $S_{i(t)}$ 를 산출. 예를 들어 1990년을 기준년차로 하면 $S_{i(1990)} = 100$

· case 1:

$$S_{i(t)} = S_{i(t-1)} \times \frac{200 + B_{i(t)}}{200 - B_{i(t)}} \quad - (5)$$

· case 2:

$$S_{i(t)} = S_{i(t-1)} + B_{i(t)} \quad - (6)$$

4) 개별지표의 종합화

- 플러스·마이너스의 판단

- 개별지표에 대해서 그 지표 수준의 상승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플러스, 나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마이너스로 함. 마이너스 지표에 대해서는 앞에서 구한 표준화 지수를 200에서 뺀 값을 표준화 지수로 함.

$$U_i = S_i : \text{플러스 평가의 개별 지표} \quad - (7)$$

$$U_i = 200 - S_i : \text{마이너스 평가의 개별지표} \quad - (8)$$

- 종합화

- 활동영역별 개별지표의 표준화점수를 단순 평균
- 단, 활동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제4절 종합지수 적용예시

본 절에서는 단순히 종합화 과정에 대한 시산 결과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에 대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자료는 주당 근로시간으로서 실제 data이면서 의미는 마이너스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두 번째 자료는 교양오락비 지표로서 구성비 data이면서 의미는 플러

스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세 번째 자료는 교육비 지표로서 구성비·data이면서 의미는 마이너스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네 번째 자료는 의사수 지표로서 실제 data이면서 의미는 플러스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다음의 표에는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개별지표를 기준년도인 1990년부터 각 연도별로 원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원수치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1990	48.2	4.6	7.5	42554.0
1991	47.9	4.9	7.7	45496.0
1992	47.5	5.0	8.6	48390.0
1993	47.5	5.1	8.7	51518.0
1994	47.4	5.2	8.6	54406.0
1995	47.7	5.3	9.3	57188.0
1996	47.3	5.2	9.8	59399.0
1997	46.7	5.2	10.3	62609.0
1998	45.9	4.5	10.7	65431.0
1999	47.9	4.9	10.7	69724.0
2000	47.5	5.3	10.9	72503.0
2001	47.0	4.9	10.8	75295.0
2002	46.2	4.8	10.9	78609.0
2003	45.9	5.0	11.4	81328.0

□ 1단계: 개별 지표의 대칭변화율 산출

- 주당 근로시간과 의사수 지표는 통상의 지수로서 현실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식 (1)에 의하여 개별 지표의 대칭변화율을 산출하였음.
- 한편, 교양오락비와 교육비 지표는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식 (2)에 기초하여 개별지표의 대칭 변화율을 산출하였음.

표준화#1(Cit)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1990				
1991	-0.624	0.300	0.200	1.671
1992	-0.839	0.100	0.900	1.541
1993	0.000	0.100	0.100	1.565
1994	-0.211	0.100	-0.100	1.363
1995	0.631	0.100	0.700	1.246
1996	-0.842	-0.100	0.500	0.948
1997	-1.277	0.000	0.500	1.315
1998	-1.728	-0.700	0.400	1.102
1999	4.264	0.400	0.000	1.588
2000	-0.839	0.400	0.200	0.977
2001	-1.058	-0.400	-0.100	0.945
2002	-1.717	-0.100	0.100	1.077
2003	-0.651	0.200	0.500	0.850

□ 2단계: 표준화 인자의 산출

- 식 (3)에 의하여 개별 지표는 표준화 인자를 산출하였음.

표준화#2(Ai)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1990				
1991	0.624	0.300	0.200	1.671
1992	0.839	0.100	0.900	1.541
1993	0.000	0.100	0.100	1.565
1994	0.211	0.100	0.100	1.363
1995	0.631	0.100	0.700	1.246
1996	0.842	0.100	0.500	0.948
1997	1.277	0.000	0.500	1.315
1998	1.728	0.700	0.400	1.102
1999	4.264	0.400	0.000	1.588
2000	0.839	0.400	0.200	0.977
2001	1.058	0.400	0.100	0.945
2002	1.717	0.100	0.100	1.077
2003	0.651	0.200	0.500	0.850
표준화인자(Ai)	1.129	0.231	0.331	1.245

□ 3단계: 표준화 변화율 산출

- 1단계에서 구한 대칭변화율에 2단계에서 구한 표준화 인자를 나누어줌으로써 표준화 변화율을 구하였음.

표준화#3(Bit)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1990				
1991	-0.553	1.300	0.605	1.342
1992	-0.743	0.433	2.721	1.238
1993	0.000	0.433	0.302	1.257
1994	-0.187	0.433	-0.302	1.095
1995	0.559	0.433	2.116	1.001
1996	-0.746	-0.433	1.512	0.761
1997	-1.130	0.000	1.512	1.056
1998	-1.530	-3.033	1.209	0.885
1999	3.776	1.733	0.000	1.275
2000	-0.743	1.733	0.605	0.785
2001	-0.937	-1.733	-0.302	0.758
2002	-1.520	-0.433	0.302	0.865
2003	-0.577	0.867	1.512	0.683

□ 4단계: 표준화지수의 산출

- 기준년도인 1990년을 100으로 하되, 주당 근로시간과 의사수 지표는 식 (5)에 근거하여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였음.
- 또한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교양오락비 지표와 교육비 지표는 식 (6)에 근거하여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였음.

표준화#4(Sit)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1990	100.0	100.0	100.0	100.0
1991	99.4	101.3	100.6	101.4
1992	98.7	101.7	103.3	102.6
1993	98.7	102.2	103.6	103.9
1994	98.5	102.6	103.3	105.1
1995	99.1	103.0	105.4	106.1
1996	98.3	102.6	107.0	106.9
1997	97.2	102.6	108.5	108.1
1998	95.8	99.6	109.7	109.0
1999	99.4	101.3	109.7	110.4
2000	98.7	103.0	110.3	111.3
2001	97.8	101.3	110.0	112.1
2002	96.3	100.9	110.3	113.1
2003	95.8	101.7	111.8	113.9

□ 5단계: 개별 지표의 종합화

- 개별 지표를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표의 의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즉, 주당 근로시간과 교육비는 마이너스 지표이고, 교양오락비와 의사수는 플러스 지표인 것으로 가정
- 플러스 지표인 교양오락비와 의사수 지표는 4단계에서 구한 지수를 그대로 활용하고, 마이너스 지표인 주당 근로시간과 교육비 지표는 식 (8)과 같이 200에서 뺀 값을 활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의 표준화 점수를 단순 산술 평균하여 종합화 지수로 하였음. 다만, 모든 활동영역에 대해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러한 가중치는 추후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별도로 작성할 것임.

표준화#5(Ui)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종합지수
199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1	100.6	101.3	99.4	101.4	100.6
1992	101.3	101.7	96.7	102.6	100.6
1993	101.3	102.2	96.4	103.9	100.9
1994	101.5	102.6	96.7	105.1	101.5
1995	100.9	103.0	94.6	106.1	101.2
1996	101.7	102.6	93.0	106.9	101.1
1997	102.8	102.6	91.5	108.1	101.2
1998	104.2	99.6	90.3	109.0	100.8
1999	100.6	101.3	90.3	110.4	100.6
2000	101.3	103.0	89.7	111.3	101.3
2001	102.2	101.3	90.0	112.1	101.4
2002	103.7	100.9	89.7	113.1	101.8
2003	104.2	101.7	88.2	113.9	102.0

□ 종합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 이러한 4개 지표는 개별지표의 의미가 서로 달라 종합지수로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4개 지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여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음.
- 기준년도인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삶의 질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1999년까지 지속,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주당 근로시간 지표의 표준화 지수는 기복은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표가 마이너스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의 주당 근로시간은 감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반영
 - 교양오락비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감소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음.

□ 4단계: 표준화지수의 산출

- 기준년도인 1990년을 100으로 하되, 주당 근로시간과 의사수 지표는 식 (5)에 근거하여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였음.
- 또한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교양오락비 지표와 교육비 지표는 식 (6)에 근거하여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였음.

표준화#4(Sit)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1990	100.0	100.0	100.0	100.0
1991	99.4	101.3	100.6	101.4
1992	98.7	101.7	103.3	102.6
1993	98.7	102.2	103.6	103.9
1994	98.5	102.6	103.3	105.1
1995	99.1	103.0	105.4	106.1
1996	98.3	102.6	107.0	106.9
1997	97.2	102.6	108.5	108.1
1998	95.8	99.6	109.7	109.0
1999	99.4	101.3	109.7	110.4
2000	98.7	103.0	110.3	111.3
2001	97.8	101.3	110.0	112.1
2002	96.3	100.9	110.3	113.1
2003	95.8	101.7	111.8	113.9

□ 5단계: 개별 지표의 종합화

- 개별 지표를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표의 의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즉, 주당 근로시간과 교육비는 마이너스 지표이고, 교양오락비와 의사수는 플러스 지표인 것으로 가정
- 플러스 지표인 교양오락비와 의사수 지표는 4단계에서 구한 지수를 그대로 활용하고, 마이너스 지표인 주당 근로시간과 교육비 지표는 식 (8)과 같이 200에서 뺀 값을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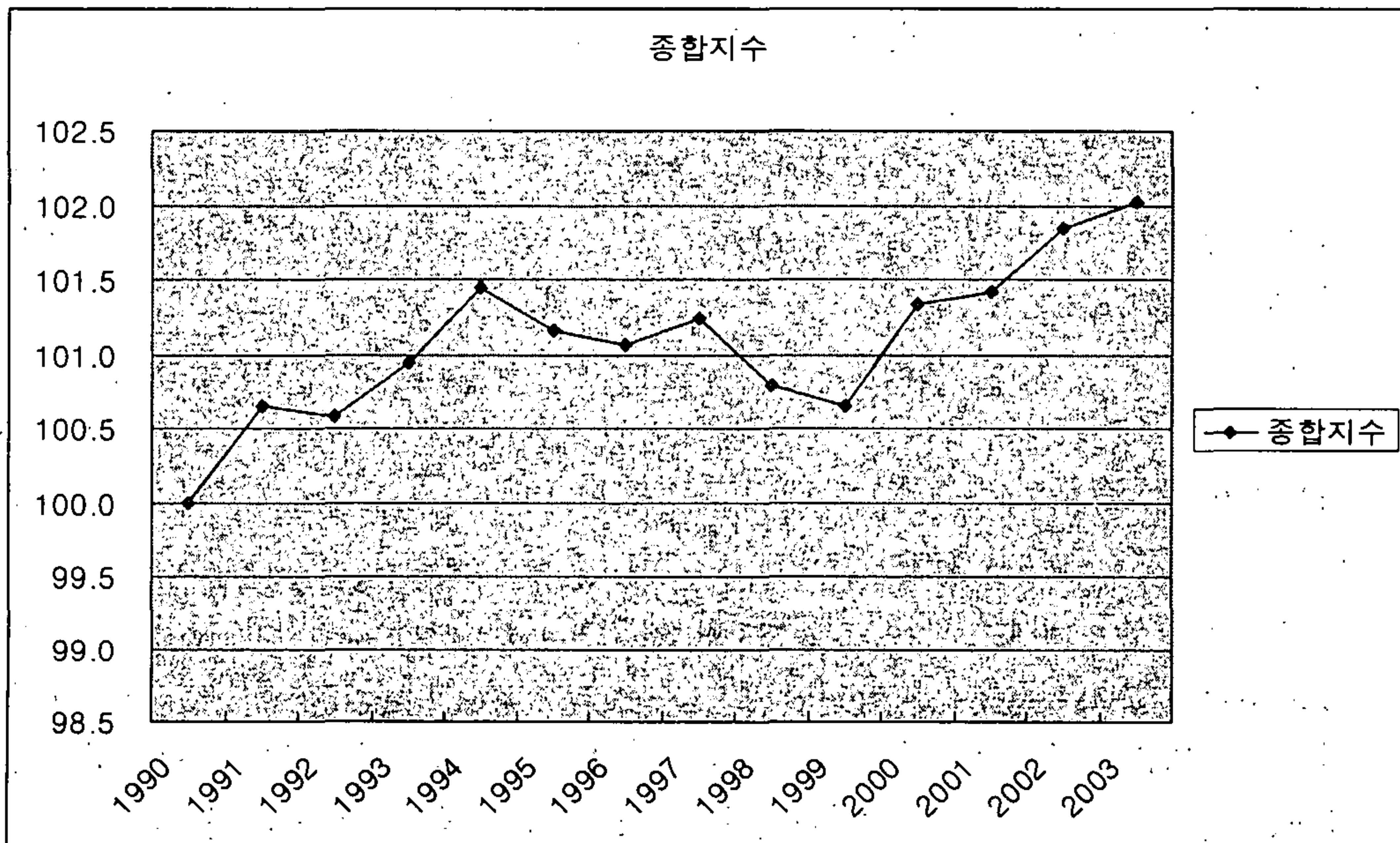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의 표준화 점수를 단순 산술 평균하여 종합화 지수로 하였음. 다만, 모든 활동영역에 대해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러한 가중치는 추후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별도로 작성할 것임.

표준화#5(Ui)	주당 근로시간(-)	교양오락비(%)	교육비(%)(-)	의사수	종합지수
199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1	100.6	101.3	99.4	101.4	100.6
1992	101.3	101.7	96.7	102.6	100.6
1993	101.3	102.2	96.4	103.9	100.9
1994	101.5	102.6	96.7	105.1	101.5
1995	100.9	103.0	94.6	106.1	101.2
1996	101.7	102.6	93.0	106.9	101.1
1997	102.8	102.6	91.5	108.1	101.2
1998	104.2	99.6	90.3	109.0	100.8
1999	100.6	101.3	90.3	110.4	100.6
2000	101.3	103.0	89.7	111.3	101.3
2001	102.2	101.3	90.0	112.1	101.4
2002	103.7	100.9	89.7	113.1	101.8
2003	104.2	101.7	88.2	113.9	102.0

□ 종합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 이러한 4개 지표는 개별지표의 의미가 서로 달라 종합지수로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4개 지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여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음.
- 기준년도인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삶의 질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1999년까지 지속,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주당 근로시간 지표의 표준화 지수는 기복은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표가 마이너스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의 주당 근로시간은 감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반영
 - 교양오락비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감소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음.

- 교육비 지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마이너스 지표이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 비율이 계속 증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결국 삶의 질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하겠음.
- 의사수 지표는 1990년 100에서 2003년에는 113.9까지 증대하여 지난 13년간 13.9%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의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의 마이너스 영향이 크며, 또한 주당 근로시간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교양오락비의 영향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은 1990년에 비해 2.0% 포인트 상승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함.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사회지표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 가능하게 하여 주는 척도이다. 따라서 매년 발표되는 사회지표 체계는 현재의 사회적 상태를 가장 잘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5년 개편된 현재의 사회지표 체계는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활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지표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높았다. 경제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사회구조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관심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관심의 변화를 반영하고, 삶의 질적 측면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지표체계의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구·시·군단위에서 지역별 사회지표의 생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지자체의 독자적인 개발에 의해 효율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사회지표 체계개편을 통해 지역사회지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표준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번 사회지표 체계의 개편은 고령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지표체계의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개편작업은 「부문」 및 「관심영역」의 개편과 함께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지표를 선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부문의 설정과 부문간의 조정 및 관심영역의 재조정을 통하여 관심영역별로 지표를 재정리하였다.

신사회지표체계의 특징은 각 부문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이론적이고 균형적인 지표체계가 될 수 있도록 부문 구성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였다.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은 없는지, 혹은 통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과정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가능한 다른 보고서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지표작업이 용이하도록 개별지표의 정의, 산식, 자료원 등 용어해설을 보완하고, 가능한 시산표를 제시 수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의 계수화가 용이 하도록 하였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계조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른 보고서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주관적 지표를 대폭 확대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주어진 수치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반면 주관적 지표는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배경 및 규범적 요인에 의해서 판단이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지표체계에서는 가치관, 만족도, 의식 등 주관적·심리적인 지표를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최근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특정집단별(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 지표체계를 별도로 제시하여 이용자의 특정 집단에 대한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부문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부문은 지금까지의 사회변화, 특히 인구현상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국민생활에는 물론 사회정책에 바르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구 부문의 지표체계를 개편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이나 특수 분야별 지표체계의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지표별 집계항목의 분류를 다양화하였다.

『가구와 가족』 부문은 1990년 이후 급증하는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개인을 단위로 한 고찰을 추가하고 정상가족 중심의 사고에서 가족의 다양성과 탈가족화의 개념을 수용하는 사고로의 전이를 고려하였다. 가족의 형성과 탈가족화는 전통유지와 최근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 독자적인 관심영역으로 하고, 노인생활에 대한 영역도 독자적인 관심영역으로 하며, 앞으로 가족변화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는 “대안적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를 파악을 위한 지표를 고려하였다.

『소득과 소비』 부문은 지표체계를 소득·소비·저축·조세·재정·분배라는 거시경제학에서의 국민계정 체계에 의거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지방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그리고 재산은 그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성 때문에 장래개발지표로서 개발하도

록 하며, 조세부담 부분을 보강하여 다른 부분과의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성장률 둔화와 관련하여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저축영역에 투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노동』 부문은 성인지적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주변인으로 남아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통계수치들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통합(inclusion)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구축코자하였다.

『교육』 부문은 국내·외 연구동향을 기초로 기존의 지표체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교육을 대표하는 지표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였다. 신 지표체계는 교육 자원 등 교육의 투입요인, 교육참여와 기회 등 교육의 과정요인, 교육의 성과 등 산출요인이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체제론적 접근에 기초하여 설정을 고려하였다.

『보건』 부문은 관심영역을 장래의 변화까지 감안하여 지표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개발된 관심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거와 교통』 부문은 국민생활의 수준측정을 위한 현황자료 제시와 국가정책의 목표 설정에 활용 가능한 지표 그리고 기존 지표체계에서 고려한 기본취지와 기존 지표체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신지표체계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집중에 따른 과밀문제와 혼잡문제 등에 대한 복지수준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과 교통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경제성에 대한 관심과 객관적 평가요구 증가 등 최근의 정책·사회·경제적 관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정보와 통신』 부문은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빠른 보급은 이전과 다른 모습의 경제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고자 정량화해 주는 지표의 방향을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인프라와 인프라의 활용, 즉 정보화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환경』 부문은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에서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업, 해양수산, 산림 분야 중에서 환경 혹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표를 추가하였다. 우리나라 환경부분 승인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지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분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복지』 부문은 사회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지표체계를 사회복지의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사회복지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삶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공급의 측면인 국가적 복지 정책의 현황은 「복지의 보편성」, 「국가 책임」의 강조, 「국민의 참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들 정책지표도 복지지표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와 여가』 부문은 기존지표의 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수용자 중심의 지표를 우선시하고자 하였고, 문화와 여가부문 이외의 다른 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표를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정책평가의 기준이 될 만한 지표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국민생활 수준 측정,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사회변화 예측, 사회개발정책의 성과측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안전』 부문은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체계로서 모양을 갖추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거의 정치·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안전부문의 지표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표계열을 포함시키고, 안전과 관련된 주관적 지표도 확대되도록 하였다.

『정부와 사회참여』 부문은 산업사회가 아닌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표체계를 작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당면하고 있는 절박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사회지표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신 지표체계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시계열을 유지하기에도 좋다는 결론을 얻어 기존의 13개 부문과 동일한 체계로 결정되었으며, 각 부문별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은 조정·보완하였다. 관심영역은 총 59개에서 58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세부관심영역은 150개에서 161개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별지표수는 총 636개(총 640개에서 부문별로 중복 제시된 4개를 뺀 것임)로 기존안의 526개에 비하여 약 20.9% 증가하였다. 총 636개의 개별지표 중 신규지표는 233개로 36.6%에 달하고 있다. 부문간 지표개발에 차이를 감안하여 가능한 필요지표를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사회지표보고서에 우선적으로 실어야 할 권장지표를 각 부문별로 30개 전후에서 선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지표가 삶의 부분적인 정보가 아니라 삶의 전체 체계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지표는 그 자체로서도 의의가 있지만, 체계 전체와 연관하여 볼 때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종합지수의 생산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체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종합화 방법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종합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표의 종합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아울러 지표의 종합화를 위해서는 국민 선호도 조사와 같은 의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종합화 방법의 제시에 초점을 두되, 일부지표를 대상으로 시산하는 선에서 그쳤다. 향후 이러한 사회지표의 종합화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발전되어 온 『한국의 사회지표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변화상을 잘 담고 있어서 많은 이들로부터 애용되어 왔다. 특히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되어온 사회통계조사는 각 분야를 4년 주기로 조사하여 많은 정보를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상을 4년에 한번 정도의 조사로 파악한다는 것은 자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적시 제공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조사실시에서 조사결과의 발표까지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보고서에는 최장 5년전의 자료가 수록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자료의 성격에 따라 4년 주기로 하여도 무리가 없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상 특히 개개인의 주관적 의견을 파악하는 역할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를 이원화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매년 자료를 생산하여 활용하고, 그 이외의 분야별 필요자료는 적어도 3년에 한번정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년 주기의 조사항목은 그 변화과정이 완만한 항목을 위주로 실시하고, 매년 실시하는 조사항목은 그 변화가 매우 빠르며, 민감하게 작용하고, 정책 활용성이 큰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정보의 수집을 위해 짧은 간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조사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조사간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짧은 간격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조사자료의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통계조사는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보가 그 제공간격이 너무 길어진다면 정보의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사회지표보고서에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되거나 혹은 보고계통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도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들 자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 관리될 수 있도록 자료의 수집단계에서 최종 생산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공하며, 자료의질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 및 협조체계 구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계조사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지역 사회통계조사와 연계하여 지역 조사의 표준화를 꾀하는 동시에 필요지표에 대한 생산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질 높은 자료생산이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통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자체에 인식시켜 주민의 협조증대로 보다 질 높은 자료생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식, “「삶의 질」 지표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3집(인문.사회관학편), pp. 437~459. 1991.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 경제기획원·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해설편)』, 1978.
- 경제기획원·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 권태환·김태현·최진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199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지표』, 1998.
- 김경중, 『한국의 경제지표』, 1993.
- 김미혜 외,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1호, 2000.
- 김윤신 등, 『한국의 보건지표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건강증진기금사업단
용역보고서, 2003.1.
- 김혜영 외, “청소년복지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권 2호, 1999.
- 농촌진흥청, 『2003 농촌생활지표』,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3.
- 대검찰청, 『범죄백서』, 2003.
- 대한주택공사, 『주택핸드북』, 각년도.
- 박광덕,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행정학회보』, 9권, 2호,
2002.
- 방송위원회, 『200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년도
- 변재관 외,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4.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2003.
-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한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지표』, 1976.11.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사회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1993.12.

- 유종해 외, 『행정학 세미나』, 서울, 고시원, 1982.
- 윤혜미·김환준·강혜규, 『사회복지지표의 체계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이영수, “신규 통신서비스 수요 촉발 어렵다”, 『LG주간경제』, 2004.2.4
-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1.
- 장영식 외 5인, 『OECD 요구 보건통계 생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4.
- 정경희 외,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정보통신부, 『한국의 정보화 전략』, 2003. 4
- 정영순, “아동복지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3권, 1997.
- 조남훈 외, 『한국의 사회지표의 체계개선에 관한 연구(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조사통계국·한국개발연구원, 『인구통계개선: 발전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1977.
- 주학중 외,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7.
- 주학중 외,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보건사회연구원·통계청, 1994.
- 주학중 외,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7.
- 주학중 편, 『2000년대의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 _____, 『2001년 생명표』, 2003.
- _____, 『2003 인구동태통계연보』, 2004.
- _____,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 _____, 『도시가계조사 30년: 1963-1992』, 1993.12.
- _____, 『물가연보』, 각년도.
- _____,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 분기별.
- _____, 『정보화실태조사』, 각년도.
- _____, 『통계로 보는 한국의 발자취』, 1995.8.
- _____, 『통계로 본 OECD 국가와 한국』, 1995.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 _____, 『한국통계조사현황(상권)』, 2002.

- 한국교육개발원(편역), 『OECD 교육지표』, 각년도.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각년도.
- _____, 『한국의 교육지표』, 각년도.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200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2002.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 총괄편』, 1995.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I): 해설편』, 1995.
-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1994.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사회지표 개발, 1996.
- _____, 『여성통계연보』, 1999.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 _____, 『국민계정 용어해설』, 1993.
- _____, 『국민계정』, 1994.
- _____, 『물가총량』, 1994.
- _____,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2004.
- _____, 『한국은행의 통계 -어제와 오늘-』, 1995.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반기별』, 2204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각년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정신문화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1983.
- 한국주택은행, 『주택금융』, 1995.6.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각년도.
-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의 청소년 지표』, 1997.
- 한성덕, “공안”,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7.10.
- _____,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체계 개선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8.
- 허 범, “공안” 『한국의 사회지표(해설편)』, 경제기획원·한국개발연구원, 1978.

-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신국민생활지표』, 평성 16년: 2004.
- _____, 『신국민생활지표 PLI』, 1995.
- _____, 『신국민생활지표』, 1995.
- 국민생활심의회조사부 편, 『사회 지표』, 동경, 1975.
- 총무성 통계국, 『사회생활통계지표』, 2004.
- _____, 『시계열てみる현のすかた』, 1991.
- _____, 『사회·인구통계체계:사회생활통계지표』 (Social Indicators by Prefecture),
평성3년, 1991.
- _____, 『사회생활통계지표』, 2004.

- Land, K. C., "Social Indicators", in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83, Vol.9, pp.1~26.
- Andrews, F. M., "Subjective Social Indicators, Objective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Accounting Systems", in Juster, F. T. and Land, K. C., (Eds), *Social Accounting Systems*, 1981, pp.377~421.
- Andrews, Fran M. and Stephen B. Withey.,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1976.
- Atkinson, Tony, Bea Cantillon, Eric Marlier, and Brian Nolan, *Social Indicators, The EU and Social Inclusion*. Oxford, 2002.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Social Trends 2004*, 2004.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s Health*, 2002.
- Bauer, R. A., "Detection and Anticipation of Impact: The Nature of the Task," in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1966.
- Biderman, A. D., "Social Indicators and Goals, in Bauer, R. A(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ass: MIT Press, 1966
- Campbell, A. and Converse P. E. (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2.
- Carley, Michael,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Issues of Policy and Theory*. London 1981.
- CCSD, *Social Cohesion in Canada: Possible Indicators*,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November 2000.
- Central Statistical Office, *Social Trends*, British Government, 1990.
- Choi, Soon-Yong and Andrew B. Winston, *The Internet Economy: Technology and Practice*, SmartEcon Publishing, 2000.
- Cohen, Stephen S., J. Bradford DeLong, John Zysman/, "Tools for Thought: What is New and Important About the "E-economy," BRIE Working Paper, no.138, 2000.
- De Neuttrille, J. L, *Social Indicators and Public Policy*, Amsterdam: 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Co. 1975.
- Department of Commerce, *Social Indicators III*, US Government, 1980.

- Drewnowski, Jan, *On measuring and planning the quality of life*, Mouton, 1974.
- Drewnowski, Jan.,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port No.70.3, Geneva, 1970.
- EIU, *The 2004 e-Readiness Rankings*, 2004.
- Erikson, R., "Descriptions of Inequality: The Swedish Approach to Welfare Research." in M. Nussbaum and 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1993, pp.67~87.
- Erikson, R., and H. Uusitalo, *The Scandinavian Approach to Welfare Research*.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Reprint Series No.181, Stockholm, 1987.
- European commission *The Social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 2003.
- European Unions Employment Report 2003.
- German Social Science Infrastructure Services(GESIS) http://www.gesis.org/en/social_monitoring/social_indicators/Data/System/index.htm#DISI
- GESIS, "The Germ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http://www.gesis.org>
- ILO; Geneva and Washington, D.C.: *World Employment Report*,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1.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Lausanne, 2004.
- Inkels, A.,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34. 1993.
- Innes, J. E., "Disappointments and Legacies of Social Indicators," *Journal of Public Policy*, 9, 1990, pp.429~432.
- Innes, J. E., *Knowledge and Public Policy. The Search for Meaningful Indicators*,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89.
- ITU, *Yearbook of Statistics*
- Johnston, D.F., "Toward A Comprehensive 'Quality-Of-Life'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1988, pp.473~496.
- Kenneth Land. 2000. "Social Indicators." in Edgar F. Borgatta and Rhonda V. Montgomery (eds.). *Encyclopedia of Sociology*. Revised Edition. New York:

Macmillan.

Land, K., "Social Indicators," in *Encyclopedia of Sociology*, 1992, pp.1844~1850.

Moore, W. E. and Sheldon, E. B., *Indicators of Social Change: Concept and Measure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8.

National Statistics, *Social Trends*: 34(2004 edition), edited by Carol Summer field & Penny Babb, London, 2004.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1982.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OECD,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Member Countries*, 1973.

OECD, *Measuring Social Well-Being: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76.

OECD, *Measuring the Information Economy* 2003.

OECD,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Edition 2002, Paris, 2003.

OECD, *The Knowledge-based Economy*, 1996.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OECD Social Indicator Development Programme. Paris: OECD, 1982, pp.17~46.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82.

OECD.,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 Paris, 197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ocial Trends*, British Government, 2004.

Rose, Richard, "Whatever happened to Social Indicators? A Symposium," *Journal of Public Policy*, Vol.9, 1990, pp.399~450.

Rothenbacher, F., "National and International Approaches in Social Report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9, 1993, pp.1~62.

Saito Y, Qiao X, Jitapunkul S. 'Health Expectancy in Asian Countries'. Robine JM, Jagger C, Mathers CD, Crimmins EM, Suzman RM(eds), *Determining Health Expectancies*. John Wiley & Sons, Ltd, 2003. pp.289~317.

Spyridoula Tsoukalas and Andrew Mackenzie, *The Personal Security Index: A Reflection of how Canadians feel Five Years Later*, (2003 online ed.), Canadian Council on Social

- Development, 2003.
-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hanging America: Indicators of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 by Race and Hispanic Origin*, Sept., 1998.
- The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Trends and Indicators in the Changing Health Care Marketplace*, Menlo Park, CA, 2002.
- U. S: Department of Commerce, *Social indicators III*, Washington D.C., 1980.
- U. S., Department of Commerce &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Selected data on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United States*, U.S.Department of Commerce & Bureau of the Census, December 1980.
- U.N. Dep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New York, 1975.
- U.N., *Handbook of social indicators*, New York, 1989.
- U.N., *Improving social statistics in developing countries: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s*, New York, 1979.
- U.N., *Towards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New York, 1975.
-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 Digital Economy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Bureau of the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Selected Data on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Bureau of the Census, December 1980.
- UK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Social Trends 20*, London, 1990.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New York, 1975.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 United Nation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1975.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s 2003*, UNDP, Oxford Univ. Press, 2003.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Statistics*, New York, 1975.
- United Nations, *Handbook on Social Indicator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eries F, No.49, 1989.
-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compact among nations to end human poverty.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2003.
- United Nations, *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Series F No.89, New York, 2003.
- United Nations, *Towards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eries F, No.18, 1975.
- U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States: 1994*. 114th edition, Washington D.C., 1994.
- US Department of Commerce, *Social Indicators III*, 1980.
- US DHHS. *Healthy People 2000*. Washington D.C., 1990.
- US Federal Statistical System, *Social Indicators III*, Washington D.C., 1980.
- Vogel, Joachim, "Social Indicators: A Swedish Perspective," *Journal of Public Policy*, 9, 1990, pp.439~444.
- Vogel, Joachim, "The Future Direction of Social Indicators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2, 1997, pp.103~116.
- Walter-Busch, W., "Subjective and Objective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in Switzerl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983, pp.337~391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3~2004*
- Zapf, W., "German Social Report," *Social Indicator Research*, Vol.4, 1987, pp.5~171.
- <http://www.stat.go.jp/data/ssds/5.htm>
- <http://www.westir.org.au/SOCINDICpaper.html>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참여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고 철(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권태환(서울대학교 교수)
김태현(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손연기(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이승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조남훈(건강증진사업평가단 단장)

연구진

책임연구원

장영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부문별 집필책임자

1) 인구

김태현(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 가구와 가족

권태환(서울대학교 교수)

3) 소득과 소비

남상호(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팀장)

4) 노동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5) 교육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6) 보건

박재용(경북대학교 교수)

- | | |
|------------|--|
| 7) 주거와 교통 | 주택
손경환(한국국토개발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교통
김영호(영산대학교 교수)
정경옥(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8) 정보와 통신 | 홍동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산업연구실장) |
| 9) 환경 | 정영근(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 10) 복지 | 권선진(평택대학교 교수) |
| 11) 문화와 여가 | 정갑영(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조현성(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원) |
| 12) 안전 | 한성덕(대구대학교 교수) |
| 13) 사회참여 | 이홍택(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성인지지도 개발을 위한 참고부문

- | | |
|-------|-------------------|
| 1) 여성 | 문유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

정 부

- 선주대(통계청 사회통계국장)
권오술(통계청 전 사회통계과장)
전신애(통계청 사회통계과장)
우사임(통계청 전 사회통계과 사무관)
나운정(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
김응하(통계청 사회통계과)
서경숙(통계청 사회통계과)